

교육개발

1994

통권 92호

진두질병

청소년은 국가의 원동력 / 김중서

특집

초·중·고등학교 교육개혁

시론

- 살아남기 위한 교육 / 김재은
- 탈현대사회와 교육의 역할 / 전경갑
- 성인의 직업 위기와 평생교육의 과제 / 송병국

학교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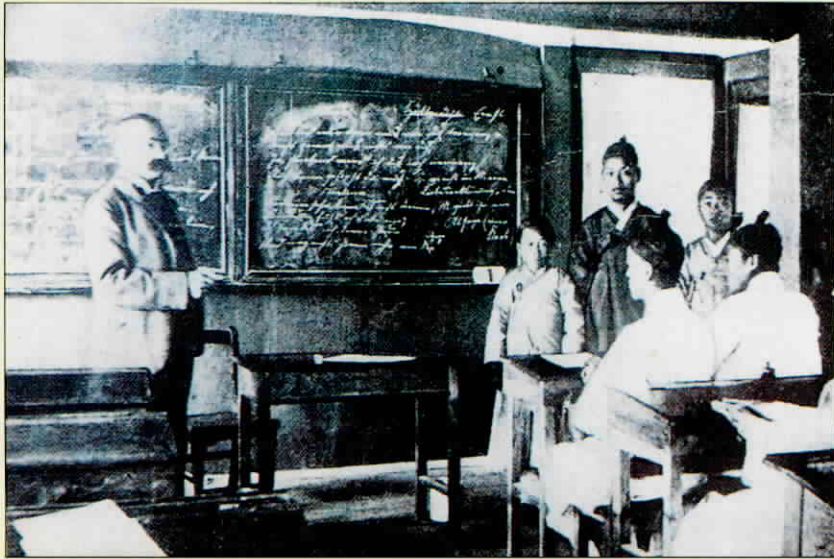
강릉 명륜고등학교의 덕성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불어 학교



이 사진은 佛語學校의 수업 광경으로 외국 선생이 직접 문법과 회화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수업을 지도받고 있다. 상투를 한 학생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보이며, 수업을 받는 모습도 진지해 보인다.

개항 초기의 첫 외국어 학교는 뮐렌도르프 등이 세운 영어 학교였는데, 그 뒤 日·美·英·獨·佛·露 등의 외국어 학교가 연달아 세워졌다. 당시의 외국어 학교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면 통역관 등의 직업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 자료제공 동아일보사
- 자료해설 손영주

교육개발

1994. 11

교육개발 1994.11/통권 92호/1975년 8월 25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4년 10월 31일 발행/격월간
발행인·한종하/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대표전화 572-5021, 5121/인쇄처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인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한종하
- 출간심의위원장/류상태
- 출간심의위원/김주훈, 박영숙, 이재희
임산하, 장재걸, 장택희
- 편집특임부장/남미영
- 기자/손영주

● 표지설명



가들은 위대한 계절이다,
그 안에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이(에게 내일이) 있다고 속삭여 주는 목소리,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 1994년 한해 동안 꿈꾸고 도약하고 달려서
이제 조용히 결실의 열매를 준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해를
가을 나무로 표현해 본다.

· 제자: 모암 윤양희

1. 화제의 사진

초창기 불어 학교

4. 한국교육개발원 코메니우스 상 수상

5. 권두칼럼

청소년은 국가의 원동력/김중서

8.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10

한국 전통 체육의 뿌리/김호연

12. 시론

- 살아남기 위한 교육/김재은
- 탈현대사회와 교육의 역할/전경갑
- 성인의 직업 위기와 평생교육의 과제/송병국

23. 세계의 교육개혁 4

이스라엘의 교육개혁/이이츠하크 카쉬티 역 최상근

27. 특별기획

첨단정보 공학과 교육개혁

- 첨단정보 사회와 교육/곽병선
- 첨단정보공학을 통한 교육 개혁 동향/허운나
-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 실태 및 향후 대책/박성익
- 학습환경은 컴퓨터 매개통신을 활용해야/남궁 장
- 컴퓨터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 삼위일치되어야/임성택
- CAI 프로그램에 매혹된 학생들/신정연
- 성공적인 컴퓨터 교육을 위한 방안/정성무
- 첨단정보교육을 위한 KEDI의 노력/정택희

68. 스승의 한마디 10

잊지 못할 스승님의 말씀들/정양환

70. 알아봅시다

학교 컴퓨터 교육의 현주소/서영석

75. 학교탐방

강릉 명륜고등학교의 덕성교육/임선하

79. 문화광장

백제 미술과 미의식/김창균

83. 연구보고

- 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극복을 위한 학교 도덕교육의 역할/윤현진
- 중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성경희
-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정재걸

96. 연구동향

- 공격행동의 유발요인과 매체폭력의 영향/정종진
-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 북한 교육/한만길
- 미국의 기업교육 동향/신익현

111. 외국교육소개

- 전환기적 갈등 속의 몽골 교육/최수향
- 독일 기초학교 1학년 교사의 일기/박덕규

121. KEDI 연구뉴스

125.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131. 이달의 명상/강종훈





코메니우스 상(Comenius Medal) 수상

한국교육개발원은 1994년 10월 5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제 44차 UNESCO-I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에서 제2회 코메니우스 상을 수상하였다. 이 메달은 UNESCO Comenius Medal 특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년마다 선발되는 상이다.

이 상은 교육연구와 학식 분야에서 탁월한 공을 세운 연구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하여 5개 연구 단체와 3명의 학자가 수상하였다.

이 상은 근대교육학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UNESCO와 체코 정부가 1992년에 창설한 상으로 순수한 '명예상'이며 상금 등 부상은 없다.



청소년은 국가의 원동력

김 종 서

(본원 이사장)

오늘의 우리 사회는 도덕적 위기의 사회라고 한다. 감히 그럴만도 하다. 언제부 터인지 몰라도 점차로 악이 득세하고, 선이 맥을 못추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 다. 도덕적 사회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선이 득세하고 악이 꼬리를 감추어야 하는 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눈에 띄기 때문에 도덕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사회 생활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공존 속에서 선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덕적 사회라고 하며, 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덕적 위 기 사회라고 한다. 물론, 완전히 선이 지배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완전히 악이 지배 하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정의보다 불의가, 정직보다 거짓이, 사랑보다 미움이, 봉사보다 이기가, 근검보다 사치가 판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오늘날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청소년을 지목하는 견해가 팽배하다. 오늘날 청소년 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이 점차로 늘고 있으니, 앞날의 사회가 저이기 염려된 다고 성인들은 근심하며 한탄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도덕적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징 후들이 있다. 음주, 흡연이 늘고 환각제를 복용하는 청소년이 있으며 절도, 강도, 살 인, 성폭행자의 급증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위기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들의 비행 증가에 따라 청소년을 소극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 는가 하면 청소년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즉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시각이다. 그들을 사회의 후보자, 종속적 실체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독립적 실체로 보고 이에 따른 이해, 기회의 제공, 대책을 마련 하면 그들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시각의 타당성을 몇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우선 한 나라 사회의 존속 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 국방인데, 이 국방의 임무를 청소년이 맡고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청소년들은 나라를 위하여 순하게 많은 생명을 내던진 예를 역사를 통하여 역력히 보아 왔다. 청소년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개이며 중차대한 임무이다.

체육 활동에 의한 국위 선양도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체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청소년기인바 그들은 강인한 훈련으로 그들의 기량을 전세계에 떨쳤다. 서울에서 개최된 88올림픽에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세계 7위의 명성을 떨친 것이 청소년의 힘이다.

과학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것도 젊은 과학도들이었다. 그들은 2년전부터 연구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바 당시의 나이는 20세 1명, 22세 1명, 23세 6명, 24세 1명이었다.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도 가장 예민한 것이 청소년인바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이 중심이 된 정치 개혁이 많았으며, 유명한 일본의 명치유신도 젊은이가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의 4.19혁명 또한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소년 시절에 큰 힘을 나타낸 문인도 무수히 많다. 문학 분야에 있어서 최남선은 18세에 우리 나라 최초의 잡지인 '소년'을 사재를 털어 창간하였으며, 이광수는 25세에 한국문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최초의 근대 소설 '무정'을 발표하였다. 방정환은 23세에 '색동회'를 조직하여 어린이 운동을 하였고 24세에는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다. 김소월은 16세, 17세 중학생으로 수많은 시를 썼으며 유명한 '진달래꽃'도 21세때의 작품이다. 윤석중은 12세에 '꽃발사', '기쁨사' 등의 문학 서클을 만들어 등사판 회람지를 돌렸으며, 16세에 신문에 투고하여 당선된 동시가 유명한 '달'이다.

음악에 있어서는 홍난파가 22세 때에 '봉선화'를 작곡하였음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며, 정치에 있어서는 안창호가 18세에 '쾌재정 연설'(快哉濟寧說)을 하여 유명한 소년

연사가 되었으며, 유관순은 16세에 ‘아오네 만세사건’의 주역이 되었다. 외국인의 경우도 수없이 많다.

이와같이 청소년들은 그들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수월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사회 발전에 전위대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예리한 관찰력, 반짝이는 직관력, 강한 체력, 순수한 열정으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기수가 되고 있다. 사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의 성인들이 청소년때도 당시의 성인들로부터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라고 문제시 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서의 청소년은 어떤 시기에도 있었으며 그 수는 건전한 청소년에 비하면 극히 적었다. 과거 청소년기에 문제시 되었던 오늘의 성인이 과거의 성인보다 사회를 더 발전시켰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현재의 청소년이 성인들로부터 크게 비판받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오늘의 청소년이 과거의 청소년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예술적 정서에 마음껏 젖을 수 있는 기회, 봉사심을 자극하고 이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의 성인이 얼마나 제공하였는지에 있다. 아니 기회의 제공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봉쇄하고 좌절시키는 잘못을 성인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반성치 않을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성립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청소년 대책수립의 핵심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정립된 시각이 자기충족 예언(自己充足 豫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란 인간이 어떤 기대를 제시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예언을 말한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사회 원동력이라고 보고 기대하면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반대로 청소년은 꼴치덩어리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시간과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의 기성세대가 해야 하는 첫번째 과제가 아닐까?

한국 전통 체육의 뿌리

수련 문화에서 찾는다

김 호 언



한국의 전통 체육의 뿌리는 한국의 수련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영과 육이 조화된 소우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건강”하면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건강을 생각하였고 정신과 마음의 건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육체 단련만을 따로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않았었다.

필자가 체험한 우리의 수련문화에는 음선(音禪), 영가무도(詠歌舞跳) 단전호흡 등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잘 조화된 것들이었다.

근자에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나 단(丹), 단전호흡(丹田呼吸), 단학(丹學) 등의 간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 쏟아져 들어온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서양식 체조, 운동 등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에서 우리의 전통수련, 건강법이 역시 우리에게 맞고, 좋다는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서 대단히 기쁘고 미더웠다.

일찍이 퇴계선생께서는 활인심방이라는 건강서를 평생 곁에 두고 실천하시어 타고난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셨다.

퇴계선생은 이 책을 손수 친필로 옮겨 놓았다. 그것이 지금도 전하여, 몇몇 동작은 그림까지 그려 놓으셨는데 그림 또한 일품이다.

활인심방은 중국 명나라때 현주도인(玄州道人)의 저서이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 이전부터도 우리의 수련문화가 발전되어 왔으니 고조선 11대 도해단군때 국선소도(國仙蘇塗)를 설치하여 젊은이들에게 여러가지 수련을 시켰으며, 그 명칭이 신라에도 이어져 국선 화랑제도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무술을 익히고 글읽기에도 열중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심신수련을 하였던 것이다.

호흡수련

고구려때의 조백선인은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기운이 조화된 생명체이다. 이 두가지를 잘 조화시키기 위하여는 길고 깊은 호흡과 여러가지 몸놀림을 하여야 한다”하여 정신이나 육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련법을 국가적으로 주도 하였다고 한다.

또 신라시대의 선인 물계자는 “사람이 숨을 길고 깊게 쉴 줄 모르면서 글만 배우면 나쁜 피가 될 수 있고, 또 무술만 배우면 폭력이 될 수 있다”하여 무술이나 글을 배우기 앞서 숨고르기를 먼저 시켰다고 한다.

또,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해동단학파”가 형성되어 체계적인 호흡수련법과 몸풀기 동작들이 발달되었으며 그 내용들이 “조선도교사, 해동전도록, 청학집”등에 남아 있으며 그 도맥을 크게 이어받아 국선도 단전호흡으로 발달되었다.

보통 수련의 용어들이 한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예 : 丹田呼吸) 으레 중국에서 들어온 것

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어떤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한자도 우리 조상인 동이족 중에 창힐이라는 분이 처음 만드셨다는 설도 있고, 또 한자 이전에 순수한 우리말로 단전호흡을 “뱀돌법”이라고 하였다 한다.

“뱀”은 날이 밝다, 밝아온다의 “뱀”으로서 명사풀로 태양이고 “돌”은 돌고 도는 대자연의 생성의 원리로서, 태양의 밝음과 기운을 내 몸에 잘 받아들이기 위해 길고 깊은 호흡을 뜻하는 것이다.

또 단전(丹田)은 우리말로 “돌단지리”이니 그 뜻은 “돌고 도는 단단한 힘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이다.

이와같은 호흡수련 외에 우리 조상들께서 즐겨 행하신 수련에 영가무도와 소리선(音禪)이라는 것도 있다.

영가무도

영가무도는 100여년 전에 정역(正易)을 지으신 일부(一夫)선생께서 체계화하여 그의 제자 창부(昌夫)에게, 다시 원성(元成)에게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뿌리는 단군시대로부터 유래하였음을 대야발의 저서인 단기 고사에서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제(帝)가



김 호 연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法明선생 주체성 수련(音禪), 淸山선사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 「국선도 단전호흡」, 「주체인간론」의 다수

천하를 다스린지 120년에 국가는 태평하고 인민은 안락하며 우순풍조(雨順風調)하며 무병장수하여, 산에 도적이 없고 집에 남은 곡식이 많으나 밤에 문을 닫지 아니하고 길에 흘린 것을 줍지 아니하며, 노인은 영가(詠歌)하고 아해는 수무족도(手舞足跳)하며 연화춘풍이어라"하였다.

영가무도의 영(詠)은 길게 소리낸다는 뜻이며 가(歌)는 노래, 무(舞)는 춤, 도(跳)는 뛰는 뜻이니, 그 내용은 음·아·어·이·우의 오음이 각각 비장, 폐장, 간, 심장, 신장에서 기운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음을 처음에는 천천히, 길게, 굴절있게 소리내다가 흥이 돌아짐에 따라 조금 빠르게 하여 노래하다가, 더 흥이 나면 일어나서 춤추다가 더 흥이 나면 뛰게 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절로, 몸에서 우러나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가는 것이니 정자(程子)는 "옛사람의 음악은 소리로 그 귀를 기르고, 빛깔로 그 눈을 기르고, 노래로 그 성정(性情)을 기르고, 무도로 그 혈액을 길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악에서 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리선(音禪)

소리선은 소리를 내서 선(禪)의 경지로 들어가는 수련으로서 예로부터 모든 종교가 수련에서 주문, 법문, 독송, 기도 등의 형식을 빌어 행하여진 것이다. 대종교의 천부경, 상일신교와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 증산도의 태을주등이 있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그 공통된 장점을 뽑아 수련으로서의 체계를 세운 분은 법명(法明)선생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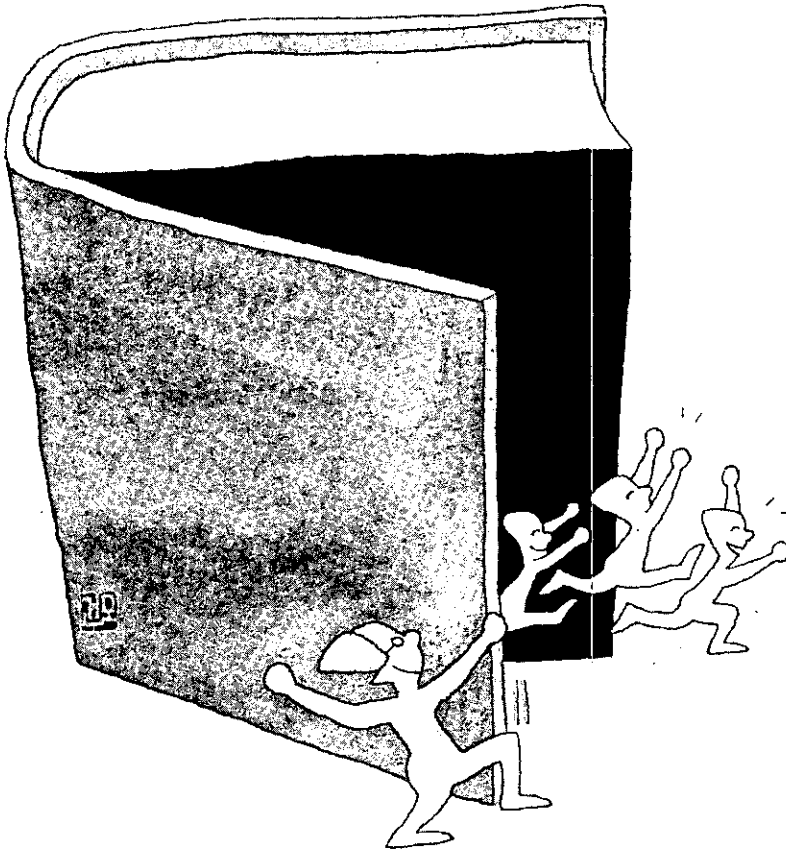
그는 발성효과와 기(氣)의 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발성적인 면과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편케 하는 면을 함께 추구하여, 7자송을 창안했는데 글자는 각인선지정원심(覺正圓心)의 7자로 발성은 활달하고 힘차게 하도록 전하였다. 그러면 처음에는 목에서 겨우 나던 소리가 가슴에서 배로, 다시 아랫배 단전자리까지 울리면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구체적 수련의 효과로는 몸이 맑고 깨끗해져서 몸이 무거워 생기는 여러가지 노화현상이 사라지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안정된 마음과 정신집중의 효과가 커서 학습능률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복잡하고 혼돈된 가치관에서 여러가지 신경 정신 증세에도 심신양면의 도움으로 불면증, 울화증, 불안증, 허약체질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련법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요즘의 "체육"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몸과 마음을 근원적으로 건강케 하는 수련문화들을 풍부히 누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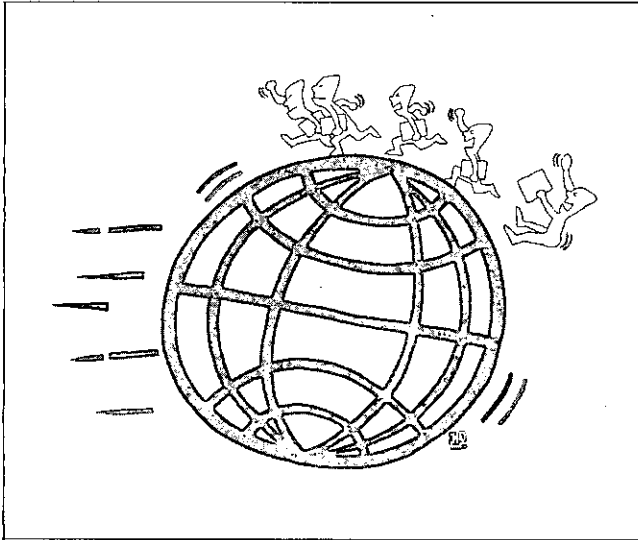
이것을 오늘의 교육실정에 어떻게 조화시켜 계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후손된 우리들의 과제이리라. ㉞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 남기 위한 교육

김재은



교육의 경쟁력

요즘 국제화니 개방화니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말은 경제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최근에는 그것이 우루과이라운드니 자유무역이니 하는 국제 경제의 새 질서로서 등장했지만 실은 1800년대말 우리나라에서도 몇번의 양요(洋擾)와 운양호사건 등이 바로 개방화를 촉구하기 위한 세계열강의 압력이었다고 보면 개방화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강대국이 개방을 강요하게 된 배경에는 식민지화에 대한 매력때문이었고, 식민지화까지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개항을 통해서 선진물자를 팔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화·개방화도 옛날에는 선진국 혹은 강대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왜 국제화며, 개방화

냐? 지금 지구는 통신·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한군데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공기나 물처럼 국경을 초월해서 넘나들기 때문에 이런 인적, 물적, 정보적 유통 속에서 만일 소외된다면, 그(그나라)는 큰 흐름에서 소외되고 말 것이며, 동시에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점이 옛날의 개방화와는 다르다.

이젠 물자, 인간, 정보의 생산 유통이 대량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유통되는 물자, 오가는 사람,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적극 수용하고 소화시켜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완전한 자급체제를 확보할 자신이 없는 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과연 이 지구상에 완전히 자급자족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일본은 적어도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다. 미국은 자원과 동시에 기술이 있으나 인력이 모자란다. 어떤 나라도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국가는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계속 발전하려면 우수한 상품을 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상품 속에는 문화상품도 포함된다.

교육도 경제와 같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라 경쟁력의 순위가 결정된다. 즉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많이 길러내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느냐로 국가교육제도에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경쟁력이 적으면 1대 1 혹은 1대 10의 두뇌싸움. 즉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특허획득에서 밀려나면 그 나라는 영영 다른 나라의 기술 식민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무대에 설 수 있는 세계적 연주자가 없어서 밤낮 다른 나라 연주자만 초청해서 연주를 듣는다면, 그 나라는 또한 음악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세계적 비엔나에 초대받을 작가가 없거나, 세계적 연극무대에 나설 수 있는 배우가 없고, 세계의 극장에 상영될 영화를 만들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 이화여대 교수
- 「영어와 결혼마장이를 위한 프로그램」
- 「유아 교육 지침서」의

널 영화감독이 없다면 우리는 영영 문화식민지가 되고 만다. 이 모든 것은 교육이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완전한 자유무역은 재화의 흐름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한다.

살아 남는다는 것은

〈교육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잘 교육된 인간을 많이 길러낸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잘 교육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철학의 차이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터이나, 건전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일상적이고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란,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활을 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은 기초 일반교육에서 강요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속하는 정보활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태도가 잘 길러져 있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의 중학교 정도의 교육과정이라도 제대로 교육받기만 하면, 일생 그 이상의 교육 없이도 사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고등학교를 나오고도 실생활상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비교육적 무능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초교육의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교육의 실패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기존교육의 질은 유럽에 비해서 아주 크게 질이 떨어진다.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취직을 해서 제몫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극단적 고학력사회가 되어서 고교졸업생에게 취업의 기회는 안주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고교육이 매우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 중심, 교실중심, 주지교과 중심, 기억 중심, 객관식 교시중심의 교육의 평가제도로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간을 결코 길러낼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견시민도 길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잘 교육된 사람이란 고등학교를 나오고도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중견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둘째는 시민교육이다.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이다. 잘 교육된 사람이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민교육의 부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 여행객의 출입을 금하는 곳도 있다는 보도를 읽었다. 우리의 교육열, 학교 수, 고학력 사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시민교육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다.

장차 통일된 이후에도 이 민주시민의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족통합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며, 평등사상을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라시고, 50년동안 해 온 나라치고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가 없으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없다. 돈과 권력을 최대한 코걸이로 이용하면서 차별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동한다. 그래서 법과 질서라는 계율은 이 차별의식 앞에서 무너진다.

有錢無罪요 無錢有罪라는 한탄섞인 비아냥이 도는 까닭이 무엇인가? 돈이 없으면 인권도 기본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고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자유개념과 책임개념

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자유개념에 치중한 나머지, 자유가 곧 망종과 동일시되고 있어서, 이 사회는 무질서 속에서 온갖 비리가 창궐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니 그 권력을 국민복에 사용해야 하고, 부를 가진 자는 이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것이니,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명예를 가진 자는 시민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니 시민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풍토가 바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인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지켜야 되며, 부를 가진 자가 겸손해야 하고, 명예를 가진 자가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의식과 행동양식은 어릴 때부터 길러 주어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또 민주시민은 공동체의식을 더 두터이 갖고, 공동체의 목표에 부응해서 협력하고 타협해서 일을 성취해 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한 사람이다. 따라서 과도한 이기주의 혹은 가족이기주의에 밀려서 개인이 공동체의 목표에서 이탈하여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물론 그 구성원도 결국은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공동체의 합의된 목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창의성을 길러야

교육의 경쟁력은 한 인간의 우수성 혹은 수월성의 척도로 따질 수가 있으나 그것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같은 3년제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로 고등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며,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그 수준, 세련된 행동양식 등으로 그 대학의 경쟁력이 결정되며, 나아가 그 국가의 기술력과 시민의 밀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가 경제나 기술에 있어서는 중진국 중 선발 대열에 서 있으나, 교육은 솔직히 말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지 모른다. 기술이 곧 사람이니 기술이 크게 발달했으니 사람도 그만큼 잘 교육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기술이란

것이 외국것을 돈주고 사왔거나 모방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이미 낡아가고 있는 기술에 속하는 것이니, 곧 그 기술수준이 우리의 교육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살아 남는다는 것은 학교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에서 길러내는 인력(인재)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준거가 적용되리라고 생각된다.

첫째, 얼마나 똑똑한가이다. 두뇌활동이 얼마나 뛰어나며, 문제해결력을 갖고 있으나 없느냐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지꾸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똑똑한 정도에서 거꾸어 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 실력, 컴퓨터 조작능력, 여러 가지 전자기기 조작능력, 세계정세분석능력, 정신분석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수학적 두뇌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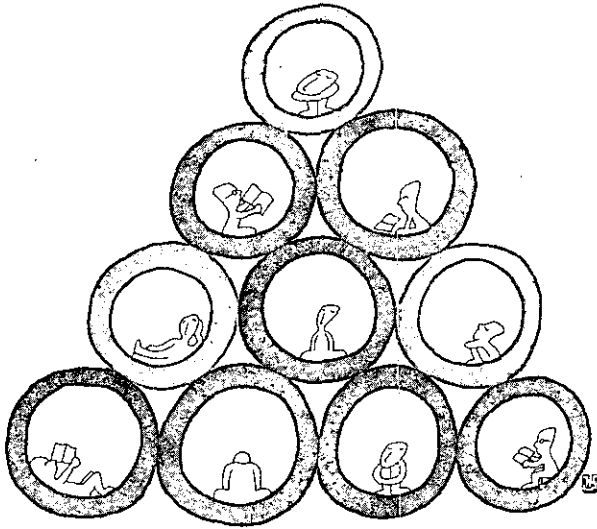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란 보다 고가의 가치를 가진 것(제도, 법, 제품, 작품, 구조, 시스템, 조직, 사상 등)을 창출해 내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창의성이 없으면 그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없다.

둘째는 국제적 센스를 가진 매너, 태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다.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 저질 매너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결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교육의 경쟁력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하면, 회사의 방침에 충실히 따르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간행으로 변신하는 사람을 두고 경쟁력을 가졌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도태당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세련된 외모, 조리있는 언변, 신뢰감, 넓은 문화적 식견, 국제정세에 대한 센스, 사람 사귀는 태도 등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과연 이러한 경쟁력을 갖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 나가야 할 것 같다. ㉞

탈현대사회와 교육의 역할

전 경 감



I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산업사회론, 포스트포트주의 등 일련의 포스트 증후군이 상징하는 그야말로 전환기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그동안 우리가 현대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때 의거해 오던 개념적 범주들의 유용성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사회적 현실에 여러가지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계몽운동 이래로 이성을 과신하고, 대상을 지배하는 주체를 확신함으로써 인류역사의 끊임없는 진보를 추구해 온 것이 소위 현대론으로 통칭되는 시대적 특성 즉 모더니티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은 이성과 주체 및 진보의 모더니티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더니티 앞에 포스트를 붙여 포스트모더니티

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를 탈현대론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탈현대사회의론이 이제 그 형성기에 있기는 하나, 탈현대적 현상은 우리의 생활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현대적 상황은 교육목적을 비롯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 교육의 전체 과정에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를 편의상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 및 문화적 현실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국한하여 간략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교육이 대처해야 할 방안을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II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자본주의를 다국적자본주의 혹은 소비자본주의라 한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힘입어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가 본격화됨으로써, 유한한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범세계적 경쟁이 치

열하게 전개되는 다국적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비가 미덕이며 소비욕구를 부추기는 공격적 마케팅이 강조된다.

근면과 생산보다 향락과 소비가 미덕이라는 인식, 교육을 통해 강조해 오던 전통적 가치에 역행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야 하는 사회, 진리와 허위가 전도되는 사회가 소비사회라는 것이다. 소비자본주의사회는 요란한 축제성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서비스산업을 확충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하이테크혁명에 의하여 정교해진 미디어를 동원하여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소비욕구를 조장한다.

전통적 가치에 역행하는 향락과 소비를 직설적으로 부추기면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디어는 기호학적 환유나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상품에 독특한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를 은밀하게 연관시킨다. 특정 캔음료를 보면 광고모델로 출연한 어느 축구스타의 남다른 활력을 연상케 되고, 구두를 광고할 때는 각선미가 뛰어난 어느 배우의 다리를 연관시킨다거나, 외제 가구는 상류계급의 품위로 이미지화하고, 유명 메이커의 진자켓은 신세대의 개성으로 기호화하는 등 소비사회의 미디어는 기호조작에 의하여 무의식 수준의 본능과 억압된 욕망을 부추긴다. 이와같은 기호의 조작은 소비자본주의사회의 새로운 지배양식이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적 범주는 이제 소비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보드리야르는 마르크스의 생산양식 개념을 기호의 의미화 양식으로 대체하였다. 미디어가 소비대중에게 유포하는 기호의 지시대상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톱스타의 매력이나 신세대의 개성 혹은 상류계층의 품위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호가 기호 외적 실재에서 해방되어 상품과 무관한 상징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이것이 소비대중의 의식 지면에 깔린 본능을 자극하여 구매충동을 부추긴다. 따라서 우리의 구매행위가 개성의 표현이라거나 주체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효용성이나

사용가치가 아니라, 기호효과에 의해 은밀하게 연관된 톱스타 광고모델의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올들어 외제 승용차나 냉장고 수입이 작년어 비해 150%나 늘어나고, 강남의 어떤 중학교는 일제 도시락을 사용하는 학생이 반을 넘는다고 하니 과시적 소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계층과 부유층의 소비가 뚜렷한 양극화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시적 소비는 빈부 격차를 더욱 가시화시키고, 결국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소비생활의 사회적 윤리 및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해야 할 것이다.

III

탈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양한 하위집단들의 자율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이른바 미시적 정치(micro politics)가 뚜렷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유형의 비민주적 사회체제와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비판하고,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민연된 인간소외를 규탄하며, 물질적 부의 균등한 분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 소위 신좌파운동이 시민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로 사회운동은 점차 환경보존운동, 소수민족의 인권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여성해방운동, 지역사회문제 그리고 심지어 게이해방운동과 같은 비이데올로기적 생활문제가 사회운동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신사회운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에 입각한 종래의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운동논리에 의하여 포섭되고 외면되었던 지역적 문제가, 이제 그 이질성과 고유성을 표방하면서 정치적 요구의 전면에 부각된 것



· 고려대학교 화학과 졸업
 ·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졸업 (철학박사)
 · 부산수산대학교 교수
 ·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의

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이러한 신사회운동이 점차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운동성격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종래의 사회운동이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특정계급을 그 주체로 규정한 것이라면, 탈현대의 사회운동은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계급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변화에 착안하여 푸코는 어떤 궁극적 근원에 입각하여 모든 영역의 다양한 현상을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유형의 근원주의를 철저히 비판하였다.

보다 인식론적 입장인긴 하나 료타르의 관점도 푸코와 같다. 그는 19세기와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모든 것을 절대정신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인식한 헤겔이나 인간해방의 명분하에 모든 영역의 이론과 실천을 총체화한 마르크스의 사상과 같은 총체론적 거대이론에 대한 항수 때문에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다고 비판하고, 전체를 이루는 각 영역의 고유성과 다양성 및 영역들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탈현대적 상황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처럼, 그도 진리 여부를 가리는 영역, 효율성을 판단하는 영역, 정의를 논하는 규범영역 등 다양한 영역들은 어떤 획일적 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역 고유의 규칙에 따라 진술이 정당화되는 자율적 언어놀이라고 본다.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언어외적인 어떤 궁극적 실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언술적 실천이 실재를 구성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는 언어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인식도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다는 상대주의 혹은 반근원주의이며, 이러한 입장은 료타르 뿐만 아니라 푸코, 데리다, 로티, 라캉 등 탈현대 이론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모순을 기본모순으로 규정하고, 정치, 교육, 언론, 문화영역의 이론

과 실천을 기본모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종래의 경향을 반대하고, 각 영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신사회운동은 특정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비판의식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전제한 운동이다.

“

탈현대사회는 상품이 상징적 기호로 대체된 사회이며, 경제와 문화의 경계가 해체된 사회이다. 오늘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윤추구와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이 종래의 문화와 구별되는 점이다. 문화가 대기업에 의하여 대중보급되면서 문화의 교육적 기능은 소멸되고 학교 밖에서 학교교육을 전도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렇게 볼 때, 탈현대적 정치논리는 풀뿌리수준의 민주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저마다의 논리로 전개되는 미시적 정치논리는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변혁을 위해 하등의 비전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IV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탈현대사회는 상품이 상징적 기호로 대체된 사회이며, 경제와 문화의 경계가 해체된 사회이다. 오늘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윤추구와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이 종래의 문화와 구별되는 점이다. 문화가 대기업에 의하여 대중보급되면서 문화의 교육적 기능은 소멸되고 학교 밖에서 학교교육을 전도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여가시간이 늘어난 탈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민주적 가치의 확산으로 지배계급의 문화독점 현상이 무너지면서 대중의 문화적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요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이제 문화가 이윤높은 상품시장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처럼, 청소년들이 취향에 맞는 전자오락실, 디스코장, 라이브콘서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대중문화의 현실은 과거에 볼수 없던 현상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중문화는 문화와 교육에 공헌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상품화되었고, 공동체적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 상호교감을 단절시켜 원자화된 개인으로 분리시킨다. 대중문화는 대중에 의해서 생산되는 대중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영리만을 추구하는 거대기업이 통제조종하는 문화일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문화는 없고 대중문화의 신화만 있는 일종의 문화산업이며, 제임슨의 지적처럼 후기자본주의의 독특한 문화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V

이와같은 탈현대사회의 현실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문제제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최근의 탈현대사회론이 제기하는 근본적 동기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개되는 다양한 탈현대론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합리적 이성과 인간의 주체성 및 역사의 진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용된 이성, 대상 위에 군림하는 주체, 유토피아적 진보의 사관이 빛은 문명의 역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처할 방안을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격적 소비사회에 대비하여,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 교육의 전체과정이 공익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을 존중하고,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소득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시적 소비풍토가 확산되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인 빈부격차가 더욱 가시화되어 치유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소비활동의 사회윤리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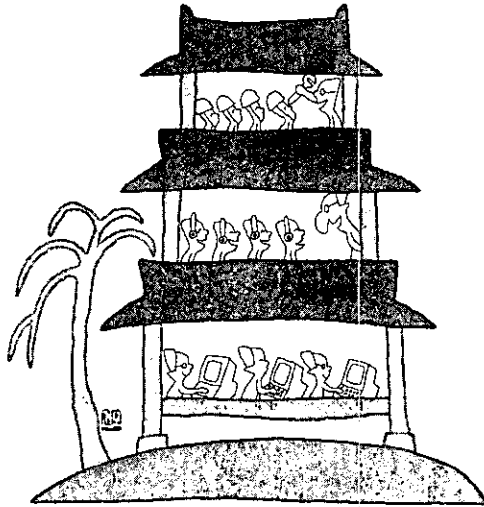
근본적으로는 개인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분단이나 학급간의 경쟁을 조장하여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점차 다원화되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면서도 각자가 뚜렷한 자기정체성 있는 개체로 자부할 수 있도록 개성 신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교육자들이 교육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의 직업 위기와 평생교육의 과제

송 병 국



실직은 '사회적 사형선고'

어느날 아침 한 직장인이 출근해서 보니까 자신의 책상이 치워졌거나, 사무실 명패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인가?

얼마전 한 T.V에서 르포형식으로 오늘날 4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실직 사태와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성인들이 실직 당했을 때 겪는 정신적 허탈감과 사회적인 낭패감 등 정신병적인 증세부터 심지어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다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직문제는 논리적으로 분명 사회문제임에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지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개인

의 사회적 관계나 역할이 직업을 중심으로 분배되고, 수행되는 직업중심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실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개개인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토대로 존재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는 취업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치안문제, 환경문제, 핵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 수가 없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따져보면 이들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아마도 취업문제일 것이다. 물론, 여타의 사회문제들이 취업문제 이상으로 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체에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은 직업을 통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사회 발전이나 통합에 기여하고 여타의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만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 여타의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직하여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에게 교통문제, 환경문제, 치안문제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건강한 직업인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오늘날 심각한 갖가지 사회문제가 의미있게 사회문제화 될 것이며, 이의 해결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실직은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며,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근거를 뿌리채 뽑히는 일종의 '사회적 사형선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취업문제는 모든 사회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할 원초적인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업위기의 세가지 유형

성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맞게 되는 직업적 위기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이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 및 변화로 직업 세계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사회적인 수요가 없는 직종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경우 직업을 전환해야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위기는 직업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직업인 개인 차원에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와 지원이 요구되는 위기이다.

둘째는 직종 자체는 사회적인 수요가 계속되지만, 직장이나 조직의 부실경영에서 나타나는 위기이다. 직장이나 조직 리더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종업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비능률과 저생산성에 의해 생산 결과

의 사회적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직장이나 조직 자체가 도산되거나 붕괴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 달에 수 십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인해 쓸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유형의 직업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두번째의 위기는 겉보기에는 종업원들의 근무태만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그 원인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직장이나 조직 경영진의 경영능력 미숙에 그 원인이 존재한다. 직장이나 조직의 경영진이 해야 할 근본적인 임무는 직장의 확실한 비전제시와 건실한 경영을 통해 종업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 직장이나 조직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위기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세번째는 직종 자체의 내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서 연유한 위기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과 기술의 발달은 직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각 직종 자체의 획기적인 내부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특정 직종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 기술의 발달 및 사회구성원들(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전자 기술 및 컴퓨터 산업의 발달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인쇄출판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능동적으로 갖추는 직업인의 자세가 요청된다.

산업고도화와 고용불안

정부에서는 강력히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어야 그 만큼 생산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 서울농대 농촌사회교육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로
(농촌사회교육/진로교육전공)
· 본원 연구원

·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정당성과 한계」,
「고등학교 진로·직업」의

이다. 산업고도화란 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계화를 의미하는데, 분명 산업이 고도화되면 생산성이 증가되고,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고도화가 곧 고용기회의 안정적 확보로 연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산업고도화로 새롭게 생성되는 일 자리 수보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일 자리수가 더 많을 것이며, 또한 새로이 생성된 일자리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함으로써 성인 직업인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 선진국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산업의 고도화가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 선진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고용문제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10%를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 통계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공유제도(job-sharing)'는 각국에서 겪고 있는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직업공유제도'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그에 준하는 비율로 해고 또는 감원 대상인 노동자들의 일 자리를 지켜주거나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자는 개념이다. UNDP의 '9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제도는 산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 등 산업고도화로 인한 생산성의 급증과 일부 직종의 소멸에 의한 실업률 증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산업 선진국들에서 실업을 타개책의 한 전략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업공유제도는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회사인 BMW의 한 자회사에서 1990년에 자유 근무시간제(flex-time)의 도입과 함께 주 5일 근무대신에 주 4일, 36시간 근무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그 결과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될 수 있었으며,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 경우 주 4일 근무제도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급격히 향상시켜 추가 고용으로 소모되는

기업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공유제도의 한 특징인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직업공유제도의 효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산한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 5% 줄이면서 주 4일, 33시간 근무제를 보편적으로 실시할 경우 약 200만명에게 새로운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실업수당 약 28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선진국의 실업률이나 생산성은 아직 우리의 상황과는 판이해서 이를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 4일 근무는 커녕 주 5일 근무제도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며, 단 하루라도 더 많은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할 의욕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고용불안은 우리의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어 생산성이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겪게 될 사회적 문제이다.

그렇다면 산업 선진국에서 왜 고용불안이 증대되는 것일까?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장 자동화로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는가 하면, 생산성 증대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조업 감축 및 노동자 감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 기술의 발달로 새로이 생성되는 직업들은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여 4~50대의 성인들이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한편 세계 각국의 군비 축소, 자연자원 고갈 등 정치,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관련분야의 직업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성인 진로발달과 평생교육의 과제

성인들의 안정된 고용은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 즉, 성인 개인이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 대상의 진로발달 지도가 새로운 교육적 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이 성인의 진로발달이나 적응 문제를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발달지도 또는 진로교육하면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유용한 것으로 한정시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 그들이 선택한 직업에서 평생동안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지도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의 올바른 직업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직업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통한 삶의 목표 실현임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직업을 갖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보다 강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선택한 직업에서의 적응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직업세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직업 전환이나 직장 변경 등의 과업 수행을 돕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인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차적이겠지만, 성인 개인의 직업생활 성공이 직장, 나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생각한다면 직장이나 조직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다.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교육내용을 성인들의 교양이나 여가 중심에서 직업능력 개발이나 올바른 직업윤리 형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 성인들이 취업 후 맞게 되는 직업적인 고민이나 과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른바 진로 발달 및 상담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년 여성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들의 재취업이나 직업 전환, 또는 직업적인 발전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교양이나 여가선용 관련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와같은 교양이나 여가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성인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생산보다는 소비를, 실천보다는 논리만을 앞세우는 부조화된(?) 직업인이나 시민 양성에 한몫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인들이 직업생활에서 맞는 여러가지 유형의 직업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조직차원에서는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요즘 많이 회자(膾炙)되는 리엔지니어링이나 다운사이징과 같은 과감한 조직 개편이나 경영쇄신이 필요하다. 조직의 발전 없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배가 방향을 잃고 산으로 향해하고 있는데, 배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갈 수 있겠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연수나 교육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면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조직이 기존의 인력에 대한 재충전없이 유능한 신규 인력의 모집과 활용을 통한 발전에만 의존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생산성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차원에서는 선택한 직업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요청된다. 요즘 직장인들이 국제화에 대비하여 부족한 어학실력을 보충하는가 하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학습에 열중하는 것 등이 모두 직업세계의 변화로 닥쳐올 수 있는 직업 위기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일 것이다. ☺

이스라엘의 교육 개혁

이이츠하크 카쉬티/역 최상근(본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이스라엘의 개국 세대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오다가 이주해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현대주의, 독립성, 그리고 평등성의 정신 속에서 하나의 국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치체제를 구현하는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써, 그들은 교육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교육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건설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조직 유형과 방법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바, 그 변화와 개혁의 방향은 다음의 두가지 이념을 주로 기저로 하여 시행되었다.

첫째는 이질적인 사회에 적절한 것으로서 공유해야 할 가치체제의 하부구조를 창출, 발달 및 육성시키고자 할 때에 유대인 전통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과 서반구 태생인 사회경제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옛 정착민(서방인)과,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주민(동방인) 사이에 격차를 감소시키는 일이었다(Chen, 1980).

이스라엘의 교육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 입안의 주요한 점이 되고 있는 딜레마는 이스라엘 사회를 특징짓고 있는 복합적 성향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 응집성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

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2 건국 초기시대의 교육개혁 : 국가 교육체제·형식적 균등화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모든 다른 교육개혁과 변화 가운데에서 가장 첫번째 개혁은 교육법(the Law of State Education, 1953)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지도 조직 측면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을 나누던 것을 합치도록 하고, 차이를 두고자 할 때 사용할 공통요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을 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 법이 국가가 설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을 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 법이 국가가 창설되던 시기에 팽배하였던 시온이즘적 이데올로기와 유대인 사회가 갖고 있는 다원적인 성격에 기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창설시에 인종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당 활동을 새로운 국가의 활동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보편주의와 평등성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면서, 이러한 통합경향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의 백성", "하나의 새로운 문화"와 같이 시온이즘 이데올로기와 시온이즘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상징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국회는 교육에서는 여러 조류로 갈리는 것을 막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교육체제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교육법은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고, 어떠한

정당이나 종교나 정부 이외의 기구와 연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육부 장관 혹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장학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국가교육체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하나는 여러가지 인종적 집단의 구성원인 젊은 세대에게 일종의 확실적인 문화를 가르치려는 경향과 서로 차이 나는 인종별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와 가능성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두번째 딜레마는 교육의 균등한 투입에 대한 선호와 차등적 투입을 통하여 높은 학업적 성취와 수월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표의식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교육 평등은 보다 재능이 있는 학생의 학업적 성취를 감퇴시키고, 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한 목표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성취수준이 높은 서방 출신 학생들과 교육 수준이 낮은 동부 출신 학생들간의 격차를 보다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시행 후에도 동부 출신의 학생들은 성장한 후 낮은 수준의 직업으로 연결되고, 밑바닥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 노동자 혹은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투입 부문에서의 형식적 균등이 교육산출 부문에서의 균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Shmida, 1987; Swirsky, 1990).

③ 1960년대의 교육개혁 : 형식적 균등에서 균등기회 보장으로 전환

젊은 세대간에 사회인종적, 문화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된 두번째 교육개혁은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균등으로부터 실용적이고, 조직적이며, 교육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책으로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투입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대체로 학교현장에서 진단된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교육개혁의 중요한 표방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문화적으로 실조된 학생들이다. 둘째는 일반 학생이다. 학생들은 부모의 수입, 교육정도, 종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인에 기초하여 이 두 가지 부류 중 어느 하나로 선별된다. 여기서 들고 있는 부모의 배경 변인들은 학업 성공에 대한 좋은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문화적으로 실조된 학생들은 보충수업과정, 특수교재, 심화프로그램, 수업일수 연장제, 수학 연한 연장제 등과 같은 여러가지 발전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측면에서 의미있는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도와주는 기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문적으로 비교적 요구를 적게 하는 새로운 중등교육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는 영재 학생들을 위한 특별 기술 학교와 같은 교육 체제 속에서 동부 출신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결손 환경으로 간주되는 가정환경 보다는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숙학교가 더 나은 것으로 기대되었다 (Smilansky 등, 1966).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혁신을 가져왔으나,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교육적인 의의를 결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주로 직업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정립된 새로운 교육 체제는 전통적으로 일반계 중등학교 보다는

그 위세가 훨씬 낮았다. 교육적, 사회적 균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그 변화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계층과 문화집단의 아동들을 함께 교육체제 내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4 1970년대의 교육개혁 : 학교내에서 계층간 통합

1960년대 말에 시작된 교육개혁은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12세에서 14세에 걸쳐 있는 연령 집단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교육개혁은 여러가지 사회계층 출신의 이동을 통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1960년대 말의 통합 정책은 취약집단 학생들을 목표로 한 교육투입이 그들과 일반 학생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인식의 증가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육계의 원로들은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실시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교육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하여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정치적으로도 여론을 일으켰다.

이러한 통합정책을 통하여 교육계 원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첫째는 "방랑생활로부터 모이고 만남"이라는 시온이즘의 사상 속에서 여러가지 계층 출신의 아동집단들간에 사회적, 문화적 접촉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는 보통의 아동들로 하여금 학습영역과 여타의 학교성취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 취약자 집단의 친구들에게 모델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육체제 내에서의 계획적인 변화로서 다음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첫째는 수학기간의 연장이다. 무상의 무교육법에서는 5세에서 14세 아동들에게 무

상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5세에서 16세까지의 거주지역에서는 4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교육체제의 구조상의 변화이다. 이스라엘 국가 창립 이전 시기에 그리고 국가 창립 이후 20 년간에 걸쳐서 확립된 학제는 8 년간의 초등 보통교육 이후에 4 년간의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 중등교육은 대체로 인문중심이고 선별적이었다. 12 년간의 학교교육 구조 속에서 새로운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6 년간의 초등단계, 3 년간의 전기중등교육단계, 그리고 3 년간의 후기 중등단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초등단계에서 전기 중등단계로의 이동에서 학생들을 전혀 선별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거주지역에 기초해서 전기 중등학교에 배정되었다. 초등학교를 마친 모든 학생들은 두번째 단계인 전기 중등학교로 진학할 것이 기대되었으며, 이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9 년간의 학교교육을 보장 하자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을 3 년제 전기 중등학교로 진학시키면서 교육개혁 행정가들은 성취도 수준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진실로 고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선별과정을 겪게 되었다. 하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성취 수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 선별적이고 이질적인 학급에 배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몇가지 주요 교과목 예컨대, 히브리어, 수학, 그리고 영어와 같은 교과목에서는 이전 성적에 기초하여 분류·배치하는 것이다. 이때 성적별로 분류·배치된 학급은 여러 학급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다(교과별, 능력별 반 편성을 의미함).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학교별 분리라는 종래의 선별 대신에 학교 안에서 선별을 받아야 했다. 더욱이 성취도 수준에 기초한 계열구분은 또다시 아

동의 사회적 배경과 일치되어서 나타났으며, 동부 출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계열에 배치되었고, 서부 출신 학생들은 높은 계열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기 중등학교에서의 선별과정이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도 그러한 선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이용되었다.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결과는 기대되지 않은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체제는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를 앞질러 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통합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취약집단 아동과 일반 아동간에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 때에 교육체제의 다원주의를 선호하는 입장, 적합한 교육유형과 가치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권리에 대한 주장, 그리고 국가의 확실적인 지시에 대한 반대 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5) 1980년대의 교육개혁 :

다원화·지방분권화·지율화

이스라엘 교육체제를 일원화하는 과정은 국가 창립 시기에 교육의 중앙 집권화로 시작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중앙집권화는 1970년대의 교육개혁으로 최고 절정에 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교육체제 유형을 결정할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체제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여기서 교육체제의 지방분권화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독립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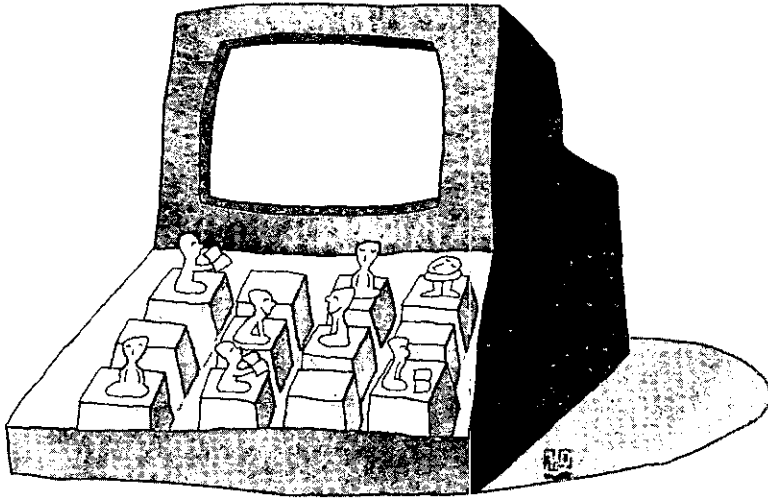
아동을 교육시키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은 이스라엘 교육개혁을 진보시켜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기 중등학교와 후기 중등학교로 확산된 학교 자율성 인식의 증대와 구현은 학교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제공하였다. 현재 상태의 학교로서는 다원화 사회에 특징적인 문화적 갈등의 문제, 학생들의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 감소, 아동교육 참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 증대 등을 대처하는데 곤란하였다. 즉, 학교가 소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상응하여 학교를 사회적, 교육적 체제로 전환하지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교육적 체제라는 것은 교직원 이 활동하는 학교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도출된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Reshef, 1984).

이스라엘이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을 면밀히 관찰해 볼 것 같으면 교육개혁을 통하여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교육체제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가지 딜레마 중 첫째, 교육격차와 통합에 관한 문제, 둘째, 문화적 다원주의를 연결짓는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들은 종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된 정책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문제들은 새로운 이주 현상과 같은 최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가 가져온 산물일 수도 있다고 보아지고 있다. (●)

첨단정보공학과 교육개혁



· 곽병선 · 허운나 · 박성익 · 남궁 장
· 임성택 · 신정언 · 정성무 · 정택희

첨단정보 사회와 교육

곽 병 선

21세기 정보 통신 사회 출현 전망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마케트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원 수석연구위원
- 「논리가 보인다」 「민주시민교육」의

특별기획

컴퓨터 정보 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컴퓨터의 다매체화이다. 매우 좁은 의미에서 다매체는 종래의 개인용 컴퓨터에 음성과 영상 처리를 가미시킨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다매체는 종래의 텔레비전, 전화, 개인용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시키는 다매체 매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적,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한 컴퓨터 스크린에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Digital)화 기술과 이를 원격·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수단의 개발에 힘입은 것이다.

이 다매체 정보 통신 사회는 긴 세월 후에나 나타날 그런 사회가 아니다. 21세기 초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즉, 사무실, 자동차,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이것들은 우리 생활에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다. 아마도 10년 안에 선진국들은 다매체 정보가 실용화되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도 정보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권의 정보화 사회가 실현되는 목표를 2015년으로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다매체 정보 통신 사회의 도래는 우리의 경제 및 일상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들일 것이 예견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매체 정보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 시설기반 확충과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이다.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초고속 정보망 구축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국제 정보망은 지역, 국기를 초월하여 각종 정보 교류를 가능케 하여 인적, 지리적 거리를 크게 좁혀 주고 있다.

정보 통신 공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 환경을 함께 바꾸어 놓을 것이다. 시장에 가지 않고서도 원하는 상품을 직접 고르는 것과 다름없이 가정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대금 결재를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할 수 있게 하며, 비행기·호텔 예약을 할 수 있다. 신문 배달을 받지 않고도 집에서 뉴스를 받아볼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관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원하는 영화를 주문하여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미래의 교육기관은 학습 정보를 데이터 기지화하고 교육 정보 서비스 기능을 중요한 역할로 담당할 것이며, 원격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다매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학습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백과사전을 포함한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마치 자기 서재에 있는 자료처럼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집에서 입수할 수 있게 된다. 학습 정보를 주고받는데 있어서, 학교가 다른 조직보다 유리하다는 특징은 사라질 상황이 예상된다. 이 말은 학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조와 교육 방법에 일대 전환이 예고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21세기 정보 통신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교과서와 칠판중심수업 방식을 탈피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학습자는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원하는 교사와 교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학습자가 찾아갈 수 있는 교사와 교실은 다양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와 통신으로 접촉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교실 수업에 화상(畫像)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으로서 제한점을 가진 살아 있는 교사 대신 가상(假想) 또는 화상 교사와 대면할 수 있다. 화상 교사는 실재하는 교사가 아니다. 컴퓨터에 내장된 가상적 교사이다. 즉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문제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고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형 교사인 것이다. 이 화상 교사는 학습자의 개별적 필요를 더 잘 보살필 수 있다. 예컨대 화상 교사는 학습자가 원하는 어느 시간에도 피곤함이 없이 나타나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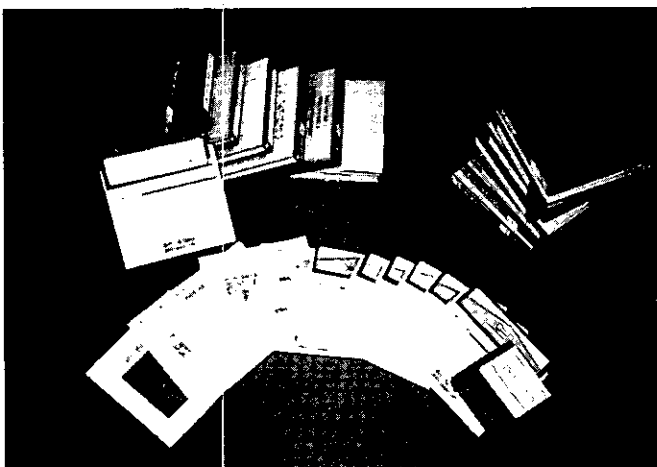
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다매체의 한 가지 특징은 가상(화상)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 가상 시나리오가 미래 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노동 집약적 교수활동을 탈피하여, 고도의 학습정보 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자, 개별·집단 학습 안내자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매체 정보사회는 산업구조를 바꾸고, 국가·지역·조직·개인간 관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정보와 통신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신문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출판사, 전화 회사, 우편국들의 기능이 컴퓨터 정보 통신 기술로 통합되고 재편성 될 것이다. 다매체 기능으로 통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 산업 구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변혁시키느냐에 미래 산업의 존망이 걸려 있다.

정보 통신 사회 출현의 의미

정보 통신망용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통신



수단 기기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화, 경량화, 저렴화, 이동성 용이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컴퓨터 정보통신 사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여러 학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산업 사회 시대에 제조업이 사회 발전과 변화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미래에서는 정보공학이 바로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공학이 중심 역할하는 생산 양식은 에너지 자원 대량소모·대량생산·대량소비 형식의 산업 사회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지식 산업화, 기업 규모의 초경량화, 고기술 제품의 저렴화, 관련 업종들간의 통합화, 전지구적인 정보망화 등이 가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 구조의 커다란 재편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미래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개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회사들일 가능성이 많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욕구는 아마도 정보 통신 욕구가 될 것이다. 이미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사의 연간 수익은 일본의 소니(Sony)와 혼다(Honda) 두 회사의 합계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 수는 일본의 두 회사 종업원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둘째, 정보 통신 사회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식 정보 사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국가 사회적으로 준비하여 성취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정보 통신 공학 분야 종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지식 정보 사회에 대비한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 사회 진입을 위한 국민의 이해력과 태도가 함께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사의 연간 수익은 일본의 소니(Sony)와 혼다(Honda) 두 회사의 합계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 수는 일본의 두 회사 종업원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

셋째, 정보 통신 공학은 거대 지구 경제를 창조하고, 세계를 지구촌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현상을 구성하는 국지적 요소들을 더욱 작은 단위로 그리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역설적 전망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거대 국가, 거대 기업이 힘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집단, 조직들에게서 나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미래 사회의 생존력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은 국가들이 출현하고 있고, 작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으며, 생산 조직의 단위가 개인으로까지 개별화되고 있다. 작은 단위에서 힘이 나온다.

넷째, 문명사적(文明史的)으로 정보 통신 공학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후기 산업 사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종래 산업사회 형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경험과학적 논리, 기계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회일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크게 이론이 없다. 정복과 피지배 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사고방식, 끝이 없는 상승으로만 생각하는 발전에 대한 개념,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과 같은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우리는 물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인류는 이제 그 자신의 생존을 보다 존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신적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달았다고 생각된다. 인간 자신의 운명적인 한계에 대한 순명, 인간과 자연은 생태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인간의 욕심에 대하여 응답한다는 것 등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변화 속에 음양(陰陽)의 조화를 내다 본 고대 동양의 정신과 같은 것은 새롭게 조명받고 번역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 통신 공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러한 기술이 중심 역할을 할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컴퓨터 다매체 기술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 통신과 관련된 지식·기술과 이를 응용하는 사회의 변화는 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컴퓨터 정보 공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 변화와 기계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주체적 안목의 형성이 어디까지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함의

이러한 다매체 정보 통신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의지와 관계없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대비해야 할 가장 분명한 대책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술 자립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술 자립의 위치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 기술 보유국의 문화 식민주의에 희생되기 쉽다. 특별히 국제 정보 통신망 구축으로 문화권·국가간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그들의 이익에 종사하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오늘날 G7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강국들은 소위 “자유 무역주의” 또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자국의 기득권을 최대한으로 수호하면서 후발국의 약진을 방해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정보 통신 공학 분야이다. 지적 소유권을 내세워 선진국들은 이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높은 부가 가치를 매겨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국제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통신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있다. 다매체 정보 통신 사회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찾아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래 다매체 정보 사회 최선진 대열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인력을 기르고, 우리가 스스로 배워 기술 자립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 자립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개발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력을 함께 증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갈 수록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데 국가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다매체의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컴퓨터 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선도적인 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민간 기업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선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정보 처리 능력의 배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고 이를 검색·추적할 수 있는 능력,

문자 정보 뿐만 아니라 영상·음성 정보를 처리·가공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정보 통신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기초 소양으로서 종래의 4R 이상의 다원적인 문해능력을 누구나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통신 기능을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민족적 특수성, 각 개인의 자아확립 등 개개 단위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성을 잃은 부분은 거대화 에 함몰되어 자기 상실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화·세계화·개방화는 자기 주장을 잃지 않은 개체들이 자기 위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독자성 확보의 중요성은 당면한 문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넷째, 경쟁과 협동의 조화를 지향하여야 하며,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해결은 상호 여러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어 교립적 해결로는 어렵다는 데 대한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쁨과 이쁨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구의 보전, 사회 경제 체제와 생태계의 순환 관계, 생태학적 윤리 등 신문명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에 교육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은 정신사적 전환을 준비하는 대비를 세워야 한다. 질적인 변화 즉, 정신 자세의 변화를 교육은 의식하기 시작해야 하며,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다양성에 익숙할 수 있는 마음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로 다가서기 시작한 컴퓨터 다매체 통신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에 대한 기술 자립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야 의미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첨단 정보 공학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우리는 다매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방식으로서, 독자성 있는 창의성, 협동작업 정신, 통합적 사고, 생태학적 사고방식 등 신문명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㉞

첨단 정보공학을 통한 교육 개혁 동향

허 운 나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박사)
- 현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연구소장
- 「정보공학과 교육」, 「산업교육
요구분석」의

정보공학의 급속한 발달로 첨단 정보공학 기기의 교육적 활용의 잠재적 혜택에 대한 인식도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첨단 정보공학은 이제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비싸고 희귀한 것이라는 개념에서 점차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공유가 가능한 비용 효과적이고 혼한 자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미 컴퓨터 산업과 전화 텔레커뮤니케이션 같은 통신산업, 그리고 TV, 영화같은 멀티미디어 내지 방송 산업들은 그 산업영역의 구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서로 통합·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홈 쇼핑 서비스이다.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홈 쇼핑은 컴퓨터 시스템의 연결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방적이던 기존의 TV방식의 차원을 넘어선 정보시대의 일상적인 서비스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노래방에서는 비디오·디스크와 컴퓨터의 연결로 소비자들은 수많은 영상 및 음성자료 중에서 즉각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아 낼 수 있다.

이와같이 첨단공학은 일상적인 활용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의 몇몇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 첨단공학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 첨단공학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점점해 보도록 한다.

1. 갤럭시 클래스룸(Galaxy Classroom)

배경: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는 재임시 국가 전략으로 “아메리카 2000”을 내걸고, “자녀들의 교육이야말로 미국이 누구이며, 미국이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공교육은, 높은 중퇴율, 낮은 학력 성취도 등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교육 개혁의 노력에 주력한 것이다. 그 노력 중의 하나로 휴즈 항공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는, 미래의 산업인력이 현재의 학교 교실에서 교육되어짐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89년 시작된 Galaxy Classroom(은하수 교실)프로젝트이다.

목적 및 참여학교: 이 프로젝트는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5학년에 이르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경험을 흥분되고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위성(satellites)과 텔레비전 및 FAX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위력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교사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력을 증강시킨다.

이 프로젝트의 1 단계에서 과학과 영어를 중점으로 하고 수학, 역사와 사회, 시각 및 행위예술, 보건 등

방법 및 전략: 어린 아동들에게 TV가 강력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힘을 교육에 전환시키고자, 최고의 학자, 교사, 스크립트 저자, 프로듀서,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들은 TV를 이용한 과학과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가지도록 하였다. 탁월한 내용과 탁월한 프로덕션이 결합되어 교육적으로 적합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첨단 위성공학을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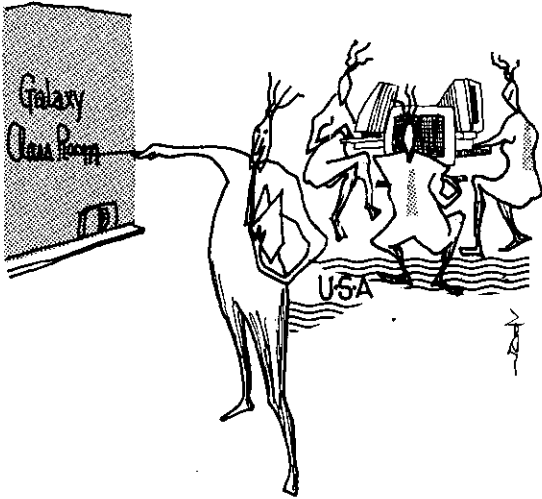
아동들은 프로그램을 본 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가령, 아팔래치 산맥의 한 백인 학생이 시카고의 흑인 학생에게 자신의 작문(감상문, 관련 논문)을 FAX로 보낼 수 있다. 한편 덴버시의 호기심이 많은 스페인계통 여학생은, 과학 프로그램에서의 자신의 실험결과를 멕시코 학교의 학생에게 보낸다. VAST(very small aperture terminal)라는 터미널들이 38개의 시범학교를 연결해서 인쇄자료는 쌍방향적으로, 비디오 자료는 일방적으로 보내 준다.

이와같이 상당히 첨단적이긴 하지만, FAX, TV, VCR 등을 이용해 비교적 저렴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부의 세계를 교실로 가져다 주고, 또한 교실을 외부로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교사들은 서로의 경험과 문제해결 및 새로운 수업 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새롭고 의미있는 교수·학습 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

학습자료: 갤러시 클래스룸 교사 지침서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교사 지침서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도 동시에 제공된다.

첫째, TV 프로그램은 교실과 일상생활을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탐구를 고무시킨다. TV 프로그램 속에는, 제시된 이슈에 대해 학생

을 2 단계로 보충할 계획이다. 미국 전역에 걸쳐 저소득층 국민학교 37개와 멕시코의 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 및 사회·경제·문화·언어를 대변하며 “가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교육적 잠재성이 발굴되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위험 부담을 가진 학생들이다.



자신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영문 및 스페인어로 된 잡지와 전문지 및 다른 인쇄매체로, 과학과 영어 외에 사회, 수학, 예술 등의 이해로 TV 경험을 심도있게 넓혀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는, 반응 게시판으로 학생들의 코멘트, 이야기, 질문, 연구결과 등을 신는다. 넷째는, 과학키트로 학생들이 TV시리즈와 관련된 실험을 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학습 활동 및 효과: 상호작용 공학(interactive technology)의 덕택으로, 교실간의 장벽을 허물어 세계를 의미있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진짜 사람들을 향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과학적 실험을 실시한 후, 관련된 개방적 질문들을 미국 내의 모든 Galaxy교실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2주간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정의(justice)”라는 주제를 학습한다고 하자. 우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와 학생들이 생각해야 할 이슈들을 제시한 15분짜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러면 전국의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연극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 협동하여 반응을 작성해서 팩스를 통해 반응 게시판이나, TV 프로덕션 회사로 보낸다. 그러면 다음 TV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 경험들을 통합해서 방송한다. 이런 활동 속에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높이고, 반대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논하면서 기초 능력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고, 좀더 의미있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운다. 1994년 중간에 기초 실험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2000년이 될 때까지 미국의 전역에 20,000개의 학교를 연결하여 천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글로벌 랩(Global Lab)과 키즈넷(KidsNet)

배경: 미국에서는 점차 많은 교사, 정책결정자, 정보공학자들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교육 개혁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앨고어 부통령은, “새로운 정보공학은 학습에서의 교사력을 증강시켜주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학교는 이제 스스로 상당히 높은 작업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보 초 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모든 학교의 교실이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자원을 학생과 교사에게 즉각적으로 날라다 줄 수 있는 학습 환경 창출을 교육 개혁의 중대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립 과학 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출자로 교육 네트워크의 현 상황을 발전시키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의 교육적 비용효과를 평가하고 교육개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위 “testbeds”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NSF이 보조하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대표적 교육개혁 프로젝트로 글로벌랩을 들 수 있다.

목적 및 참여학교: 글로벌랩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과학 연구실이라 할 수 있다. EcoNet이라는 텔레컨퍼런스 이용하여 학생들은 세계 속의 다른 학생 및 과학자들과 이야기하고, 메시지들을 다양한 컴퓨터 게시판에 보낼 수 있다.

1991년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1992년 정식으로 18개국 100여 개 중, 고등학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과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토픽은 다양한데, 가령 “실내의 공기의 질”이라든지 “대기중의 오존층의 두께 측정”과 같은 일상과 관계 깊은 환경 토픽이다.

방법 : 글로벌랩은 학생, 교사, 과학자가 팀이 된다. 학생과 교사는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E-mail(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과학자에 보내면 과학자들은 보내진 자료를 손쉽게 이루어지고 수많은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필요하면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유지되며, 자료 분석을 하고 싶은 모든이가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료 : 글로벌랩의 자료들은 미국 보스톤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룹인 TERC(Technical Education Research Center)에 의해 개발되는데, 자료로서 첫째,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도구, 기술적 정보, 그리고 모든 참여학교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CD-ROM과 전세계의 참여학교와 통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신용 소프트웨어 도구와 컨퍼런스 도구, 그리고 프로젝트 토픽관련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비교적 저렴한 키트가 포함된다. 오존의 양을 측정하는 오존측정기라든지, 공기층의 탄산가스양을 측정하는 에어펌프 등이 키트에 속한다.

학습 활동 및 효과 : 학생들은 학급 속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거나, 학교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물에서 납의 성분을 측정하거나, 오존층을 검사하는 등 교과서에서 나오는 학구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직결되고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상당히 고무되어 참여의식이 높다. 글로벌랩의 철학은, 기초적 탐구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지적 자유를 고양시키어 앞으로 고차원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을 통한 정보공학 이용 기술터득, 협동학습 기술 및 과학 데이터 베이스 마련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키즈넷 : 유사한 프로젝트로 국민학교 4~6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한 키즈넷(KidsNet)이 있는데 이는 세계 30 여개 나라에 1000 여개의 학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미국 NGS(National Geographic Society)가 출판을 맡고, 역시 TERC가 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전세계 참여학교 어린이와 서로를 알리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비 속의 산성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견하는 "산성비", 및 "움직이는 날씨", "우리의 물 속에는 무엇이 있나?", "너무 많은 쓰레기",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무엇이 들었나?", "태양 에너지" 등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실을 길러주고, 여러 나라 어린이와 E-mail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과학자와의 연결로 의문을 풀어나가며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세계관을 기르게 하는 교육 개혁 프로그램이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한양대 교육공학연구소(구 컴퓨터교육연구소)에서는 이미 1991년 키즈넷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5 개 학교와 소련의 5 개 학교를 E-mail로 연결하여 "산성비" 프로그램을 공동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참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혁신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다음 프로젝트로 국내 학교간 네트워킹 프로젝트로 "수질 오염"과 "쓰레기"에 관한 주제를 검토하고 있다.

3. 전자학습 보조 시스템

(ELSS : Electronic Learning Support System)

배경 : 미국의 교육개혁 관련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최근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로 "힘을 부여한다"는 뜻의 "임파우어먼트(empowerment)"를 들 수 있다. 가령, "학생 임파우어먼트" 또는 "교사 임파우어먼트"는 학생에게 "학습력"을, 교사에게는 "교수력"을 증강시켜 학생은 학습을 더 잘하고 교사는 가르치기를 더 잘하게 한다는 말이 되겠다. 학생들이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할 때 학생들의 학습력을 증강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PC

베이스의 전자학습보조시스템(ELSS)이 부상하고 있다.

방법 및 전략: IBM에서 개발한 대학생 대상의 '시(詩) 감상'을 위한 ELSS가 그 사례가 되겠다. 예컨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의 "오딧세이"를 기초로 쓴 영국 시인 테니슨의 "오딧세이"를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선, 학생들은 100 여년 이상된 古語(old English)로 된 詩의 원전을 컴퓨터에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시의 필체가 그대로 유지된 것일 수 있다. 텍스트를 읽다 보면 현대어와 다른 고어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시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은 컴퓨터 기능키 중에서 "단어" 또는 "사전"이라는 기능을 눌러 손쉽게 그 뜻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기본 단어들이 이해됐으면 정식 시의 감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시의 감상에서는 한 줄의 억양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따라, 또는 힘을 주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시의 묘미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그 시인이 살던 시 대상이나, 시인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시의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시대", "풍습" 또는 "작가" 관련 기능 키를 눌러서 주인공 오딧세이가 살던 그리스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영웅에 대한 당시의 관념이라든지, 영웅에 대한 당시의 관념이라든지, 신화 속에 담긴 배경이라든지 호머에 대한 그림과 문자와 언어가 통합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훨씬 후세대에 같은 주제의 소설을 쓴 영국작가 "제임스 조이스"까지도 연구하게 될지 모른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은 심화된다. 한편 학생들은 "오딧세이"라는 난해한 시에 대해 여러 영문학자들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비평" 또는 "관련 학자 해설" 기능의 키를 눌러서 생생한 화면을 통해 해석을 들을 수 있다.

학습효과: 이와같이 학생들은 도서관을 찾아가 옛 문헌을 들추거나, 신화관련 영화를 보러 가거나 유명 교수를 찾아가 강의를 듣거나 백과사전이나 고어사전을 따로 찾지 않아도 자기 책상앞에서 키를 누르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미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학습이 도중에 끊기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과 느낌이 정립될 것이다. 이런 전자 학습 보조 시스템은 비단 대학생 뿐 아니라 각종 학교 학생들에게 두루 강력한 "학생 임파우어먼트"의 도구가 될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몇개의 첨단 교육공학을 이용한 학교 개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FAX, 방송, 컴퓨터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 등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례이다. 이 사례들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비전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쌍방교류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학습의 의미를 소집단 학습, 참여학습, 재미있는 학습, 지시위주 학습, 고통스런 학습, 암기 학습의 탈피를 시사한다.

전자학습보조 시스템은 기존의 직선형 학습의 개념을 깨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과 경험을 적시에 즉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 속을 이리저리 항해하는 형태이다. 즉, 첨단 공학의 도움으로 교육 개혁의 목표인 학생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육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교육정책자들은, 첨단공학을 교육에 활용함에 있어, 미래와 교육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하여, 이에 적합하게 첨단공학을 도입함으로써만, 진정한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 실태 및 향후 대책

박 성 의

첨단정보공학-정보마인드-교육적 대응 간의 관련성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수업방법 탐구」, 「학습 부진아 교육」 외

한 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에서 어느 정도 “정보마인드”를 갖고 생활과 업무에 임하느냐에 비례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며 정보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 일본의 “신사회자본”, 싱가포르의 “Intelligent Island” 등은 모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정보화 정책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민들에게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산망을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며, 또한 교육기관에도 의욕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차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차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최근에 컴퓨터와 정보 통신의 기술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단편적인 증거로는 현재 국내에 보급된 PC가 약 4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컴퓨터의 보급율도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용층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이나 그래픽 쪽보다는 워드프로세서 등 일반사무용에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컴퓨터와 통신매체의 개발기술이 인간의 생활환경, 즉 인간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방식과 질적 수준이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장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첨단정보공학의 일반화 현상에 따라서 학교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될 학생들을 위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첨단정보공학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한 첨단정보공학

의 교육적 잠재력을 이용하여 교수-학습력을 신장시켜 보려는 노력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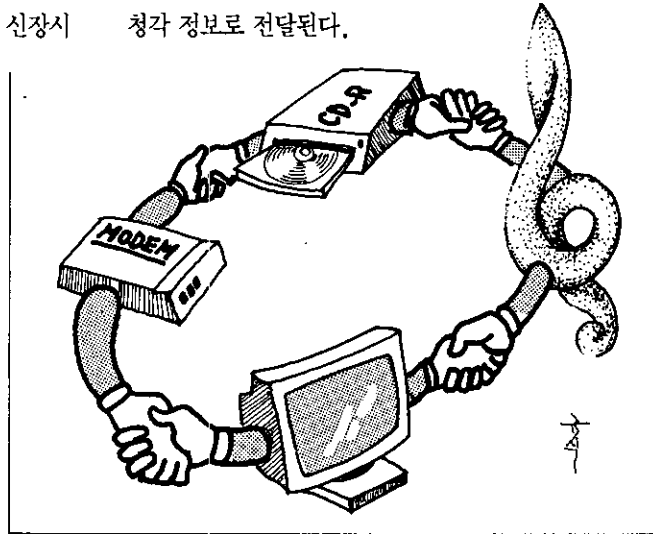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 컴퓨터를 근간으로 하는 첨단정보공학을 교육적으로 이용하거나 가르치려는데 대하여 학교교육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도 채 안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정보공학의 핵심 매체인 컴퓨터를 초·중등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한 1989년을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불과 5~6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 짧은 기간동안에 교육용 하드웨어의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의 개편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렇기는 해도, 교육실제에서는 여전히 기대하는 수준만큼 첨단정보공학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첨단정보공학의 유형들과 그들의 교육적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과제와 향후대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래형 첨단정보공학의 유형들

최근에 첨단정보공학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않으리만큼 흔히 들게 되는 용어가 되었다. 첨단정보공학이란 하루하루가 다르리만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과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의 기기 개발 및 기술개발에 힘입어 정보의 저장, 처리, 전달을 위한 혁신적 방법을 지칭한다. 첨단정보공학적 기술로는 고성능 컴퓨터, PC통신,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유형들이 모두 통합된 "MPC(멀티미디어 PC)"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는 시

청각 정보로 전달된다.



첨단정보공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은 컴퓨터와 통신매체들 및 양질의 소프트웨어들과 결합시켜서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저장, 처리, 전달할 수 있는 기능적 수준에 따라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학교교육에서 교육적 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반조성이 충분치 못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첨단정보공학의 유형들이 있다. 현재 이용가능한 첨단정보공학 매체로는 고성능 펜티엄 칩을 장착한 본격 MPC(멀티미디어 PC)가 있으며, 여기에 쓰일 각종 CD-ROM 타이틀과 대화형 CD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멀티미디어란 문자, 소리, 정지화상, 동화상 등 각각의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PC로는 삼보컴퓨터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DSP(디지털 신호처리)칩을 채용한 "뚝딱큐"를 비롯하여, 금성사의 "심포니",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직스테이션" 등이 있다. 그외에 차세대 정보매체인 전자신문이나 전자도서관도 개발되어 있고, 나아가서 뉴스 기업정보 등의 온라인 DB, 데이터베이스

첨단정보공학의 필요성과 활용효과는 그러한 매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매체를 활용할 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즉, 첨단정보공학의 대표적 산물인 멀티미디어, PC통신,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혹은 적극적인 활용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도 활용목적이 무엇이며 활용여건의 확립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만 할 것이다.

를 관리하는 시스템(DBMS), 문자인식 무늬모를 비롯한 DB무늬모 등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음성처리 장치(ARS)를 이용한 음성정보 서비스는 강의 안내를 비롯한 각종 학습정보를 24시간 들려줄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을 팩스로 받아보고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미래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CD-ROM이나 비디오 디스크와 컴퓨터에 수록된 영상, 문자, 음성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학생이 원하는 대로 단일 정보 또는 복합정보로 신속하게 검색 인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검색이나 인출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학교교실이나 가정 또는 그 외의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통신망의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교실 내의 퍼스널 컴퓨터들간에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교육용 LAN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일반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못된다. 최근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일부는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용해서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학습자료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볼 수 있는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베이스들은 단순히 교과내용과 직결되어 있는 학습문제들을 반복연습형이나 개별교수형으로 전달해 주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형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첨단정보공학의 중추적 매체인 컴퓨터의 보급 및 교육적 이용 실태

학교교육에서 첨단정보공학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교육용 컴퓨터를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1993년말 현재 컴퓨터 보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는 총 6,122개교 중 4,497개교에 93,048대를, 중학교는 총 2,539개교중 1,848개교에 53,604대를,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1,058개교중 649개교에 19,857대를, 실업계 고등학교는 677개교중 649개교에 20,802대를 보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학교수의 약 75%에 해당되는 학교에 약 20만대 가까이 보급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들도 사양이나 기능면에서 이미 사회에 보편화 되고 있는 컴퓨터에 비하면 낙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기관, 교사, 전문업체 등에서 개발·보급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현재 대략 2,500편 정도이며, 5,400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국민학교용은 3,200여 주제분, 중학교용은 1,700여 주제분, 고등학교용은 300여 주제분이 개발되었다. 교과영역별로는 국어과 지도용이 2,300여 주제분, 영어과 지도용이 4,200여 주제분, 수학과 지도용이 1,200여주제분, 과학과 지도용이 700여 주제분, 기타 300여 주제분이다. 이러한 5,400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교육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양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양질의 소프트웨어는 10%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양은 초·중등학교 12년간의 전체 수업시간인 대략 10,000 시간에 비추어 보면 불과 2% 정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를 20편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정도 밖에 안되며,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첨단정보공학의 활용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컴퓨터의 보급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미흡한 수준이며, 앞에서 언급한 멀티미디어, PC통신,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의 교육적 활용은 요원한 느낌마저 든다.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을 위한 발전과제 및 향후 대책

첨단정보공학의 필요성과 활용효과는 그러한 매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매체를 활용할 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즉, 첨단정보공학의 대표적 산물인 멀티미디어, PC통신,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혹은 적극적인 활용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도 활용목적이 무엇이며 활용여건의 확립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만 할 것이다.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보급,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교사의 연수, 행·재정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항상 제기되는 과제와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에 관한 인식의 전환, 첨단정보공학을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기반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적 이용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1) 지금까지 첨단정보공학과 교육방향에 관하여 학교교육에서는 컴퓨터 문맹탈피 교육과 컴퓨터 보조 교수-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문맹탈피 교육과 컴퓨

터 보조 교수-학습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공학의 매체들이 누구나 사용이 간편하도록 개발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일반화될 전망이다. 컴퓨터 자체에 관한 이해와 사용기능을 강조하는 컴퓨터 문맹탈피 교육은 그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교육용 컴퓨터의 도입 목적은 컴퓨터에 관한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적 활용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컴퓨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C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능력수준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저작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GREAT라는 저작도구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

최근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일부는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용해서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학습자료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볼 수 있는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베이스들은 단순히 교과내용과 직결되어 있는 학습문제들을 반복연습형이나 개별교수형으로 전달해 주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형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

둘째로 첨단정보공학을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기반조성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1) 첨단정보공학과 관련된 기기 및 기술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미래의 첨단정보공학을 경험시켜야 되는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의 사양이나 기능은 이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 비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육용 컴퓨터를 한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첨단정보공학 매체와 소프트웨어는 그 수명이 때로는 1~2년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다. 미래지향적인 첨단정보공학의 교육을 위하여는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 첨단정보공학 매체를 학교에서 융통성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의 컴퓨터 사양을 규정짓게 되면 결국 시대에 낙후된 컴퓨터를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들이 성능면에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러한 컴퓨터마저도 보급이 미처 안된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일수록 멀티미디어나 교실망 등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기의 사양을 결정하게 되면, 막상 보급이 되는 시기에는 그 사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를 이미 몇차례 경험한 바가 이다.

2) 학교 컴퓨터 시설, 설비의 네트워크화와 교육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점차 전국적인 교육망의 구성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며 이와 함께 교육용 DB의 구축은 절실히 요청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여건을 갖추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보급된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교육용 CAI 프로그램은 교과내용을 컴퓨터 화면으로 전달하는 전통적 CAI 접근을 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CD-ROM이나 DB와 연결되는 교육용 통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특수 목적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다양화, 고도화, 특성화되어야 한다. ㉞

학습환경은 컴퓨터 매개통신을 활용해야

남궁 장

우리의 교육적 현실



•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인컴사업본부
본부장

현대 사회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활용되는 정보 사회요, 미래를 쉽사리 예견할 수 없는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의 시대요, 국경이 따로없는 국제화·개방화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 사회에서와는 다른 대응 방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누적된 수많은 정보와 날마다 엄청나게 양산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전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인간상의 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여건은 어떤가? 교육 부문에서 담당할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회의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입시에 대비한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이 주된 교육활동이었고, 교실과 교사를 중심으로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학습환경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학습의 실현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 그리고 창조성의 개발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 문제 해결과 새로운 학습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정보 공학의 활용 노력들

정보 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고 있는 첨단 정보 공학 매체들은 우리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말

미디어로 대표되는 공학 매체들은 종전과는 달리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학적 매체를 활용한 교수방법의 혁신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컴퓨터의 활용이었다.

컴퓨터의 활용은 그 이전에 활용된 다른 공학 매체들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컴퓨터의 상호작용성이라는 특성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종래의 학습 형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 주었다. 컴퓨터는 상호 작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교사가 중심이 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학습 형태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학습하도록 설계 가능한 새로운 학습 형태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창기의 많은 연구들이 개별 학습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학습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많은 수업 모형이 개발되었다.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교수체계 및 설계 모형의 개발은 수업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모형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습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습득하기만 하면 학습성과가 극대화 된다는 경직된 논리를 폈다. 한편 공학 매체의 활용도 다양하지 못해 대량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만을 활용한 학습 환경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음성과 각종 화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교육용 S/W가 등장하고 있어 그 생각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막대한 정보 저장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공학

매체가 통합적으로 활용된 멀티미디어는 학습자의 이해 증진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구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학습자에게 많은 경비의 지출을 요구하며, 학교에 도입하는 데도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당장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학습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첨단 공학 장비라고해서 무턱대고 교육에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요청과 우리의 주변 여건, 그리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할 때 정보 공학 매체의 성공적인 활용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이다.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의 특성

컴퓨터 매개 통신(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학습은 기존의 전화선과 모뎀을 통해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이 교육에 도입되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은 현교육의 취약점인 창조성의 개발, 문제해결능력의 개발, 개별학습의 실현, 결여된 현장학습의 실현, 교과서 위주의 근시안적 학습으로부터의 탈피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서도 학교 교실망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로 신속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한 컴퓨터 매개 통신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빠르게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교환의 대상이 폭넓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 교환 및 활용이 가능하다. 정보 교류의 범위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전문가 등 매우 다양하다.

두번째 특징은 협동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은 기존의 학습형태와 마찬가지로 개별학습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수많은 단말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협동학습이 가능하다.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들이 조사하고 관찰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주어진 과제나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집단학습은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새로운 사고 방식이나 새로운 전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방법을 바꾸어 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컴퓨터 매개 통신의 세번째 특징은 문제 해결력의 신장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습득된 많은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거나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문제와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배운 지식의 현실상황에로의 전이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네번째 특징은 기능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은 선생님에게 보이기 위한 학습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학습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글을 쓰더라도 실제적인 독자를 생각하며 쓰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다섯째 특징은 외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컴퓨터 통신망의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서 국제 교류가 빈번해진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외국어를 학교 교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높다. 또한 교과서나 교실에서 접하는 비실용적인 외국어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방식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므로 유창성의 신장이 채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 시대에 직면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다른 매체의 활용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컴퓨터 매개 통신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여러 사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공간에서 동시에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시설 구축비용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의 공중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용자가 방대하고 유익한 정보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또한 경제적이다.

인력의 개발 노력들

우리 나라 최초의 컴퓨터 통신 학습의 시대를 열었던 당시(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는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1990년에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했을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의 특별한 연구나 그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야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프로그램도 비교적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인식되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이 분야의 육성이 포함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당사에서는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컴(INCOM) 서비스를 1994년 2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학습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시하고자 자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인컴은 각종 학습정보는 물론 진학정보와 상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놓고 공중전화망을 통해 각 가정의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체가 아니다.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를 통해 이용자간의 연결이 가능하여 컴퓨터 매개 통신 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용대상은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도 포함된다. 또한 제공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하다.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 개발된 기본학습부터 통합 교과의 성격을 띤 특별 흥미 프로그램까지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인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화선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교육의 지역적 차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값싸게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학습과 진학 및 진로 정보까지 망라된 종합교육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

정보 공학의 발전은 컴퓨터 통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와 전화선 그리고 모뎀을 활용해서 문자 중심의 정보만 제공하던 종래의 방식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속 전송이 가능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이외의 주변 기기들과의 통합이 가능해 지고 있다. CD-ROM과의

연계는 물론 음향과 영상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학습형태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컴에서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학습 내용 및 형태

인컴에서 앞으로 개발할 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워 질 수 있다. 하나는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이 그것이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진도에 맞춰 단일 교과 내용만을 제공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합 교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가급적인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학습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특정 교과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어 학습자는 각 단계와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 내용

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신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학생들끼리 의견교환은 물론 전문가나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가능하게 할 생각이다. 이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 대화의 장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켜 혼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흥미가 결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가정에서의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인컴에서는 교육에 흥미 요소가 가미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초보적이긴 하지만 '특별흥미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학습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아서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들 특별흥미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개발된 것(표1참조)보다 훨씬 포괄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많은 양이 개발될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Edutainment 프로그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dutainment란 교육(Education)의 Edu와 흥미(Entertainment)의 -tainment의 합성어다. 이 프로그램은 비디오 게임과 같이 정복해야 할 과정들이 있고, 찾아야 할 보물들이 있으며, 무찔러야 할 악당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컴퓨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공부하며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

인컴에서 교육에 흥미 요소가 가미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초보적이긴 하지만 '특별흥미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학습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아서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표 1〉 인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흥미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주요 구성 내용
·속담 마을을 찾아서	○ 실생활에서 사용할 속담에 대한 학습
·80일간의 세계 일주	○ 세계 각국의 풍물과 특성을 여행을 통해 학습
·열려라 과학 나라	○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 탐구
·예비생 영어	○ 영어의 기초적 알파벳의 학습
·영어 단어 게임	○ 중·고등학교의 영어 단어에 대한 학습
·심리 테스트	○ 간단하게 성격이나 취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한자생어	○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한자 생어에 대한 학습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만을 활용한 학습 환경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음성과 각종 화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교육용 S/W가 등장하고 있어 그 생각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제공 방법 (첨단 정보 공학의 활용)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매체의 활용이 요청된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학습형태는 이러한 기술적 지원하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우선 문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방식에서 복합정보 제공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문자외에 음성이나 음향, 영상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컴 화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로 1985년도부터는 문자와 음성이나 음악, 그리고 영상도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컴에서 시도하고 있는 제공 방법은 기존의 down-load 방식에서 탈피하여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체제의 개발이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전자 영어 단어 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학습에 사용되는 각종 특수 문자들의 지원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던 down-load 방식의 불편함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린터와의 연계로 필요한 자료나 학습 결과를 인쇄하여 다음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외국의 유명 교육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이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회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컴퓨터 통신을 통한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의 학습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과의 대화나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㉞

컴퓨터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 삼위일치되어야

임 성 택

들어가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산학과 졸업
- 이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 공학과 (박사과정)
- 수원 세곡국민학교 교사
- 「연산 지도용 CAI 코스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의

미래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본다. 현재 국, 중, 고의 대부분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된 것도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라 본다.

학교에 보급되는 컴퓨터가 8비트에서 16비트로 바뀌면서 그 활용도가 많아지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처음 보급 때의 크나큰 기대는 각종 전산화 작업에 따른 컴퓨터 교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컴퓨터 지도는 소홀하게 되었고, 모든 학교에 보급되기도 전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첨단 기술은 보급된 컴퓨터를 몇 년도 못되어 고물 아닌 고물(?)로 전락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컴퓨터만을 탓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막대한 예산과 노력은 물론 다시 컴퓨터를 보급한다 해도 이같은 과정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보급된 컴퓨터를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본교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교는 교육부 지정 컴퓨터교육 시범학교를 2년간(1992. 3.1~1994. 2. 28)에 걸쳐 "CAI 프로그램 투입모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운영하였으며 이의 결과가 다른 학교의 컴퓨터실 운영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컴퓨터 문맹 탈피를 위한 교육

컴퓨터 문맹 탈피는 국민학교 수준에서 컴퓨터를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내용으로 하였다.

컴퓨터 시간은 4, 5, 6학년 전부를 대상으로 주 1시간을 배정하였으며, 학생들이 좋아하고 XT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표1]과 같이 선정하여 지도하였다.

교육용 소프트웨어(CAI) 활용

[표1] 학년별 활용 프로그램

대상학년	내용	활용 소프트웨어	비고
4, 5학년	자판연습	한메타자 창개구리	하늘소 공개소프트웨어
	바이러스	V3, V3RES	공개소프트웨어
	디스켓 관련	MS-DOS	운영체제
4학년	그래픽	하늘	공개소프트웨어
5학년	일기쓰기	일기장 프로그램	공개소프트웨어
6학년	워드프로세서	아래한글	한글과 컴퓨터

특별기획

MS-DOS 내용은 컴퓨터를 다룰 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였고, 자판연습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자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함으로써 학교 외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주 겪는 문제점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학년별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기 쉽고, 학생들이 좋아하여 4학년에서 지도하였고, 5학년은 일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기쓰기를 함으로써 컴퓨터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 프린터가 없는 학생의 출력은 일 주일에 한번 정도 학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도록 하였다.

6학년의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컴퓨터와 가까워지고 생활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가 컴퓨터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차모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여, 30시간 정도의 워드프로세서 연수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학교교육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교육용 프로그램(CAI)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가 XT컴퓨터이며, 모니터가 흑백인 관계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활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개발된 교육용소프트웨어는 교육용컴퓨터에 맞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교육용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시간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이용 시간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EDI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30장씩 복사하여 학년별, 과목별로 배치하여 농음으로써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용지도안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수업에 활용한 결과 학생들은 C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시간을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KEDI에서 개발한 CAI프로그램 편수는 [표2]와 같다.

[표2] KEDI 개발 과목별 CAI 프로그램 편수

과목	학년	편수	과목	학년	편수
산수	4	15	자연	4	11
	5	13		5	12
	6	15		6	12
실과	4	6	국어	4-6	5
	5	7		4	6
	6	6		5	6
	4-6	1		6	8
특별활동	4-6	22	계		145

(*94. 9. 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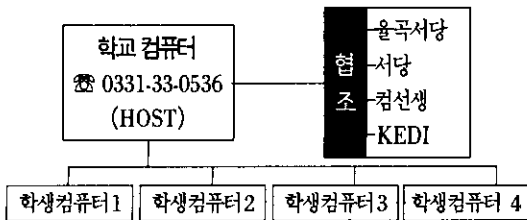


컴퓨터 통신 학습

학교와 가정간의 컴퓨터 통신망(BBS)를 설치하고 학생이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 컴퓨터(HOST)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곡 통신망이라 이름 지워진 이 통신망은 학교컴퓨터에 자료를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 컴퓨터나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장하여 놓으면(업로드) 가정의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학생 서로간에 편지를 주고 받거나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받아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학교소식이나 지역사회 소식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곡 통신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 컴퓨터의 자료 내용(통신망의 내용)으로는 4, 5, 6학년 CAI프로그램 자료실에는 울곡서당, 서당, 컴선생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나 학교 소식을 볼 수 있는 게시판, 학생 서로간의 편지를 주고 받거나 퀴즈, 속담 등을 알아 맞추는 쉬어가는 마당, 많은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공개자료실, 기타 컴퓨터 교육을 위한 장소 등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컴퓨터 통신은 학생들이 관심이 매우 많았으며, 가정에서 공부를 하는 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학부모들의 호평도 좋았다. 그러나 통신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컴퓨터실에 전용 전화선이 있어야 하고 통신시설을 갖춘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386DX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200메가를 설치하였으나 이보다 더 상위 기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전화선을 1회선으로 하였으나 1회선으로는 100여명의 학생만 가입하여도 통신시 통화중이 잦아 통신을 시작한 후, 학교 형편에 따라 회선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겠으며, 세곡 통신망의 사양은 [표3]과 같다.

[표3] 세곡 통신망 사양

구분	컴퓨터	HDD	모니터	운영체제	운영 프로그램	기타
HOST (학교 컴퓨터)	386DX	200메가	컬러	MS DOS	울곡서당	완성형 한글 전화-I 회선 모뎀
학생용컴퓨터 (가정용 컴퓨터)	386이상	40메가 이상	컬러	MS DOS	이야기	모뎀 전화선

컴퓨터 통신 교육은 정보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면서도 시설의 부족과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부족, 업무의 과중으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마다 학교 실정과 지역사회에 알맞는 내용으로 운용한다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좋은 교육방법이라 하겠다.

본교는 율곡서당에서 호스트 프로그램 및 CAI 프로그램을 컴선생 및 서당에서 4, 5, 6학년용 CAI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주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학교 컴퓨터에 많은 자료를 넣어 놓고 학교 정보나 지역사회정보를 수시로 바꾸어 넣는 교사의 업무량이다.

컴퓨터를 쓰지 않는 시간에 자료를 정리하고, 올려 놓는 일은 컴퓨터 교사의 일을 더 많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지역끼리 하나의 호스트 컴퓨터를 여러 학교가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맺으며

컴퓨터 교육은 학생, 교사, 가정 및 행정의 역할이 모두 필요한 교육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교사는 현재 많은 연수를 통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가정은 컴퓨터의 가격하락과 매스컴의 위력으로 많은 가정이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 또한 아직 부족하나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컴퓨터는 다른 교육과 달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시설면은 물론 유지 보수비 또한 다른 교육보다 더 필요로 한다.

미래의 정보화 사회 및 국제화 사회에 앞장 서기 위해서는 학교 컴퓨터 교육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재정적 지원 못지

않게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교가 추진한 컴퓨터 교육을 위한 방향은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계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 오늘도 묵묵히 노력하는 교사의 밑바침이 되었으면 한다. ☺

CAI 프로그램에 매혹된 학생들

교실망(LAN)을 통한 CAI 활용

신 정 언



-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졸업
- 서울 석촌 국민학교 연구주임

정보화의 물결이 일선 학교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수년이 흘렀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각에서는 컴퓨터 교육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에서 앞장서서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개정된 국민학교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한국통신에서 전 국민학교에 컴퓨터 30대 보급사업이 끝나면 현재보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는 길은 우수한 컴퓨터의 기능이 교육의 일선에 활용되어 학생들에게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수업의 밀도를 높이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자료의 개발과 어린이 생활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 실태를 소개하고 3년간 LAN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했던 점 등 우리 학교의 컴퓨터 교육 활용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실을 운영하려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 LAN설치 이전의 교육

1990년도 석촌국민학교는 당시 학교장님이신 이규형 교장님의 뜻에 의하여 다른학교에서는 30대도 설치하기 어려운 컴퓨터를 60대 확보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인 CAI를 시도하였으나, 담당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기능 부족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별활동반을 3개 반 조직하여 BASIC의 기초이론과 DOS기초이론을 수석자 부담으로 하여 지도하는 형태의 컴퓨터 교육으로 일관하였다.

CAI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은 프로그램별로 60매씩 복사하여 DOS디스켓으로 부팅한후 CAI디스켓을 넣어 수업을 전개하였으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복사한 학습디스켓의 깨짐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컴퓨터는 하나의 보이기 위한 장식물로 남게 되었다. 보관되어 있던 모든 디스켓은 'DARKAVENGER' 등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그야말로 바이러스의 산실이었다.

● LAN 설치후 1단계

1991학년도에 본교에 부임한 필자는 당시 과학주임의 보직을 받게 되고 교육개발원의 협력교로 본교가 지정되어 LAN을 시설하게 되었으며 '썬텍'이란 회사에서 실시하는 LAN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LAN시설을 하게 되었고 컴퓨터실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컴퓨터현황

교사용	학생용	프린터	비 고
1대	60대	1대	

구 분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비 고
교사용	AT(286)	4메가	40메가	
학생용	xt	540Kb	0	

컴퓨터실 운영을 위하여 교과점담교사를 한 분을 선정하여 5, 6학년 각 학급당 주당 1시간을 배당하여 CAI프로그램 중심의 컴퓨터 학습을 시도하였다. 이에 5,6학년 담임의 수업경감은 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었다.

컴퓨터시간 배당표

요일 차시	월	화	수	목	금	토
1						
2			6-5	5-1	5-5	5-7
3		6-7	6-6	5-3	5-6	5-8
4	6-2	6-8	6-1	5-2	5-9	
5	6-3	6-9		5-4	5-10	
6	6-4	6-10				

● LAN 설치후 2단계

93학년도에는 교과전담교사가 맡아서 하던 컴퓨터 실에서의 CAI를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 계획이 수정되자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한다는 원칙은 훌륭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설의 유지였다. 예상한대로 적중하였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였다.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것이 역시 키보드의 손상과 드라이브의 이상으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우전자의 A/S와 수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완벽하게 수리했다. 다음으로 5, 6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LAN시설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수였는데 이 문제는 교육개발원의 정성무 연구원님의 BATCH화일의 효율적인 작성으로 일반 담임교사들도 별 무리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작동법

- ① 부팅디스켓을 넣고 손잡이를 잠근다.
- ② 전원을 켜다.
- ③ "ENTER YOUR LOGINNAME"가 출력되면 좌석번호를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 ④ "f./CAI"가 출력되면 CD한칸 띄고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번호"를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 ⑤ CAI를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 ⑥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⑦ 전원을 끈다.

컴퓨터실 수칙

- ① 줄 서서 조용히 들어 온다.
- ② 자기 출석번호가 붙은 자리에 앉는다.
- ③ 디스켓은 라벨이 있는 자리를 잡는다.
- ④ 컴퓨터실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
- ⑤ 수업 후에는 꼭 뒷정리를 한다.
- ⑥ 부팅디스켓은 빼지 않는다.

CAI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스탠드 이론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LAN 상에서는 잘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개발원의 소프트웨어 수정이 완료되어 LAN 용으로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학년별 단원 고유번호를 설정하여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HD에 CAI디렉토리를 만들고 하위 디렉토리에 4-1-1과 같이 디렉토리명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학년	과목	내 용	자료번호
4	산수	자연수의 덧셈	4-1-1
		자연수의 뺄셈	4-1-2
		자연수의 곱셈	4-1-3
		자연수의 나눗셈	4-1-4
		삼각형의 넓이	4-1-5
	자연	빛의 직진	4-1-6
		전기회로	4-1-7
		열과 온도	4-1-8
	실과	식품 찾기	4-1-9

첫째 CAI디스켓을 학생 수만큼 복사하여 사용하던 것을 교사용 HD에 저장하기만 하면 학생들은 부팅 디스켓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다.

둘째 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부팅디스켓을 드라이브에 고정시켜 사용하면 바이러스의 침입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하드에 CAI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에 학년, 학기 및 단원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면 쉽게 사용할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넷째 학생에 따라 그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시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LAN의 기능 중에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가동하면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교사들은 컴퓨터에 대한 공포심이라고나 할까? 하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운 LAN 시설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석촌국민학교 선생님께 그 대답을 들어보면 명확해진다.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이 설정되어 있어서 한번만 설명을 들으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교사도 그날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

● LAN의 효율적 사용

첫째 어느 TV방송인가? 국민학교에 보급되는 XT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램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아래한글 2.1 버전과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민학교에서 주로 사용해야 하는 교육용 CAI 프로그램이나 ‘BASIC’, ‘하나’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한글 1.5 버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일반회사나 대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XT 나 286 컴퓨터도 LAN 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LAN 시설은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남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기증받아 학교수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한국통신에서 각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길에 LAN 까지 보급해줘야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286 이하 기종 컴퓨터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필자가 담당한 학급은 3학년이어서 특별시간 1 시간을 할애하여 키보드훈련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글 1.5 버전의 기초를 가르칠 수 있었고 학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넷째 교직원 컴퓨터 연수에 LAN이 되어 있는 컴퓨터실에서 DOS와 워드프러세서의 연수를 주 별로 3시간씩 두 달간 실시하여 전 교사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을 처리하게 되었다. 전 교사가 동시에 한 컴퓨터에 1명씩 앉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나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는 LAN의 우수한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학부모 컴퓨터 연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는 젊은 학부모들간에도 대단하여 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부형이 많기에 컴퓨터 교실을 개강하여 주 2회 학부모 컴퓨터 교육에 일익을 쉽게 담당할 수 있었다. 학부모 컴퓨터 교육 내용은 주로 아래 한글 1.53을 다루었다. 학부모님들의 열의도 꾸준하였다.

● LAN설치시 유의할 사항

첫째 교육개발원에 문의하여 각종 LAN의 기능과 가격에 대한 자문을 얻을 것

둘째 LAN 설치시 케이블 설치에 가장 관심을 갖고 먼저 설치한 학교에 자문을 받을 것, 잘못 설치하면 선의 접촉이 나빠지면 수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

이다. 필자는 선 처리가 잘못되어 접촉 불량된 학생용 컴퓨터를 찾느라고 하루를 소비한 적도 있다.

셋째 LAN 시설을 관리하는 supervisor 라고 불리는 업무를 담당할 교사가 있어야 하며, 이 담당자는 컴퓨터의 DOS를 이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LAN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컴퓨터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컴퓨터 시간을 고대하였으며 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CAI 프로그램에 매혹되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야! 이거야말로 성공이다. 이렇게 훌륭한 수업자료가 있을 수 있을까? 교장 선생님과 필자와 수업담당 선생님은 환호를 올렸다.

학교에서는 컴퓨터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마이크, 화이트보드, MODEM, 냉난방 시설 등을 최우선으로 설치하여 주었다.

그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강습받던 고생은 그만큼 큰 희열로 바뀌었다. 다른 학교도 우리학교와 같이 CAI 프로그램을 LAN을 통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일선 학교에 빨리 확산되어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

성공적인 컴퓨터 교육을 위한 방안

정 성 무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 본원 선임연구원
- 「교육용 컴퓨터 및 교실망 표준사양 연구」의

서 론

세계 각국은 정보 산업 부문에서 경쟁의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제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보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화, 고생산성화, 고품질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보 소양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컴퓨터 교육, 정보인력 양성, 교육 방법의 혁신을 통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수-학습 정보화, 교육행정 정보화 등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전 국민의 컴퓨터 소양의 신장을 위하여 학교 컴퓨터 교육을 법정부적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컴퓨터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진정한 교육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하기 위한 매우 초보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학교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부적인 노력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추진의 주체인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관련 연구기관에 이의 효율적인 추진에 요구되는 관련 조직과 인원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여 관계자들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기에서는 컴퓨터 교육 추진 조직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컴퓨터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의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 외국의 컴퓨터 추진 조직

세계 선진 각국들은 오래 전부터 컴퓨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컴퓨터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미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학교에 정보 공학 도입 사업을 국가의 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DFF)의 하부에 ITIS UNIT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방 교육 당국에서는 정보 공학 전담 요원과 정보 공학 전담 순회 교사를 배치하고, 각 학교에는 컴퓨터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고용·교육·훈련부 및 연방 교육과정 개발 센터의 하부 조직으로 국립 소프트웨어 조정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종교 교육부 하부 조직으로 정부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교육부에 컴퓨터교육개발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능과 명칭을 갖는 컴퓨터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시아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문부성의 하부 조직으로 학습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문부성과 통상성의 지원을 받는 재단법인으로 컴퓨터교육개발 센터(CEC)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컴퓨터 센터는 교육부 및 교육부 협력기관 전산화, 학교 및 대학의 전산화, 통신망 구축, 행정 전산화, 그리고 컴퓨터 교육 관련 계획, 자료 개발, 인력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부 내에 컴퓨터 서비스국을 설치하여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주요나라의 컴퓨터 교육

추진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추진 조직을 확보하여 컴퓨터 교육의 전반적인 계획, 도입, 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추진 조직과 문제점

2000년대 정보화 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 추진 조직은 기존의 교육 추진 체계 안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정도로 배려(?)되어 있는데 이들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를 통한 교육용 컴퓨터의 구매 및 보급, 교육용 컴퓨터의 유지 보수 관련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셋째, 컴퓨터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컴퓨터 연수,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PC 경진대회, 컴퓨터 교육 담당자의 국외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컴퓨터 교육의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컴퓨터 교육 관련 연구 사업의 추진 및 컴퓨터 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 조직으로 교육부의 과학기술과 내에 전담전문직 1명, 시도 교육청에는 과학기술계 내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실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청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전문직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현장에는 담당교사 수준에서 컴퓨터 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으

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컴퓨터교육연구센터에 관련 연구원 16명, 시·도교육청의 과학교육원 및 교육연구원의 지도부 등에 담당인력이 2~3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교육지원 추진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의 컴퓨터 교육 전담 조직 취약성

컴퓨터 교육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의 증진과 더불어 범정부적인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교육부의 처리 대상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컴퓨터 교육 추진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업무이다. 이는 연평균 10여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고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망조정 위원회, 체신부, 한국통신, 공진청, 한국전산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의 대외적인 조정과 협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3000여 개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평균 100여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업무와 더불어 컴퓨

터 담당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연평균 6개교의 컴퓨터 교육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PC 경진대회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교육 장학 지도와 더불어 연평균 10여개의 컴퓨터 교육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무 추진 결과에 대한 각종 통계 처리 및 보고와 함께 국회 및 관련기관, 청와대, 언론사 등에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등의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담당 전문직으로 1명만을 배정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부 조직으로는 이상과 같은 컴퓨터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시·도 교육청의 컴퓨터 교육 장학 업무의 과중 문제

시·도 교육청의 컴퓨터 교육 담당 전문직은 교육부의 컴퓨터 교육관련 업무 중에서 시·도 교육청 관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현장교육의 출장 및 장학 지도와 함께 과학 기술 및 실업계 고교 등의 장학 업무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 컴퓨터 교육 담당자의 장학 업무 과중에 따라 본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당 업무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지역 교육청의 컴퓨터 전담 전문직 부재

지역 교육청의 컴퓨터 교육 추진 조직은 더욱 열악하여 컴퓨터 담당 전문직이 과학 또는 실업 장학의 겸임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다소 뒤떨어져 있고 업무의 과대에 따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컴퓨터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 업무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서울, 대전, 충북 등의 지역 교육청(22개)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교육 관련 전공자가 조사 대상자의 약 33%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관련 경력으로 2년 미만인 자들이 전체의 60%를 초과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교육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학교에 전파하는 정보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4) 학교의 컴퓨터 교육 담당 기피 현상

컴퓨터 교육의 실천의 주체인 학교 컴퓨터 교육 담당 교사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컴퓨터실을 관리하고 이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사 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더불어 학교 성적 처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까지 안게 된다. 또한 학교의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PC 경진 대회 출전 학생을 지도하는 것 등과 같이 일반 교사들에게는 부담되지 않는 일들이 본업 이외에도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권한 및 제도적인 지원과 보상이 없어 컴퓨터 담당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 컴퓨터 교육 지원 기관의 조직 미약

현재 학교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 교육개발원과 시·도 과학교육원 및 교육연구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 사양 제정 및 시험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실무적인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 연수를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기관별로 연간 수백 수천명의 교원 연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나 PC 경진대회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새로운 매체의 교육적 활용과 수업 방법의 개선 연구와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 시범 학교의 운영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관들은 그 설립 목적의 다양성과 운영의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대적 요구에 따른 관련 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화 실천 정책으로 인하여 제정 규모나 인력의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소속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컴퓨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강화 방안

첨단 정보공학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중요한 혁신 사업으로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지도력의 확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 컴퓨터 보급 및 국가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컴퓨터 교육을 위하여 중앙 부처 및 지방 교육청 등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도 컴퓨터 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관련 업무의 확대에 반하여 축소되고 추진 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다. 특히 컴퓨터 교육은 단순히 교과 내용의 변화나, 새로운 교과의 추가로서 완수될 수는 없으며,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

한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교육 담당 조직을 현재의 수준보다 강화하고 관련 조직과의 연계성을 보다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 내에 컴퓨터 교육을 전담할 가칭 '컴퓨터 교육과'를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에 설치하고 컴퓨터 교육과에는 소양 교육 담당과 실업 교육 담당 그리고 교육 정보화 업무 담당관을 두도록 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교육 관련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앙 조직의 강화와 함께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전담 조직 및 인력도 강화시켜야 하는데, 시·도 교육청에는 가칭 '컴퓨터 교육계'를 설치하여, 교육부의 컴퓨터 교육과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도록 하고, 지역 교육청에는 1인 이상의 컴퓨터 교육 전담 전문직을 배치하되 컴퓨터 교육 전공자나, 컴퓨터 교육 경력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들로 충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학교에서는 컴퓨터 주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교를 배치하여 컴퓨터 주임은 컴퓨터 교육, 컴퓨터실 운영·관리, 학교 업무 전산화 등을 보다 공식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아울러 컴퓨터 조교를 대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컴퓨터 교육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내의 관련 인력의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양적, 질적인 수준은 다른 무엇보다도 급속히 팽창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업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의 구성 또한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축적한 자들로 선발하여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관련 제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컴퓨터 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컴퓨터 교육은 첨단 의 새로운 분야로서, 동시에 변화 발전 속도가 여타 다른 교과보다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컴퓨터 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체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학교 전반의 정보 교육 및 교육 정보화 역량을 제고 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부서 수준으로 설치된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 기관 수준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컴퓨터 교육 관련 기술, 자료, 정보를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 별로 설치된 컴퓨터 교육 관련 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함과 동시에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연계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지도·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보다 높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㉞

첨단정보교육을 위한 KEDI의 노력

정택희



- 공주사대 교육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본원 컴퓨터교육연구부장
- 「학교 교육과 컴퓨터」
「정보화사회 대응 교육과정
개선연구」의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가 추진한 활동을 그 배경과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학교 컴퓨터 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역할과 활동은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초창기는 컴퓨터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시작하고 연구 조직을 확립하여 가는 시기로서 대체로 1983년부터 1988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과도기는 연구과제와 조직이 확대되는 시기로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도약기는 본격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시기로서 1992년 이후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I. 활동의 개요

1. 초창기의 활동

1983년도의 초·중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컴퓨터 교육과정 연구 CAI 모형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실험 연구, 컴퓨터에 대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때의 가장 중요한 연구는 교육개혁심의회 요청에 따라 수행된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 연구로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 개혁심의회가 정보화 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초기에 컴퓨터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육과정연구부(당시)와 교육자료부의 교육정보연구실(당시)에서 수행되다가 1986 년도에 교육과정연구부 컴퓨터 관련 연구 인력을 교육정보연구실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교육정보연구실을 컴퓨터교육연구실로 개칭하였다. 그러다가 교육부가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전문적 조언과 협력 및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개발원에 부서 수준의 부서인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고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1988년 2월 1일부로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부서 수준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신설된 컴퓨터 교육연구센터는 두 개의 연구실로 시작하였다.

2. 과도기의 활동

컴퓨터교육연구센터는 교육부와 연구재원의 마련에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본 센터는 구체적인 연구·개발물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교육부에 제공하였고 주요 정책 및 실행 계획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도 공동체로서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교육부도 연구재원의 조달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기간의 괄목할 만한 연구는 교육부의 위촉으로 시작된 대규모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발전될 전망이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통신공사로부터 개발비가 지원되어 수행된 학습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근원의 다양화나 전산 전문 인력과 교육연구 전문 인력간의 협력 연구 개발의 가능성과 효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와 통신 양측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사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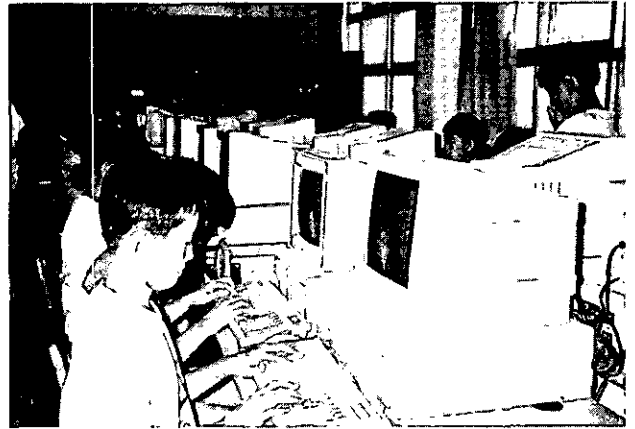
이 기간에 조직 규모와 연구 인력이 확대되었다. 즉, 5개 연구부와 1개 서무실 체제의 조직 규모로 확대하였고 인력도 25명 수준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이 인력은 교육부가 위촉하는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50명 수준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어서 나머지 인력은 교육부 지원 사업비에 의한 임시직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3. 도약기의 활동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연구·개발 활동은 '92년도부터 과제의 수나 영역에 있어서 크게 확대되었다. 컴퓨터 문맹탈피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등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 각급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이론적 기초와 개정 방향 그리고 내용 선정과 조직 계열의 탐색을 안내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위촉으로 중학

교 컴퓨터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현재 그 지도서를 개발하고 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도 이 시기는 중



요한 업적을 이룬 시기이다. 우선 컴퓨터 보조 수업 프로그램의 발전된 전형을 연구·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안목을 높였으며, 교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저작도구를 개발하여 현장교사들에게 보급하였다. 한편 교육부와 협력하여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기초연구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컴퓨터 보조 수업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초를 마련하였다.

학교에의 컴퓨터 도입과 교육활동의 전산화는 교사들의 컴퓨터 소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교육연구센터는 교육부의 지원하에 각종 교원 연구 프로그램과 연수교재를 개발하여 각 시·도에 보급하였으며, 컴퓨터 강사요원,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컴퓨터 교육 장학직 요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각 시·도의 컴퓨터 교육 선도 및 전문 요원을 양성하였다. 또한 각종 안내자료, 자학자료, 지침, 해설서, 정보자료집 등을 자체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급 학교의 컴퓨

터 교육 연구·시범학교 지도, 전 교원을 상대로 한 일상적 상담 제공과 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공헌

불과 몇 년 간의 실적과 활동 결과에 의거해서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연구·개발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 센터의 경우 그 활동의 시기가 우리나라가 정보사회로 발돋음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컴퓨터 교육의 사회적 관련성 차원에서 그 공과는 검토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

많은 교육 연구가 정책의 수립, 수정·보완, 시행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으나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컴퓨터 교육 연구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센터의 연구 결과가 이와 같이 컴퓨터 교육 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과제의 선정과 수행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수용자라고 볼 수 있는 교육부 담당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육부의 현실적 요구 및 입장과 연구자의 전문성이 잘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교육 현장과의 부합성

본 센터의 많은 연구·개발물은 거의 모두 교육 현장에 보급, 활용되고 있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학교 현장에 잘 보급,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을 고려할 때 본 센터의 연구·개발 결과가 거의 모두 현장에서 수용되었다는 것은 센터의 연구·개발 결과가 교육 현장의 필요에 잘 적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חק력 연구원에게서 간과되기 쉬운 오만을 피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

여, 본 센터 연구원들이 하나같이 교육 현장을 끊임 없이 찾아가 대화하고 선생님들의 애로와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금전적·시간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현장 선생님들이 센터 연구원들에 대하여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평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같이 평소 센터 연구원 각자가 현장 선생님들과 라포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센터 연구 결과가 비록 방법론적 완벽성과 진술의 논리성에서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환영받는 것으로 보인다.

3. 컴퓨터 문맹탈피 교육의 방향 제공

정보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컴퓨터 문맹탈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제5차 교육과정 개정시 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 관련 내용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컴퓨터에 대한 국가·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극히 소수의 전산 관련 학문 전공자와 관련 학교 교사 및 관련 산업에 종사자들에게 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교육의 주 목적과 내용이 응당 프로그래밍 작성법이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컴퓨터 교육 시행 국가에서 컴퓨터 교육의 방향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의 함양에 두어야 함을 경험하여 왔고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여 오고 있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또 아이들에게 특활 시간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일반 교사들도 프로그래밍 교육의 불필요성과 곤란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동향을 고려하여 본 센터에서는 컴퓨터 문맹탈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보처리 능력과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에 두도록 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거의 모두 제6차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구성하는 데 반영되었으며, 컴퓨터에 대한 교원 연수

교재에도 거의 반영되었다.

4.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의 선도

컴퓨터를 학교에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컴퓨터를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교육과 수업 및 학습의 매체와 도구로 활용하는데 있다. 컴퓨터 보조 수업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이 관심은 우리에게 희망과 실망이라는 양면적 얼굴을 가지고 있다. 희망은 컴퓨터의 특성상 전통적인 교육매체와는 달리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여러가지 교육적 아이디어와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교육용 프로그램은 참고서만도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교실 상황이나 수업환경,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와의 무관성 등으로 거의 무용지물화되었다. 여기에 실망의 근원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이상적인 컴퓨터 보조 수업 프로그램의 전형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합리적인 개발체제를 수립하였고, 이런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량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저작 도구를 개발·보급하여 컴퓨터 이용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본 센터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의 개발방향, 개발전략, 개발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발전 방향과 과제

1. 연구·개발비 재원의 다양화

본 센터 연구·개발은 거의 전적으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금에 의존되고 있다. 그것은 본 센터 설치의 요구가 교육부의 컴퓨터 교육 추진·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개발원의 영세한 연구 예산 중에서 막대한 규모의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컴퓨터

연구·개발 사업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년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상태이고, 또한 교육 지방 자치의 확대와 더불어 각 시·도별 교육의 특성화·차별화가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각 시·도에서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것인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것은 당장 내년도에라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교육적 이용은 교육개혁의 실제적 수단인 하나라는 점에서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은 중단되어서는 아니되고 더욱 확대시켜야만 할 처지이다.

따라서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규의 마련과 교육부에 최소한의 컴퓨터 교육 지원과를 두어 컴퓨터 교육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은 사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자연 과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 등 컴퓨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거나 과제 발주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위상과 성격을 갖는 연구소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기관과 사람간에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진정 컴퓨터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

컴퓨터 교육 연구는 간학문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 단일 학문적 접근은 곤란하다. 인간의 학습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학습과정을 잘 조장해주는 교수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공학,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작성할 전산 능력, 프로그램을 통신하는 데 기여할 통신공학 등이 모두 관련된다. 그러므로 현재 본 센터는 이와같이 다양한 분야의 무수한 인력 확보

가 중요하다.

연구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은 센터의 연구인력 확보도 교육개발원의 전체 정원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미 200명이 넘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센터 정원의 확대는 사실상 힘이 들며, 또한 지금과 같이 교육부의 연구·개발비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센터 정원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보아 기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향으로 보아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 인력의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기관도 부담이 되지 않고 센터 연구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3. 연구 개발 환경의 조성

연구·개발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쾌적한 공간의 확보와 시설의 확보이다. 우선 연구·개발 공간의 경우 유사한 타 연구소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본원 내에서도 낙후된 수준이다. 업무의 특성상 타 연구부서에 비하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나 실제로 그 반대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공간 부족의 문제는 교육부 수탁 사업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에 필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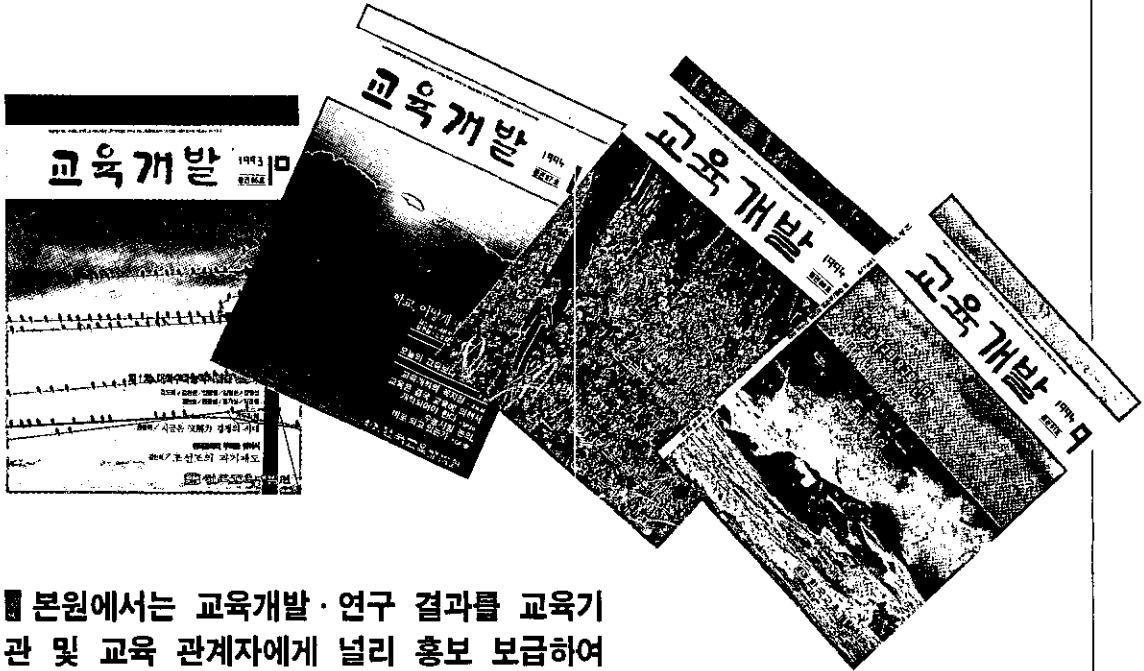
연구·개발 시설에 있어서도 센터는 유사한 타 연구 기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미 고도의 멀티미디어 고속 통신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주요 연구·개발 시설과 연수 장비가 286 XT급 및 286 AT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의 요청 과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컴퓨터 환경에 맞는 개발을 요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제 첨단적인 정보공학 환경에 대비하는 연구를 과감하게 확대 수행해야 하는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시설의 현대화가 크게 요청되고 있다.☹

족수	~을	~으로
4	유지될 성과 진술에 국토	유지는 優秀 進술이 그들
5	2~5년 民族	1~5년 史家

바로잡습니다

※ 본지 9월호(통권 91)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교육개발 투고 안내



■ 본원에서는 교육개발·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내용**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기존의 교육개발지 참조)

◆**기한** 수시 접수

◆**고료** 매당 5,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제출처**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편집특임부
(Tel:572-5121, 교환 426)

◆**기타** ①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②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스승님의 말씀들

정 양 완

예 순여섯 나의 오늘을 이룩해 온 그들에게는 물론 나를 낳고 기르신 두 분의 은혜가 가장 크지만, 여러 밧스승님의 가르치심 또한 크다. 험한 고비에서 휘청거리는 몸을 떠받쳐 주듯, 내 생애의 구비구비에서 나를 바로잡아 주신 분은 나의 여러 스승님이시다.

국민학교때, 복도를 수세미로 물청소한 뒤, 이튿날쯤 뽕송뽕송 마른 복도에 우리와 같이 꿇어앉아 문지르시면서

“복도에 광을 내는 게 바로 네 마음에 윤을 내는 것이란다.”

하신 여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집안의 화장실,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장실 널마루 복도 바닥을 가끔 쓸고 치운 것은 국민학교때 여선생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참 꿈 많은 여학교 시절,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기에, 내 마음 꽃밭에 물을 대어 주신 분 중의 한분은 김순애 선생님이셨다. 우리 음악책에 있는 가사를 선생님께서는 발랄한 우리 마음에 맞도록 고쳐 짓게 하시고, 그 중 마음에 드는 가사를 학생들 다수결로 고르게 하여 새로운 우리의 가사로 부르게 하셨다. 그뿐인가! 횡격막을 울리는 그윽하고 깊이있는 발성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깊이를 더해 주셨다. 과마하지 않고 제물로 아무렇게나 등글게 집어 땀아 빗으신 머리모습의 자연스러움이라든가, 부드러운 한복의 색깔까지도 나에게 세상에 다시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었다. 특히 우리 영혼에 시혼을 불지러 주신 조지훈 선생님의 시를 작곡하여 우리에게 불러 주어가며 가르치실 때의 청순한 선생님의 모습, 김기우 선생님 반주에, 김순애 선생님의 지휘로 우리가 합창을 할 때, 그 황홀함은 선너나 된 듯, 그 흐뭇하고 기쁜 심정은 회상만 해도 즐겁다.

“여러분! 늘 기쁘고 밝은 마음으로 친구를 불러 보세요. 순희야아! 할 때도 부드럽고 곱게 악쓰거나 성내지 말고, 노래하듯이...”

어미가 되어 나는 딸에게 꼭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부르라 하였다. 그러나 때로 실수는 어미에게 있었다.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엄마”하는 그 애들의 음성을 마치 “얼마!”하는 것처럼 정이 고였건만, 나는 “왜?”하고 통명스럽게 대답할 때도 있었다. 바쁘거나 성가실 때, 그러면 아이는 어느덧 내 스승이 되어

“엄마도 왜애?’, 하고 예쁘게 말해 봐.”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다. 나는 미안하고 무안해서 “미안, 미안”하면서 사과하였다. 김순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포옥 안아 주었다. 성날 때도 “순희야아!”하며 노래부르듯 하라신 선생님을 생각하며,

-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 (한문학 전공)
- 규합총서 (역주) 조선후기 한시연구
—특히 사가시를 중심으로



정 양 완

우리 애도 언젠가 어머니가 한번 이야기한 김순애 선생님의 노래하듯 부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미 어머니가 된 딸이도 제 아이들에게 김순애 선생님 말씀 따라 예쁘게 아이들을 흔히 부를 것이라 생각된다. 특별히 화가 치민 때 외에는.

대학원을 마친 후, 한문공부를 하게 되었을때, 월당 홍진표 선생님과 우전 신호열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월당 선생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귀찮 적은 것을 철저히 알아야 공부가 느는 것이오.”

하시고는 두시(杜詩)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것을 기어이 번역해 오게 하셨다. 그래서 매천 황현(梅泉 黃玿)을 공부할 때, 나는 감남도 모르고 역시 가장 어려운 시만 가려 끄쟁대느라 틀린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었다. 우전 선생님께서는

“분수에 맞는 시를 가려서 하지, 택도 없는 것을 다루었으니 쫓쫓! 욕심이 망쳤지! 이흠을 잘해도 잘못된 하나가 모두를 망치는 법이오.”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고도 나는 아직 엉망진창으로 그릇친 매천시를 숙제로 남긴 채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월암 이광려(月巖 李匡呂)의 이침봉집을 혼자 더듬어 읽으면서도 이미 이승을 떠신 두 분을 생각하며 어려운 대목마다 눈물 지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월암을 숭회한 초원 이충익(槲園 李忠翊)의 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어, 내 삶의 한 지표가 되고 있다.

“언젠가 내가 아저씨(월암)를 뵈오니 어찌 기쁘지 않은 표정이시라, 묻자오니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시기를 ‘내 뜻같이 되지 않아서 오늘 집식구에게 화를 내었는데, 목소리며 용모가 도에 지나쳤느니라. 내가 이제 죽을 날도 머지 않은데, 희로(喜怒哀)가 도에 지나치기 전날과 같으니 이래서 스스로 시름하고 나모래는 터이나라’ 하셨다.”

나는 이 월암의 자책(自責)에서 홀로를 삼가는(慎獨) 이의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不自欺) 정신세계의 피나는 한 증언을 읽는다. 월암의 내수(內修)의 세계를 넋짓이나마 엿보게 된 것도 모두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치심 덕분인 것을 다시금 감사해 하고 있다. ㉞

학교 컴퓨터 교육의 현주소

·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연구원/서 영 석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정보 기술의 총아인 컴퓨터는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이용 범위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서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기간 전산망의 한 분야인 교육연구 전산망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1987)', '학교 컴퓨터 교육 지원 추진 계획(1989)'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 컴퓨터 교육 지원 추진 개선 방안(1992)' 등의 장기 계획에 의해 컴퓨터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교원 연수, 컴퓨터 교육 과정 개발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의 수량은 얼마이며 그 성능은 어떠한가?

- 우리나라 국·중·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을까?

1993년 12월 현재 교육부의 미간행 자료에 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는 국민학교 4,497개교, 중학교 1,848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649개교 등으로 국·중·일반계 고등학교의 약 70% 정도가 교육

용 컴퓨터를 보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 자료에는 학교의 자체 예산이나 육성회의 도움으로 구입된 컴퓨터는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학교에 보급되어 있다.

-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993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는 학생용은 8088XT 컴퓨터, 교사용은 80286AT 컴퓨터로 단색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컴퓨터가 80386SX 이상의 VGA컬러 모니터임을 감안하면 그 성능으로 인하여 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열의에 따라서는 교육용 컴퓨터도 훌륭히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는 5차 교육 과정의 내용을 운영하는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즉, 5차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이 '컴퓨터 기기의 구성', '컴퓨터 조작', 그리고 '프로그래밍(BASIC)' 등임으로 이들 내용을 교육용 컴퓨터로 소화해 내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실망의 추가 설치 및 멀티미디어용 컴퓨터의 보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 국·중·일반계 고등 학교에 보급된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될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198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개발·보급하고 있다. 국민학교용 179편, 중학교용 144편, 고등학교용 84편 그리고 교무 지원용 등 각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프로그램이 7편으로 총 414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김영민 외(1993)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3,60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 학생 중 84.2%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조사해 본 결과, <표 3>과 같이 국민학교는 88.1%, 중학교는 82.2%, 고등학교는 78.5%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해 본 경험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교육용 컴퓨터 보급 현황 ('93. 12. 31 기준)

구분	국민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교원수 기관	계
총 학교수	6,122	2,539	1,058	677	—	—
보급 학교수 (보급대수)	4,497 (93,048)	1,848 (53,604)	649 (19,857)	649 (20,802)	47 (1,883)	7,798 (193,726)
실적	73.5%	72.8%	61.3%	95.9%	—	—

* 출처: 교육부 과학교육과(1994. 1), [학교 컴퓨터 교육 추진 실적]
서울: 교육부, 미간행자료

<표 2>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93. 12. 31 기준)

구분	국민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공용	계
'88	13	6	6	-	25
'89	23	15	4	-	42
'90	37	30	15	-	82
'91	35	29	18	3	85
'92	36	30	22	2	90
'93	35	34	19	2	90
계	179	144	84	7	414

* 출처: 교육부 과학교육과(1994. 1), [학교 컴퓨터 교육 추진 실적] 서울: 교육부, 미간행자료

<표 3> 학생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학교급별 분포)

구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있다	973(88.1)	578(82.2)	405(78.5)	X ² =27.01 df=2 p<0.01
없다	132(11.9)	125(17.8)	111(21.5)	
계	1,105	703	516	

* 출처: 김영민의(1993), [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표 4〉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시간

구분	명수(명)	비율(%)
주 2시간 이상	297	15.6
주 1~2시간	693	36.4
월 1~2시간	221	11.6
한 학기에 1~2시간	254	13.3
사용하지 않는다	440	23.1
계	1,905	100.0

* 출처: 김영민 외(1993), [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표 5〉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시기

구분	명수(명)	비율(%)
수업시간	558	31.8
보충수업시간	41	2.3
자율학습시간	81	4.6
컴퓨터 교육시간	371	21.2
특별활동시간	368	21.0
방과후	199	11.4
기타	135	7.7
계	1,753(명)	

* 출처: 김영민 외(1993), [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몇 시간이나 사용되고 있을까?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본 학생 중,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시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시간은 주 1~2시간이 36.4%, 주 2시간 이상이 15.6%, 월 1~2시간이 11.6%, 한 학기에 1~2시간이 13.3%,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3.1%로 나타나, 50%이상의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주 1~2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어떤 시간에 활용되고 있을까?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시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시기는 수업 시간이 31.8%, 컴퓨터 교육 시간이 21.2%, 특별

활동 시간이 21.0%, 방과후가 11.4%, 자율 학습 시간이 4.6%, 보충 수업 시간이 2.3%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시기는 주로 수업 시간과 컴퓨터 교육 시간, 그리고 특별 활동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표 6〉 컴퓨터 교육 담당 교사 연수 실적(1988~1993)

(단위:인원수)

구분	국민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기초과정	52,245	37.5%	19,902	20.4%	12,504	22.3%	84,651	29.0%
심화과정	35,535	25.5%	10,540	10.9%	6,890	12.3%	52,965	18.1%
전문과정	2,305	1.7%	1,082	1.1%	821	1.5%	4,208	1.4%
계	90,085	64.7%	31,524	32.4%	20,215	36.1%	141,824	48.5%

* 출처: 교육부 과학교육과, (1994. 1), [학교 컴퓨터 교육 추진 실적], 서울: 교육부, 미간행자료

* 교원수는 1993년도를 기준으로 국민학교 139,160 명, 중학교 97,130 명, 일반계 고등학교 56,040 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학교 선생님은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학교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컴퓨터 활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 평가 도구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리터러시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 리터러시의 정의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교사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야기하기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컴퓨터 활용 정도를 컴퓨터 교육 담당 교사 연수 실적을 통하여 알아보겠다. 비록 30시간 기초 과정 연수를 마친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얼마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제쳐 두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사의 90,085명, 중학교 교사의 31,524명, 고등학교 교사의 21,215명 총 141,824명의 교사들이 최소한 30시간 이상의 컴퓨터 교육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교사의 48.5%에 해당하는 교사이다.

학교 컴퓨터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나라의 학교 컴퓨터 교육은 1971년 고등학교에서 전산 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 과정 교육 제도의 확립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시행된 제5차 교육 과정(문교부 고시 87-7호, 87-9호, 88-7호)은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였다. 국민학교 실과에 총 13차시의 컴퓨터 교육 내용이 삽입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가정, 기술·가정, 가정교과에 독립 단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술, 상업에 독립 단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정보 산업이라는 독립 교과가 신설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누구나 컴퓨터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상의 컴퓨터 교육 편제와 시간 배당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제5차 교육과정상의 컴퓨터 교육 편제와 시간 배당

학교급	과목명	편제영역	이수학년 및 시간(단위)	기 타
국민학교	실과	필수과목	4~6학년 총 13차시	소단원 및 중단원 수준
	가정 가정·기술 기술 상업	선택과목	1학년 10차시 1학년 16차시 1학년 21차시 3학년 3차시	중단원 수준 대단원 수준 대단원 수준 중단원 수준
일반계 고등학교	기술 상업	선택과목	19차시 25차시	대단원 수준 대단원 수준
	정보 산업			독립교과

* 출처: 정택희 외(1992), [초·중등 학교 컴퓨터 과목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표 8〉 컴퓨터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배당

학교급	교과목명	편제영역	이수학년 및 시간(단위)	기 타
국민학교		학교재량 시간	3~6학년 주당 1시간	학교의 필요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 교육 활동 시간으로 활용 가능함
중학교	컴퓨터	선택교과	1~3학년 주당 1~2시간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필요한 과목 중에서 학생의 필요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학교가 선택하여 운영함
고등학교	정보산업	과정별 필수과목	6단위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 산업, 진로·직업 중에서 시도 교육청이 선택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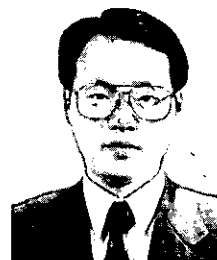
* 출처: 정택희 외(1992), [초·중등 학교 컴퓨터 과목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제6차 교육 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제 1992-16호, 제 1992-19호, 1992)은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부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 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민학교는 학교 재량 시간, 중학교는 선택 교과라는 새로운 편제 영역이 신설되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컴퓨터 교육을 독립 교과목의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정택희 외, 1992). 제6차 교육 과정 총론상의 컴퓨터 교과목에 대한 편제와 시간 배당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 중에서, 주당 1시간씩을 컴퓨터 교육 활동시간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중학교와

고등 학교의 경우에도, 위에 제시된 과목 중에서 컴퓨터와 정보 산업을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컴퓨터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상의 구체 사항에 대한 자율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컴퓨터 교육은 국가적 장기 계획에 의해 컴퓨터 보급, 소프트웨어 개발, 교원 연수 그리고 교육 과정 개발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다가선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교육 나아가 정보 교육이라는 황무지에 터를 닦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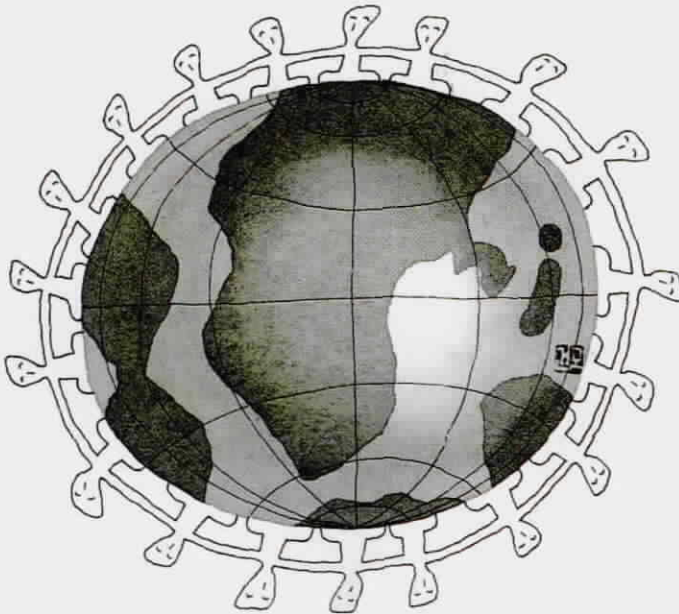


서 영 석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컴퓨터 교육학과 대학원 졸업(문학 박사)
- 본원 컴퓨터시스템연구개발부 연구원
- 「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교실망 운영을 위한 독립형 컴퓨터 환경 CAI프로그램의 수정 연구 개발」의

강릉 명륜 고등학교의 덕성 교육

강릉 명륜 고등학교 편



신문 보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반도덕적 사건때문이다. 많은 책임이 학교로 돌려지고 있다. 학교는 학교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비난받아야 하는냐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결코 교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교육의 전개 역사가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교에서 설립한 강릉의 명륜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취재진의 머리 속에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옛것을 숭상하는 향교가 세운 학교가 교차되어 대안적인 학교의 모습이 크게 그려지고 있었다.



강릉 명륜고등학교의 덕성교육

글 · 임선하

내년이면 신교육 도입 100주년 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교육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주인처럼 들어앉은 이질적인 신교육의 역사가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전통 가치의 파괴와 이에 따른 행동 규범의 상실 상황에 봉착했다는 진단서를 받은 요즘에 이르러서는 더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 교육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 더 개방화된 서구 문화의 접촉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통에 기초한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를 찾는 것은 두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륜과 도덕을 중시하는 유학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강릉의 유림들이 주축이 되어 강릉향교 내의 명륜당에서 학교를 연 명륜고등학교를 찾았다.

1 명륜고등학교는 강원도 강릉시 교2동에 자리하고 있다. 학교 뒷편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조그만 산이 학교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학교 바로 옆에는 역사도 오랜 강릉 향교가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다. 학교에 들어서니 풍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 학교의 터가 명당임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늑한 느낌이 다가온다. 알고 보니 이 터는 이미 교육 명당으로 이름 나 있다. 말라 죽어가던 이 곳의 풀이 울곡 선생이 태어나면서 그 기운으로 다시 생기를 찾았다는데서 연어진 이름이다. 바로 인접해 있는 향교의 명륜당은 조선시대 이 지역의 유림들이 모여 학문을 닦고 덕행을 수련하던 곳이다. 이 곳에서 공부한 학자들의 학풍과 덕행은 이미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신교육은 우리의 자발적

인 발의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외부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신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기관과 육영사업가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명륜고등학교는 설립 주체가 이 지역 유림을 대표하는 향교라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향교가 설립 주체인 학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만큼 이 학교의 존재는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현재는 학교 재단이 향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재단 이사 중에 당연직으로 향교에서 2명이 선임된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의 전통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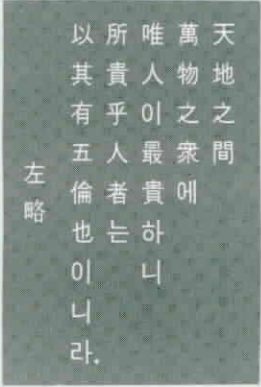
1951년에 이미 중학교가 설립되고, 이어서 1964년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중학교는 지난 88년에 폐교되어 전통의 맥은 고등학교가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총 28학급인 이 학교의 權承鉉 교장은 명륜중학교에서부터 근무해 온 명륜인의 한 사람이다.

2 이 학교의 설립 주체가 향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학교에서는 입시라는 제약이 있기는 해도 향교에서 강조하는 전통 예절과 인륜 교육에 다른 학교와는 차이가 날 정도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런 예상은 물론 틀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91년에는 향교의 강사를 학교에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주 2회씩 명심보감을 가르친 적이 있다. 6월 14일에 실시된 명심보감 강의의 일부를 당시에 촬영된 비디오를 기초로 정리해 본다.

칠판에 명심보감의 일부분이 씌여져 있다.

나이가 지긋한 강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시간에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보호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은 하늘이 화를 주신다는 공자님의 말씀과 사람이 하루라도 착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장자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강과 오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본교는 명륜고등학교로 명륜은 윤리를 밝힌다는 말처럼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윤리가 무엇이고 오륜이 무엇인지를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칠판에 씌여진 것을 읽어 보도록 합니다.”



칠판에 씌여진 글귀를 그대로 한번 읽는다. 그런 다음에 뜻풀이를 한다. “하늘천 땅지 사이간, 천지시간 이러면 하늘과 땅 사이 이런 말이 되겠지요. 만물지중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는 차라리 온갖 물건이 많이, 중은 무리 중입니다. 물건에는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는데 온갖 무리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가장 존귀하다 이런 뜻이지요. 所貴乎人者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까닭은 以其有五倫也 아니라, 오

륜이 있음으로써 아니라, 다시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하늘과 땅 사이 만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 사람이 가장 존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도덕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자 마련된 명심보감 교육은 얼마 가지 않아 끝나고 만다. 옛날식의 강의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권교장은 말한다. 그래도, 이때의 강의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옛것에 대한 강한 관심의 일면은 가지고 있다. 지금도 방학 중에는 향교에 의뢰하여 전통 예절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상자는 1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는데, 한번에 4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한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 내년부터는 1주에 1회씩 명심보감을 강의할 계획으로 국어 교사가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있다. 봄·가을에 열리는 향교의 釋尊祭에 한 학급씩 참가시킨 적도 있다. 현재는 학생 대표만이 참가하고

있다. 도덕성 함양 6 운동실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명륜을 의도하는 것도 이 학교가 자랑하는 덕성 교육의 일면이다. 이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설정할만한 활동 목록을 미리 배부해 준 다음에 2개월 동안에 3 가지씩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 6월의 중점 관계는 내가 먼저 차례 지키기인데, 선정할 수 있는 실천 사항으로 배부된 예시 사항에는 차 타고 내릴 때 줄서기, 끼어들기 안하기, 여러 사람 쓰는 물건 활용시 차례 지키기, 노크하기, 교무실 출입시 차례 지키기, 복도에서 좌측 통행하기, 신호등 지키기,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기가 있다. 이 중에서 2학년 한 학생은 끼어들기 안하기, 노크하기, 신호등 지키기를 실천사항으로 선정하여 자기 평가를 하고 있었다.

전통 예절 교육의 일환으로 뿌리 찾기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가계의 근본 찾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성함 알아보기, 그리고 친족 찾아보기 활동으로 나타난

도덕성 함양 6 운동 실천 계획 및 평가

배 (2)학년 (1)반 (25)번 이름 ()

월	중점과제	실 천 사 항	전 반 기				후 반 기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3.4	○ 내가 먼저 인사하기	1. 친구들과의 인사나누기 2. 웃어본게 인사하기 3. 선생님께 인사하기	○ ○ ○	○ ○ ○	△ △ △	△ △ △	△ △ △	△ △ △	△ △ △			
5.6	○ 내가 먼저 차례지키기	1. 끼어들기 안하기 2. 노크하기 3. 신호등지키기	○ ○ ○	○ ○ ○	○ ○ ○	○ ○ ○	○ ○ ○	○ ○ ○	○ ○ ○			
7.8	○ 내가 먼저 도와 주기	1. 부모님 심부름 알하기 2. 불우학우돕기 3. 급우간 서로돕기	○ △ △	△ △ △	△ △ △	△ △ △	△ △ △	△ △ △	△ △ △			
9.10	○ 내가 먼저 웃어본 모시기	1. 웃어본게 공손한 말로 대답하기 2. 웃어본 맞춤 잡듣기 3. 허투에 한가지 혐오하기										
11.12	○ 내가 먼저 아껴쓰기	1. 2. 3.										
1.2	○ 내가 먼저 참고 견디기	1. 2. 3.										
검사 월 확인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기재요령) 실천 ○ 불어 실행 △ 실천안함 × 실천계획 없음 V

다. 뿌리찾기의 경우, 학생들에게 인쇄된 뿌리찾기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 양식에 학생들은 관련 사항을 정리해 오는 것이다.

전통 교육은 이런 가지적인 행동 외에도 구체적으로 전통과 관련된 특이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권교장은 조 회시간에는 물론 직원 회의 시간에도 전통 예절을 강조하는 훈화를 자주 한다. 어려서 서당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는 전통 교육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소학을 읽으면 심성이 변하고 이어서 행동이 바뀐다고 말했다. 전통 교육에 대한 지지가 지금도 여전한 것을 보여 주는 말이다. 현 교육 상황에서는 전통 예절을 가르치기에 어렵다고 생각해서인가? 그는 학교 도서관을 확장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동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받아 장서를 확보하였는데, 만 권이 넘는다고 한다. 이 책들이 전문 도서관과 같은 분류체계와 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된다. 따라서 학생들 거의 모두가 책을 많이 읽는 학교로 자리하고 있다.



3 필자는 향교 관계자 한 분(강릉향교 정경부장 金漢起)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통적인 도덕과 예절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현실에서 향교가 주도하여 세운 명륜고등학교에서 전통적인 도덕 교육이 향교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오늘날의 교육 탓이라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 국민학교에서까지도 영어를 가르친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윤리를 없앤다고 한다.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도덕성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없다. 학교에서 명심보감같은 내용을 가르치면 좋겠다.”

4 명륜고등학교는 강릉향교와 바로 인접해 있다. 항상 오고 가면서 보는 것이 향교이니 학생들은 어느 정도 향교가 가진 교육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향교에서 세웠던 건학 이념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명륜고등학교를 보고 싶었던 필자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쉽게 가지지 않았다. 취재를 마치고 오는 차 안에서 얼마 전에 보았던 외국영화의 한 토막을 떠올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오마 샤리프가 열연한 ‘사막의 계절’이라는 영화이다. 도시에 나가 미국인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아 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랍

의 족장인 아버지가 지시한다. 그 이들은 부족의 후계자이니 부족이 살고 있는 사막으로 데려오라는 것이다. 이후에 그 부족과 자기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 재벌 엄마가 고용한 용병들이 펼치는 구출 작전이 박진감있게 전개된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족의 문화를 전수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는 늙은 족장의 강한 집착이 배어 있는 수작이다. 어린 손자에게 칼쓰는 법과 말타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은 차라리 한편의 교육 영화이다. 전통 교육에 대한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5 학교장과 향교 관계자의 전통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교육개발 취재진의 출장 후에 더욱 더 구체화되어 건학이념을 구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을 권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 학교 운동장에 비를 세우고, 학생들이 지켜야 할 전통 예절의 실천덕목을 새겨 넣어 학생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 한다. 이를 시발로 하여 더욱 더 좋은 활동들이 나오리라 기대해 본다. ㉞

백제 미술과 미의식

김창균

I. 머리말

백제는 고구려의 전통과 中國 南朝文化를 수용하여 부드럽고 온화하여 세련된 특유의 미술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와같은 백제미술이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여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은 사실이지만, 수준 높은 미의식과 예술성은 1971년 발굴 조사된 무령왕릉 부장품들로부터 1993년 발견된 稀世의 걸작 金銅龍鳳蓬萊山香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평가되어져 왔다.

백제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문화를 꽃피워 오다 주변의 정치적 상황으로 熊津과 泗泚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만 그 때마다 한강·금강 등 큰 강과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린다. 이러한 정치적·지리적 여건으로 마침내 백제미술의 성격이 형성되고 양식 또한 변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漢城·熊津·泗泚 세 시기에 따라 변천하는 미술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백제인의 미의식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백제미술의 특징

●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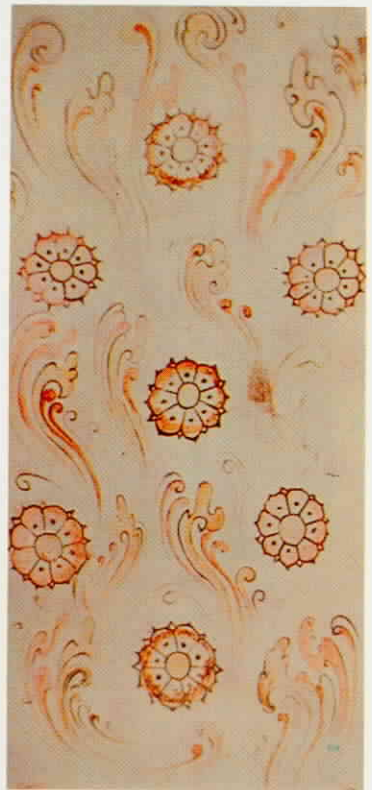
고구려·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제의 회화 역시 실용목적의 그림으로 古墳壁畫나 工藝畫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자료로 인하여 백제 회

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6세기 전반 경 추정된 공주 송산리 6호분의 四神圖와 무령왕과 왕비의 머리와 다리받침에 그려진 봉황·어룡·비천·연꽃·인동무늬, 6세기 후반 7세기로 짐작되는 부여 능산리 고분 천정의 구름과 연꽃그림 등이 있다. 대체로 이들 소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것들로 고구려식을 따르고 있으나,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내재되어 있어 역동적이고 날카로운 특징을 지닌 고구려와는 다른 회화 양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웅진 천도 이후 백제는 산수화와 불교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中國 梁나라와의 교섭을 통하여 음영법과 요철법 등 서역화법이 가미된 높은 수준의 회화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백제의 회화는 무령왕비의 머리받침에서 보이듯이 淨土往生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蓮華化生圖도 그려지고 있어 불교의 숨결이 짙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무령왕릉의 銅托銀蓋과 부여 규암면 절터 발견의 山水紋塼, 능산리 건물지에서 발견된 金銅香爐 등에 표현된 산악도는 간접적으로나마 웅진·사비기 산수화의 발전상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들로 주목된다.

이 중 동탁은잔에 표현된 산악도는 백제시대 산수화의 유행이 늦어도 6세기 전반 경에는 시작되었음을 시사해줄 뿐만 아니라, 뒤이어 드러나는 산수문전이나 금동향로에서와 같은 빼어난 산수의 출현을 예고해 줌으로써 백제시대 산수화의 높은 수준을 잘 말해 준다 하겠다.



부여능산리고분벽화(천정 그림)



● 조각

여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백제조각 역시 불교조각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불상조각은 384년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거의 같은 시기로부터 나타났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수용 당시의 불상들이 과연 백제작이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다만 近肖古王(346~375)때 이룩했던 정복국가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는 고도의 문화가 절실했었을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불교가 받아들여졌다고 본다면 어쩌면 백제인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백제의 불교조각은 漢城時期에 시작되어 고구려식을 따르다, 5세기 말경에 이르면 부여 신리 출토 금동불좌



금동용봉불래산향로 (부분)

금동용봉불래산향로 (7C)



상처럼 눈을 바로 뜨고 얼굴이 둥글어지며 미소를 띠는 중국 太和年間(북위: 477~499)의 조각 양식을 수용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후 안으로는 고구려와 맞서고 밖으로는 중국 남조의 南齊·禁과 활발한 교류를 갖는 웅진기의 백제는 점차 북방적인 강인한 요소를 줄이고 유연한 농경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전개시킴으로써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불입상과 예산 사방불에서 볼 수 있듯 백제 특유의 부드럽고 원만하며 유연한 문화를 이루어 내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王興寺·定林寺 등 많은 사찰과 불상이 조성되어 불교문화가 그 절정에 도달하는 사비시기에 이르러 보다 뚜렷해진다. 즉 얼굴이 둥글넓적해지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소박한 모습으로 힘차면서도 우아한 조형미와 부드럽고 세련된 부피감을 나타내게 된다. 이 모습은 부여 군수리 절터 발견의 남석불좌상과 금동보살입상을 시작으로 부여 신리 출토 금동보살입상에 이어지며, 백제의 미소를 대표하는 瑞山磨崖三尊佛像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곧 長者風의 신체에 쾌활함을 크게 강조한 백제적인 특징으로, 부여 능산리에서 최근에 출토된 금동용봉불래산향로의 주악인물상에서도 엿보여 백제인임을 알게 해 주고 향로의 조성시기까지도 추정 가능케 해주고 있다.

한편 백제조각은 北齊·周 후기 내지는 隨·唐 의 새로운 양식의 등장과 더불어 차츰 正面觀 위주에서 벗어난 거의 입체적인 상이 출현하게 되는데,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과 함께 부여 규암면 금동보살입상, 예산 교촌리 금동보살입상은 이와같은 후반기 백제조각의 난숙미를 잘 보여준다.

● 공예

공예는 우리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다양한 변화를 보임에 따라서 한 시대의 미술을 파악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하겠다.

백제의 공예는 각종 토기를 비롯하여 무령왕릉 부장품과 금동용봉부래산향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 토기는 6세기 전반까지는 청동기 이래의 古式土器와 함께 밑바닥이 둥근球形의 몸통에 승석문·격자문이 施生되며, 6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면 어깨넓은 몸통에 밑바닥이 납작해지고 승석문·파상문·횡선 등이 혼합된 結合生이 성행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보이는 器台·四耳瓶 등 새로운 모습의 토기가 등장하게 된다. 토기가 이러한 특색을 갖는 이유는 백제인들의 창의력이 바탕이 된 능동적인 문화수용의 자세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진취적 자세는 특히 웅진기~사비기의 무령왕릉 부장품과 능산리 출토 금동향로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무령왕릉 부장품을 가운데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과 귀걸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미 넘치는 조형감각과 예술성이 가장 돋보이며, 왕비 머리받침의 연화화생도는 저변에 깊숙히 뿌리내린 불교사상을 알려준다.

한편 능산리의 금동향로는 불교문화가 정점에 도달하고 문화의 최성기를 맞은 사비기 미술의 이해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로 예술적 창의성과 조형성이 탁월하고 失腦法과 아말감(Amalgam)도금법 등 고도의 제작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상을 통한 道教와 佛敎의 사상적 복합성까지도 제시함으로써 백제미술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이외에도 산수문전을 비롯한 連華紋瓦當과 鬼紋·連華紋·渦雲紋·鳳凰紋·蟠龍紋瓦當 등 여러 博의 부드러운 곡선

과 율동감을 통하여 그 특징이 잘 표현되고 있다.

● 건축

백제건축 중 사찰건축은 웅진·사비기에 이르러 발전상이 현저해진다. 최초의 사원건축은 높은 누각 형태의 方形多層木塔이었을 것이나 현존의 것은 익산 미륵사지다층석탑과 부여 정림사지5층석탑 2기 뿐이다. 따라서 두 석탑만으로 백제의 사원건축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신라석탑의 시원이 되고 있어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중 架構式 목조건축양식을 그대로 변안한 미륵사지탑은 기둥과 각 짜임부재에서 나타나는 직선과 완만한 지붕돌낙수면과 모서리의 경쾌한 反轉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창출해내고 있다. 그리고 목조건축양식을 다소 벗어나 전형 석탑으로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結構式의 정림사지탑은 옥개석 낙수면과 반전, 옥개받침 역할의 半球形 부재에서 드러나는 선의 조화로 우아한 곡선미를 보여주며, 2층 이상의 적절할 체감률에서 오는 안정감은 이 탑에 훨씬 세련미를 더해 주고 있다.

대체로 이 두 탑을 바탕으로 익산 왕궁리탑 등 후대의 탑들이 그 계보를 이으면서 백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연화문전 (7C)



미륵사지다층석탑



김창균

-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 문화체육부 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 감정관
- 「한국청동은입사 항완의 연구」, 「백제시대 금동용봉봉래산 향로에 대한 고찰」외

III. 백제미술 속의 미의식

백제문화는 고구려와 6세기 이후의 중국 남조문화의 수용과 변화하는 지배계급의 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특히 큰 강을 끼고 있는 넓고 비옥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를 근간으로 국민들은 매우 부드럽고 낙천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성과 함께 불교와 도교의 적절한 조화로 부드럽고 원만하며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미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즉 둥글넓적한 복스런 얼굴에 쾌활한 미소를 띠는 이른바 온화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은 백제미술 전반에서 공히 엿보이는 백제적인 특징으로 백제인의 모습이자 국민성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백제미술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미술을 통해 볼 때 독자적인 형태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진취적인 강한 조형의지가 돋보이며, 조형화에 창의성이 뛰어난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가지 관념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미적 감각이 탁월함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백제인들은 道敎의 不老長生思想과 佛敎의 無爲思想을 그들의 낙천적인 국민성과 합일시켜 조형화함으로써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여유와 조화로 푸근함이 있는 美를 완성한 것이며, 이것이 곧 미술 속에 드러나는 백제인의 미의식이라 하겠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나마 분야별로 백제미술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 백제인들의 미의식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여건상 내용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아쉬움은 남지만 백제미술을 애호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어느 정도라도 부응되었다면 더이상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보다 건실한 풀이와 맺음이 있기 위하여 앞으로의 수준 높은 발걸음 기대해 보고자 한다. ☺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도덕 교육의 역할

윤 현 진

(본원 도덕교육연구부 선임연구원)

※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 각도의 논의에서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의는 가치관의 혼란과 생활 규범의 상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시각은 역시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 공통적으로 내포될 전제는 그동안 우리의 도덕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구조의 조정 및 사회적 장치의 개선과 보강이 요구되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 특히 학교 도덕 교육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 현상과 학교 도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도덕 교육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학교 도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 상황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 의식 조사'와 객관적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갈등 및 청소년들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회의 공공적인 가치에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는 견해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직결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통적인 경노·효도와 같은 가치는 중요하게 인정하면서, 현대적인 인간 평등 사상은 아직 의식 속에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요컨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간에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드러난 집단간 갈등 현상은 노사 갈등과 지역 갈등이다. 노사 관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한 불평등한 관계일 수 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노사 관계 주체들의 지향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정상

적이고 제도적인 갈등 해결의 채널을 확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갈등은 현상적으로 계층적 갈등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국력을 분열시키는 구조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회적 갈등이, 도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심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건전한 도덕적 판단과 합의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도덕적 위기 상황 속에서 또한 우려할만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 문제이다. 청소년의 비행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양상이 황포화되고 저연령층에 의한 비행이 증가하는 한편, 각종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의한 비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 도덕교육의 위상

첫째, 우리의 도덕적 가치 체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들로는 종교 문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정치·사회 풍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부문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교 도덕 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도덕 교육

기관'의 역할과 영향력 면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덕 교육 기관이었던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도덕 교육적 기능이 약화 또는 변질되어가는 반면에, 텔레비전을 선두로 한 매스컴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덕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화 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 학교 도덕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스컴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둘째, 우리의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교육 방향이나 도덕·윤리와 등을 통해서 꾸준히 학교 도덕 교육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실재를 보면 우리의 학교 교육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준비 교육에 압도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학교 상황에서 도덕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도덕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도덕적 모범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우리의 학교 도덕 교육은 도덕적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사회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을 학교 도덕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하다.

4. 학교 도덕교육의 실태

1) 도덕(국민윤리)교과 교육의 실태
학교 도덕 교육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초·중·고교 도덕(국민윤리)교과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생활 영역을 중심 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6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 문제, 도덕과 교육 내용의 시대적·사회적 적합성 문제, 도덕과 교육의 발달 단계별 특성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수렴하여 국민학교 저학년에는 「바른생활」과를, 3~6학년에는 「도덕」과를 두게 되었다. 국민학교 도덕과의 수업 실태를 보면, 교과용 지도서 등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평가의 실태를 보면, 행동 관찰 평가와 지필 평가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중학교 도덕과 교육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도덕과와 동일하게 생활 영역을 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

에 부응하도록 수정하였다.

중학교 도덕과 수업 및 평가의 실태는 국민학교와 거의 유사한데, 다만 중학교 수업이 입시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평가에서도 지필 교사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국민윤리과는 현재 통일·안보 영역과 같은 정치·이념 교육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목의 명칭도 「윤리」로 고치고, 이데올로기 부분을 약화시키고 윤리 사상 내용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윤리과 수업은 전반적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존하고, 평가는 대학 입시 출제 경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주로 객관식 지필 교사가 실시되고 있다.

2) 학교 도덕 교육의 주요한 측면들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 결과

첫째, 학교 도덕 교육 관련 인사 들로는 교장, 교감, 학생, 학부모, 학교의 상부 기관, 지역 사회 인사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들은 학교 도덕 교육에 대해 적절한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둘째, 학교 도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사들은 도덕(국민윤리)과 교육이 도덕적 행동의 실천과 도덕적 판단력 함양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도덕(국민윤리)과

는 실제로도 중요한 교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교과 교육 외의 도덕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훈 지키기가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이를 가장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정 및 지역 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도덕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도덕 교육 방안도 강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도덕 교육의 문제 상황으로는 성적 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도덕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상벌 체제에서도 현재 우리의 학교에서는 이기적이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주로 상이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도덕교육적인 사례로 체벌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들고 있었다.

넷째, 학교 도덕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교사들은 지식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 탈피와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부모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과 집단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인 반면에, 학교 내의 개선 특히 도덕 교육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교사 모임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고 있었다.

3) 학교 참여 관찰 결과

초·중·고교의 생생한 도덕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참여 관찰을 한 결과, 학교급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도덕 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으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담임 교사의 영향이 매우 큰데, 교사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교사의 성향에 따라 눈치껏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교사들은 이에 대해 '관심의 표현'이라고 보고 방치하는 등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관찰된 학교의 대부분의 학급에서 도덕 시간은 조화에 일부 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특징에 의해 학생들의 행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학교나 교사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도덕 교육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담당 교과목의 지식 전달에 주로 신경을 쓰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교사들의 도덕적 강화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대규모 집단의 통제와 질서 유지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체벌이 많이 동원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교사들은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를 내림으로써 갈등을 표출하였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 입시를 보는 입장에 따라 해당 학교의 도덕 교육에 대한 강조 정도와 상황이 크게 달랐다. 일류 대학 진학률은 학교 교육 성공의 지표로 내세우는 학교에서는 생활 태도, 예절, 공중 도덕 등에 대한 지도보다는 학과목 학습 위주로 학교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도덕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주변 환경과 학생 수도 도덕 교육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 도시 속의 거대 학교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행이나 규칙 위반이 적발되기 어렵고, 현장에서 지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 도덕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우리의 초·중·고교 도덕 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고 도덕적 위기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학교 도덕

교육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도덕 교육의 문제점

1) 학교 도덕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도덕(국민윤리)과 교육이 경시되고 있다. 2) 학교 도덕 교육 관련 인사들의 적절한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다. 3) 학교 도덕 교육 프로그램이 형식화, 전시화되고 있다. 4)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 운영으로 인해 도덕 교육을 소홀히 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5) 교사들간에 학생 지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6) 학교 내에서 체벌이 일상화되고 있다. 7) 학교와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교육 방안이 부족하다.

● 학교 도덕 교육의 개선 방안

1) 학교 도덕 교육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교육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며 아울러 이를 보장할 제도를 정착시켜 줄 체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론이 중요하고 교육자들의 결단이 중요하다.

2) 초·중·고교의 도덕(국민윤리)과 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3) 교과 교육 외의 학교 도덕 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4) 교사들의 도덕 교육에 따른 열의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비교육적인 학교 문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6) 가능한 한 학교 및 학급의 인원을 줄여 나가고, 현 상태에서 그 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도덕 교육에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7) 학교-가정-지역 사회를 연계시키는 도덕 교육의 방안을 구안하고 활성화시킨다. ①

중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심 경 희

(본원 예체능교육연구부장)

현장 중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수업의 일반적인 동향과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일선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의견 조사 결과(성경희, 1993),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 현장의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은 자신이 개발한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87%),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98%에 이르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음악의 여러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음악과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학교 현장의 일부 교사들은 수업 시간마다 수업안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반 수가 넘는 62.9%는 교사들은 성실히 수업안을 작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들이 수업안을 구안하는데 있어서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론이 개발될 경우 현장 수업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업 방법이 대부분 대학이나 연수 등을 통해 배운 학습 방법 이라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 얻은 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음악 교육은 21세기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한국 음악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창의적이며 음악적인 인간 배출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음악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음악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자료의 혁신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음악 수업을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음악과에서는 1993년과 1994년 2개년에 걸쳐 중학교 음악과 수업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 교수·학습 지도 모형과 분야별 수업 모형 그리고 이에 터한 예시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는 작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3년에 수행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으로 나타나, 학문적인 뒷받침이 보완된 효율적인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함께 교사 연수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음악과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음악 교육 실태를 참조하여, 현장 음악 교사들이 쉽게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안 개발을 주 목표로 하였다.

음악과 수업 모형의 특징

본 음악과에서 개발된 중학교 음악과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바람직한 음악 수업의 특징과 수업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음악 수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히고 음악 수업의 기본적인 과정과 절차를 심미적 음악 수업의 관점에서 추출하였다.

둘째, 유능한 음악 교사의 인성과 자질에 관한 요소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음악 수업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음악 교사의 특징적 교수 행위를 음악 교사의 인성, 음악 교사의 언어와 비언어 행위 그리고 음악적 모델 행위의 관점에서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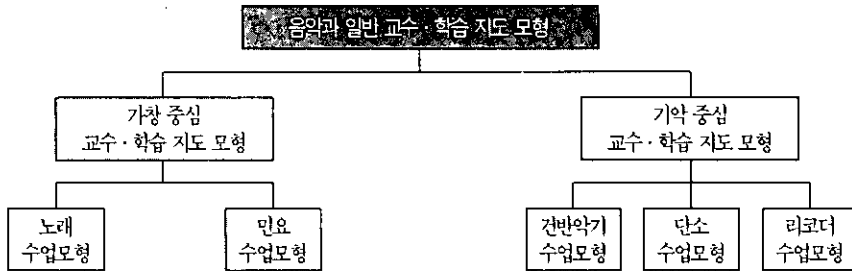
셋째, 현장에서의 중학교 음악과 수업의 실태 및 문제점 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수업 방법의 개발을 위해

현장의 우수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여 효율적인 방법들은 모형개발에 활용하였다.

넷째, 음악과 교수·학습지도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음악과의 일반교수·학습 지도 모형과 영역별(가창과 기악)교수·학습 지도 모형과 함께 분야별(노래, 민요, 건반 악기, 단소, 리코더)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5개 분야의 수업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각 분야의 예시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거친 후 수정·보안하였다.

본 음악과에서 개발한 수업 모형들을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 모형의 유형>

효율성을 높인 음악과 수업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음악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 수업의 일반적인 교수·학습 지도 모형과 영역별 수업 지도 모형 개발에 다음과

- 같은 몇 가지 개발 원칙을 두었다.
- ① 심미적 음악 수업의 본질 추구
 - 심미적인 음악 수업을 원활하게 이끄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
 - ② 융통성과 다양화 추구
 - 교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 ③ 효율성 추구
 - 음악 수업의 효율성 향상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 ④ 자율성과 창의성 추구

—학습 지도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⑤ 실현 가능성 추구

—현실적인 여건과 바람직한 음악 수업의 기본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특히 음악과 수업 모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음악 수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지도 단계가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되었다. 즉 수업 모형의 구성 요소는 크게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그리고 수업 운영 및 지원 체제로 구성하였고, 이들의 각 구성 요소는 수업 모형의 핵심적 절차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수업 모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형의 현장 실험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음악 교사, 음악 담당 장학사, 연구주임 등의 참관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적용 수업 참관시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활동의 수준과 일반적인 반응들이 참관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히 모형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업 단계

수업 단계는 일반 단계와 핵심 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 단계는 미적 감지, 음악 미적 행위 그리고 가치화 단계로 구분된다. 반면에 핵심 단계에서는 심미적 음악 수업 과정을 행할 때 먼저 미적 자극에 따른 미적 감지 단계와 그러한 미적 자극에 이어 전개되는 지각과 반응, 그리고 창의적 표현과 개념화와 같은 다양한 음악 미적 행위들을 포함하는 음악 미적 행위 단계를 포함한다. 마지막 단계는 음악 수업 시간에 경험하고 행한 모든 활동들에 대한 가치 판단과 함께 그러한 경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가치관 등의 발달을 꾀하는 가치화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

나.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와 학생들의 주요 활동부분으로, 미적 자극 활동과 함께 본격적인 음악 수업 활동에 들어 가는 음악 미적 행위 단계의 지각과 반응, 창의적 표현과 개념화 활동이 포함된다. 지각 행위는 미적 자극에 대한 인식이나 기억 그리고 발견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창의적 표현에서는 신체표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휘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 활동이 폭넓게 포함된다. 개념화 활동에서는 음악 수업 시간의 모든 활동을 총정리하여 개념적으로 체계화하는 활동이며, 가치화 활동에서는 음악

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음악 수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다. 수업 운영 및 지원 체제

수업 운영 및 지원 체제는 심미적 음악 수업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교수 방법 및 자료, 그리고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치밀하고 상세하게 구안된 수업 지도안과 풍부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그리고 음악적으로 좋은 시범을 보여 줄 수 있는 교사의 포괄적인 음악적 능력이 포함된다.

둘째,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음악 시간 동안 교사가 유의해야 할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포괄적인 음악성 발달, 학생 위주의 수업 그리고 다양한 음악 미적 경험 및 행위를 장려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시로 좋은 음악적 시범과 통합된 학습 운영과 함께,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등의 지도 방법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평가상의 유의점으로는 다양한 평가 방법 및 도구 활용과 형성 평가의 수시 실시 및 필요에 따른 진단과 총괄 평가 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 단계		수업 목표		교수·학습 활동	수업 운영 및 지원 체제
일반 단계	핵심 단계				
도입	미적감지	미적자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 목표 인지 ○ 선수 학습 연관(진단활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기억 연결 발견 ○ 정서적 반응, 승화된 감정 	교수·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밀한 수업 지도안 ○ 공부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 교사의 포괄적인 음악적 능력 ○ 교사의 포괄적인 교수 능력
전개	음악미적행위	지각 반응 창의적 표현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체표현(기타 표현 방법 포함) ○ 가창 ○ 기악 ○ 창작 ○ 감상 ○ 지휘 		
정리	가치화	가치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의 체계화 ○ 평가 ○ 만족, 긍정적 태도, 애호심 	평가상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음을 기초로 한 듣기, 실기, 자필 관찰, 자기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및 도구 활용 ○ 형성 평가 수시 실시 ○ 진단, 총괄 평가 필요시 실시 	

<음악과 일반 교수·학습 지도 모형>

음악과 일반 교수·학습 지도 모형과 가창 및 기악 중심 교수·학습 지도 모형 그리고 이들 각 모형에 대한 5개 분야별 수업 모형 및 예시 수업안이 개발되었다. 아래에서는 지면 관계상 음악과 일반 교수·학습 지도 모형만을 소개한다.

1994년에 개발되어질 음악과 수업 모형

1993년에 이어 1994년에 개발될 수업 모형은 개념·창작 그리고 감상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 모형 및 분야별 수업 모형으로 이들 모형 개발을 위해 각 영역별, 분야별 교수·학습 지도의 핵심 요소를 추출

하고 수업 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각 수업 모형에 터한 예시 수업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좀더 상세히 제시하면 1) 개념 중심 교수·학습 지도 모형 및 개념 수업 모형 2) 창작 중심 교수·학습 지도 모형 및 창작 수업 모형 3) 감상 중심 교수·학습 지도 모형 및 감상 수업 모형이다.

그리고 분야별 수업 모형에 따른 예시 수업 지도안은 1) 개념 수업 지도안 2) 창작 수업 지도안 2(국악 1, 양악1) 3) 감상 수업 지도안 2(국악 1, 양악 1) 이다.☹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정 재 결

(본원 교육사철학연구부장)

* 이 글은 정재결, 이해명이 연구한 연구 보고서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RR 93-25)를 요약한 것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전통교육이라고 할 때 전통교육의 필요성으로 다음의 4가지가 흔히 거론된다.

첫째는 가치관과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급격한 서구화, 미국화는 전통적인 가치규범과 생활문화의 혼란을 가져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 규범과 미풍양속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

종의 새로운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다.

둘째는 신세대 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염려에서 전통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위의 주장과 같지만 그 대상이 기성세대를 포함한 전체인가, 신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는 차이가 있다.

셋째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의 경쟁심화로 전통문화와 전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프랑스적인 것이 가장 잘 팔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필요성은 주로 기업과

정부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교육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의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분단 반세기의 남북 이질화는 통일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공히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가 쉽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통교육의 강화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듯이, 전통교육은 “교육의 본질 추구”나 “교육정상화”와 같이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존 전통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교육하면 특별활동시간에 장고나 치고 민요나 부르는 것을 연상하듯이, 교과교육 속에서 전통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거의 경주되지 못했다. 이것은 기존의 민족중흥교육, 국적있는 교육, 민족주체성 교육 등의 실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둘째, 교과교육 속의 전통교육이 상호연계를 갖지 못하고 교과의 논리에 매몰되고 말았다. 국사시간에 배우는 이기론(理氣論)은 음악시간의 박자와 미술시간의 문인화 감상과 상호 연계되어 가르쳐져야 하는

데, 이러한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육 속의 전통교육은 특별활동이나 기타 학교행사 속의 전통교육과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다. 특별활동이나 학교행사에서 그저 제기차기나 연날리기 등만 열심히 하면 전통교육 시범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간주되곤 했던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에서 자주 사용된 “관련”, “연계” 등의 단어가 나타내 주듯이 전통교육의 문제는 한마디로 전통문화를 어떻게 체계화하여 교과간 혹은 여타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전통교육의 개념과 내용

전통교육의 개념에 대한 혼란은 전통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전통의 범주에 대한 논란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전통의 시대적 하한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한 가지는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전통 속에 내재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문제는 상대

적인 것이다. 즉 고려 중기 이전의 민중들이 향유하던 고유문화가 “더 전통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타의 것들이 전통문화가 아니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의 범주를 개항기 이전, 지배집단의 중국문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교육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과 관련하여 세계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통문화 자체가 현대문화로 계승 발전된 유형이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이 유형에 속한다. 반면 전통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서구문화가 부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형이 있다. 인도나 스리랑카, 회교권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와 서구문화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또 한가지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전통교육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 혹은 한자문화권의 독특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교육의 내용은 전통문화이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기존의 전통문화를 열거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①한국학적 분류 ②민속학적 분류 ③전통적 분류 ④교육학적 분

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방식을 종합하여 전통문화를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제적 전승문화로 분류하였다. 전통적 세계관이란 우리 조상들이 사람의 삶과 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 삶과 죽음의 문제, 우주와 삼라만상의 형성을 어떤 인식들에 의해 파악했는지를 말한다. 상호습염(習染)으로 기본개념의 상당부분이 중첩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시 유교적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 도교적 세계관, 무속적 세계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관을 이루는 기본개념을 살펴보면 유교적 세계관은 이(理), 기(氣), 성(性), 정(情), 정심(正心), 환연관통(豁然貫通) 등이 열거될 수 있고 불교적 세계관을 진여(眞如), 무명(無明), 아뢰아식(阿賴耶識), 종자(種子), 훈습(勳習), 선정(禪定), 해탈(解脫) 등의 개념이, 도교적 세계관은 정(精), 기(氣), 신(神), 복기양성(服氣養性), 동기감응(同氣感應) 등의 개념이, 무속적 세계관은 무(巫), 강신(降神), 영혼(靈魂), 셋김 등의 개념이 핵심적인 것으로 열거될 수 있다.

전통적 생활문화란 우리 조상들이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영위했던 문화를 말한다. 그 내용들은 기존의 교육과정 속에 분화되어 들어 있다. 예컨대 도덕과에서는 전통적

가치규범과 예절이 국어과에는 한문학, 향가, 시조, 가사, 소설, 신화, 판소리, 무가, 언어와 문자들이 들어 있다. 사회과에는 국토의 지리적 배경, 관혼상제, 가족과 친족의 범위, 정치, 경제 등의 각종 제도를 다룬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사과에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통문화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재적 전승문화는 전통적 생활문화와는 달리 전통문화가 옛 모습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적 전승문화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한가지는 세시풍속과 전승놀이로 명절이나 계절과 관련된 풍속과 놀이이다. 최근에 상업주의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하는 날들이 생기긴 했지만 명절과 관련된 풍속과 놀이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를 전통교육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노래와 연주와 춤이 한마당으로 들어 있는 음악과 무용 분야이다. 음악은 크게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은 다시 노래가 포함되는 성악과, 노래가 아닌 연주만 이루어지는 기악으로 구별된다. 궁정음악의 기악에는 제례악, 연례악, 군악 등이, 성악에는 악장(樂章) 포함된다. 민간음악의 기악에

는 무악(巫樂), 농악(農樂), 산조(散調), 정악(正樂)이, 성악에는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詩調), 좌창(座唱), 입창(立唱), 창악(唱樂), 민요(民謠), 범패(梵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무용은 제례악과 함께 시연되는 의식무(儀式舞), 연례악이나 지방관아의 연향에서 시연되는 정재무(呈才舞), 탈을 쓰고 하는 각종 탈춤과 동제와 마을굿에서 이루어지는 민속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악과 무용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음악의 독특한 박자를 익히는 것이다. 박자란 호흡에 의해 이루어지며, 악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고 있거나 장단 속에 들어 있는 숨구멍을 찾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국악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적 전승문화의 세번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미술과 공예분야이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문인화, 고분벽화, 불교미술, 무신도(巫神圖), 민화, 서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화각공예, 나전공예, 지(紙)공예, 자수공예, 초고(草藁)공예, 매듭공예 등이다. 미술과 공예분야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직접 그것을 해보는 것이다. 예컨대 문인화의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정신과 물질의 결합으로써의 수묵사상, 글과 그림의 관계, 화가가 체험하여 표현코자 했던 기

운생동(氣韻生動)을 이해해야 그 그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유적과 유물이다. 유적과 유물은 크게 건조물, 서적, 고고자료, 유적 등으로는 구분할 수도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유홍준 교수가 우리 국토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했듯이 유적과 유물은 전국 어디를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적과 유물을 직접 찾아보고 감상하는 것은 꼭 국사과와 관련된 학습만은 아니다. 절 벽에 그려진 십우도(十牛圖 혹은 羴牛圖)를 보고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무덤의 위치나 주변 지세를 관찰함으로써 전통적 풍수지리를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교과서 속의 전통문화

현재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문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덕과 교과서에 포함된 전통문화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규범, 덕목, 가치관에 관한 것으로 세 가지 범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조상들이 훌륭함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내용이며, 세번째는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통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한가지는 전통적 윤리나 가치규범이 윤리규범의 보편성의 논리에 터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 그 한가지이고, 또 한가지는 전통적 윤리의 토대가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 이웃생활이라는 인간관계 속의 윤리에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국어과 교과서에 포함된 전통문화의 내용 또한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래동화와 고전 문학 작품을 실어 놓은 것이며, 둘째는 우리말의 역사와 어원, 옛모습에 관한 설명문을 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민속놀이, 생활풍습 등 전통문화의 특성을 설명, 해석하거나 그 우수성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설명문, 고적탐방기 및 논설문을 실어 놓은 것이다. 이 세번째 범주, 즉 전통문화에 대해 현대의 필자가 쓴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객관적이고 통설화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국어과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전통문화가 제대로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고전문학 작품이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소개되어

야 한다.

사회과에서 다루는 전통문화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지리적 역사적 사실 및 현상이다. 즉 문화재의 종류와 가치, 생활풍습, 의식주 생활, 여가생활, 학문과 기술, 종교생활, 예술활동, 윤리와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고등학교 국사과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전개 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사회 및 국사과 속에 포함된 전통교육의 문제는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보다는 그에 대한 해설과 의미부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에 앞선 일방적인 찬양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체육과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내용은 민속놀이(교육과정상의 용어로는 민속운동)와 민속무용이다. 민속놀이에는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씨름, 태권도, 궁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속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요에 맞추어 춤추기, 탈춤, 농악, 강강술래 등이다. 전통교육의 측면에서 본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속놀이나 운동에 할애된 내용이 지나치게 적으며 거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도입된 운동 종목을 소개하는데에 할애되

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속무용에 포함되어 있는 탈춤이나 농악들은 체육과 수업시간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과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문화는 표현 영역에서는 주로 민요와 전래동요를 다루고 있고 감상영역에서는 전통음악사, 전통기악곡과 성악곡, 전통악기와 그 연주법, 옛음악가들의 내용들이다. 감상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내용은 전통기악곡과 성악곡인데 기악곡으로는 수제천, 산조, 영산회상, 시나위, 여민락, 농악, 대취타, 제례악을, 성악곡으로는 시조, 가곡, 가사, 판소리, 단가, 창곡, 병창, 잡가, 범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음악과의 경우도 체육과의 마찬가지로 전통음악의 비중이 서양음악에 비해 극히 적으며, 주로 표현영역보다는 감상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전통악기 연주나 노래 등을 실질적으로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미술과 또한 표현, 감상영역으로 구성되어 표현영역에서는 수묵화, 전통공예, 서예 등이, 감상영역에서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미술사, 전통미술에서의 자연과 조형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 내용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고등학교 한 교과서에는 총 246 점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중 전통미술 작품은

겨우 33점에 불과하다. 양적인 비중도 문제이지만 내용 구성 자체가 서구 미술의 언어와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통미술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실업·가정 교과서에는 전통문화의 내용 소개가 거의 없다. 단지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한복 만들기 와 한복 잘 입는 법, 전통 상차림, 명절 음식 및 기타 몇가지 음식 만들기 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수학·과학과에는 전통문화의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포함되어야 하는 태극설, 음양오행, 전통역법 등은 전통 사회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세상을 지각하고 설명했던 인식틀로서 전통문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교육의 개선 방안

전통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전통문화의 세 범주인 전통적 세계관과 전통적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재적 전승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인가? 전통적 세계관이란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인식틀이다.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인식틀이 있어야 전통적 생활문화와 문화재적 전승문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통적 세계관은 전통적 생활문화나 문화재적 전승문화를 이해한 뒤에 자연스럽게 연계

되는 것이다. 전통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러한 세 범주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전통적 세계관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단원을 도덕과에 신설하고, 전통적 생활문화는 기존 교과간의 재배분, 일부항목의 내용 추가, 전통적 세계관의 기본개념과 연계 등의 방법으로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가르치며, 문화재적 전승문화는 담당실기 교과에서 비중을 높여 직접 체험케 하는 것이다.

전통적 세계관을 직접 소개하는 단원은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등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단원명을 예시하면 “기(氣)의 세계”, “산사(山寺)의 하루”, “참선(參禪)”, “선비정신”, “동의학”, “음양오행”, “풍수지리”와 같다. 전통적 생활문화의 교과간 재배분은 모든 교과 공히 전통문화를 해설하거나 예찬하는 내용 대신에 직접 생활문화 자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수학과나 과학과 속에 전통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토록 하는 것이다.

문화재적 전승문화는 실기 교과 속에 그 비중을 증가시키고, 노래, 연주, 무용, 놀이, 수묵화, 서예,

공예 등의 내용들을 모두 표현 영역에 포함시켜 직접 체험토록 해야 한다. 감상영역에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연계 되는 호흡, 기운생동, 신명, 태도와 마음가짐 등이 전통적 세계관의 기본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통교육의 세 범주, 즉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문화재적 전승문화는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문화재적 전승문화이며, 이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체험은 음악, 미술, 체육등의 실기교과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및 학교 행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운동회나 소풍 등의 학교 행사를 전통문화를 시연하는 축제의 한 마당으로 운영하거나, 마을의 동제와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 기획·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직하다. 또한 극기훈련 등으로 이용되는 청소년 야외 수련원에서 참선, 단전호흡, 단군신화 재현의식 등을 행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전통체법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㉞

공격행동의 유발요인과 매체폭력의 영향

정진종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사회에서 권장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회에서 금지하는 행동이다. 보통 전자를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라 하고, 후자를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이라 한다. 대인간의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으로는 이타 행동(helping behavior)을 들 수 있고,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는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격행동은 그것이 신체적인 공격이든 언어적인 공격이든간에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인간의 반목질서와 쟁투, 증오심과 분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상이한 계층의 갈등과 대립, 끔직한 범죄와 살인사건, 극심한 인종차별과 전쟁, 그리고 인류멸망을 재촉하는 핵무기 개발 등 인간이 가진 공격성은 실로 단순한 갈등과 대립에서부터 심각한 적대감과 증오, 심지어는 살상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대중매체에서는 지존파 사건, 가정폭력(아내 구타, 아동 학대), 성폭행, 운동경기장에서의 폭력 고조, 아동 TV 프로 및 VTR의 폭력난무, 음식물에 농약 투여, 동물학대에 따른 인간의 잔인성 및 각종 폭력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그 내용이나 문제의 성질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격행동의 양태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아진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력과 공격은 숨을 들이 쉬고 내쉬는 것만큼이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인간의 공격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인간으로 하여금 공격행동을 유발케 하는 요인 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같은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공격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찰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 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바로 공격행동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mechanism)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공격행동과 그에 따르는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공격행동 등을 억제하는 조건들은 물론 공격행동을 촉진시키는 조건들도 발견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폭력과 적개심을 포함한 인간의 공격성 문제는 각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밝혀 보려는 시도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의의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 공격행동의 유발요인에 관한 이론적 입장과 심리학적 교육학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TV와 영화 등 매체폭력의 영향을 공격행동의 유발과 관련하여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공격행동의 유발요인

일반적으로 공격행동이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형태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공격행동을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동기와 학습」 외

정 종 진



인간으로 하여금 유발토록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이론과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요인으로 요약 설명해 볼 수 있다.

1) 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공격행동은 생존과 함께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호르몬 분비와 신경생리학적 흥분 및 본능이 공격행동을 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능설을 취하는 정신분석학자 Freud는 공격성은 죽음의 본능이 자신의 자아파괴를 피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려는 시도라고 보았으며, 비교행동학자인 Lorenz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서 동족의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투쟁본능이 있으며, 이 공격적 에너지가 여러 가지 행동형태들을 통해 규칙적으로 발산되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되어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없을 때에도 표현된다고 보았다.

2) 목표획득에 간섭을 받거나 방해를 당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상태를 욕구 좌절이라 하는데, 이러한 욕구 좌절은 그 반응형태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격행동의 한 중요한 자극 요인이 된다. 특히 공격적 단서가 있거나 욕구 좌절이 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욕구 좌절이 공격행동과 직접 이어질 수 있다.

3)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공격행동이란 모방과 강화에 의해서 영향받는 학습된 반응이라고 본다. 즉,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혹은 자신이 한 공격적 행동에 대해 강화를 받음으로써 공격적이 되기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격행동이란 공격적인 모델의 관찰을 통한 모방과 그에 따르는 강화의 학습기체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4) 공격행동은 개인이 처한 상황적 특성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더위의 효과, 약물의 역할, 공격에 대한 책임을 확산시키거나 잠재적 피해자를 비인간화시키는 상황 등, 권위에 대한 순종을 촉진하는 상황들, 성적(性的)으로 흥분시키는 환경 등과 같은 상황적 조건들이 특수한 상황들에 따라 공격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5) 공격행동은 개개인이 독특하게 가진 일반화된 성격특성에 따라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경우 공격행동자가 속한 성격유형, 그리고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인물과 평범한 정상인 사이의 성격특성의 차이를 탐색해 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금지 혹은 억압되고 있는 공격성이 여러 상황에 걸쳐 표출될 때, 이는 개인이 가진 반응경향 또는 동기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화된 개인의 독특한 성격특성에 의해 공격행동이 촉발될 수 있다.

6) 공격행동의 표현여부에는 분노, 절망, 증오감과 같은 개인이 가진 감정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개인이 공격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귀인과정이나 도덕적 추리와 같은 몇가지 인지적 해석과 판단이 개재하게 된다. 개인 내적 변화인 이같은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공격행동 유발에 매개변인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2. 매체폭력의 영향

지금까지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그간 심리학적 교육학적 논쟁거리가 되어 온 매체폭

력의 영향에 둘러 공격행동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혹은 비디오를 통해 폭력장면을 봄으로써 대리적으로 공격을 표현하게 되면 공격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은 환상적 배출구를 통해 긴장을 감소시키는가? 아니면 폭력적 행동을 모방케 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공격성을 유발시키는가?

정화이론에서는 폭력적인 영화나 TV를 관람하면 정화 효과(catharsis effect, 실제로 공격행동을 하고 나면 공격충동이 해소되어 가슴이 후련해지고 그 후에 공격행동이 감소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정화 효과라 함)가 나타나서 공격충동이 해소되므로 관람자들의 공격행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적인 영화나 TV의 관람에 의해 공격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공격행동 자체와 공격방법에 대한 모방이 일어나 탈억제 효과(disinhibition, 공격행동을 하고 난 후 기분이 언짢아지고 더 화가 나서 공격행동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탈억제효과라 함)가 나타남으로써 관람자들의 공격행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매체를 통해 관찰된 공격이 다른 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공격적 충동들을 위한 정화의 수단 구실을 하는지(환상적 배출구를 통해 공격적 긴장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 입장), 아니면 다른 공격의 촉매(강화)작용을 하는지(폭력적 행동을 모방케 함으로써 공격행동을 유발시킨다는 부정적 입장)에 대한 쟁점에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지만, 이 방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제를 통해서 매체에 의한 폭력시청이 공격행동을 증가시키는가?

첫째, 공격적인 행동양식을 가르침으로써 공격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나 십대가 똑같이 TV에서 본 폭력행위를 모방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TV 프로에서 본 공격방법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이다. 성인범죄자들 역시 TV에서 나온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기술을 숙달시킨다고 한다. 경찰들도 많은 폭력범죄가 TV의 프로를 보고, 이를 모방하려는 심리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둘째, 흥분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격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아동들이 폭력적인 TV 프로를 볼 때 전기피부반응을 측정해 보니 비폭력적 프로를 볼 때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흥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람이 이미 좌절해 있거나 화가 나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온 정서적 흥분때문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폭력에 대해 타성이 생김으로써 공격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면 정서적으로 흥분되지만, 그런 폭력적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그들의 생리적 반응은 감소된다. 그리하여 영화를 통해 실제 사건이든 혹은 가공의 폭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이에 따라 감정이 둔감화되어서,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그를 도우려는 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공격행동에 대한 제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공격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자신을 자극하거나 해친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나고 그들을 해치려는 충동을 가지지만 죄책감, 보복에의 공포,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같은 많

은 제약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제약들이 약화된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 행동을 해서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적개심을 나타내기 더 쉽다.

다섯째, 갈등해결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공격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TV나 영화에서는 대인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신체적인 공격이 다른 방법보다 훨씬 자주 사용된다. 주인공들이 살인하는 장면이나 좋은 편이 폭력으로 나쁜 편을 이기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도 한다. 대부분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프로들이 실제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정도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어른들도 TV때문에 그들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왜곡되는 것을 간혹 발견할 수가 있다.

3. 교육적 시사

공격행동의 유발인과 매체폭력의 영향에 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해 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몇가지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격행동에 대한 본능설이나 욕구좌절-공격 가설에서 볼 때, 공격에너지나 욕구를 무조건 억압하기보다는 적절한 배출구를 마련하여 파괴적인 충동의 해소 또는 심리적 강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2) 인간의 공격성향은 사회 문화적 규범 내지 관습과도 커다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각종 폭력과 공격행위

가 금지 억제되는 사회 혹은 문화보다는 이러한 폭력과 공격행위가 묵인 촉진되는 사회 혹은 문화에서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전반적인 공격행동의 허용적 분위기는 아동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탈억제효과를 유발하여 공격행동의 표출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각종 폭력이나 공격행위를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일 등의 금지, 즉 폭력이나 공격행위를 용납 않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3) TV와 영화 속의 폭력에 대한 모든 연구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은 폭력이 관찰을 통하여 모델링될 수 있을 때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등장인물에게 갈채를 보내는 그들의 부모를 관찰함으로써, 문제해결에 폭력적 방법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TV, 영화, 만화, 비디오 등을 통한 폭력물, 전자 오락 게임에서 쏘고 때리고 부수는 등의 각종 폭력적인 장면들, 그리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자극물 등이 폭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촉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각종 매체들은 긍정적 태도나 협동적 행위를 묘사하는 프로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방영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사회봉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공격행동의 문제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면 부모가 지니는 태도와 신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또는 종속적 존재로 잘못 지각한 나머지 부당한 인격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부모-자녀 간에 일종의 분화되지 않는 공생(공생)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데에 뚜렷이 나타난다. 주목되는 점은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어린시절에 관한 연구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부모 자신이 학대를 받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개인이 갖는 공격적 특성은 어린 아동기부터 양육과정과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에서 부부갈등이나 불화가 높다는 것이 자주 보고되고 있으며, 부부 논쟁의 해결을 위해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공격적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은 아동훈육에도 같은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젊은 부모, 부모가 되기 전의 젊은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역할훈련(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이같은 강좌를 설정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직하다.

5) 공격행동은 충동적이며 여러 종류의 일시적 자극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구타에서 살인에 이르는 많은 행동들에서 그러하다. 공격행동이 개인의 일반화된 성격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종류의 자극들에 대한 공격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열쇠를 공격이 우세한 반응이 되지 못하게 막는 비공격적 습관이나 성향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공격적 성향이나 특성이 잠재되어 있거나 두드러지는 학생들을 찾아, 이들의 공격적 성향을 비공격적 성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각종 행동수정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투입할 필요가 있다.

6) 공격적 행위를 단념시키고 TV나 영화를 봄으로써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나쁜 간접적 효과를 균형있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비공격적 행동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공격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교양시켜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어떤 행동(흥치고, 위협하고, 비난하는 것 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느낌의 영향을 토론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동질성을 강조하고, 협동을 증진시키도록 집단활동을 마련하고, 소설, 전기문, 신문, 영화 등으로부터 함께 나누어 가지는 습관과 협동에 대한 예를 제시해주고, 아무런 갈등없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토의하고 향상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며,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는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때때로 긍정적 사회행동에 대한 예를 다루고 있는 책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을 비방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부정적 생각을 가진 6학년 학생들에게 남을 비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를 강조하는 책 한 권을 독서과제물로 선정하여 지도한 결과 학생들이 상당히 건설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행동을 교양시켜 주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㉞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 북한교육

한 만 길



* 이 글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세미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후, 그 소감을 적은 것임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

내가 본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사회주의 체제와는 너무도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변화하듯이 사회주의 체제도 변화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고정된 틀에 얽매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북경의 모택동 기념관에 몰려드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국 사회주의와 모택동은 영원히 12억 인민 속에 살아 남아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박물관 공사관계로 인하여 관람을 못하는 대신, 모택동

기념관을 들어서려니, 몰려드는 인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였다. 이 문구야말로 중국 국민들에게만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대 여섯줄이 1km이상 줄지어서 한시간 이상을 기다린 뒤, 나는 수정관에 안치된 모택동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지나쳐 볼 수 있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또 다시 그 인파 속으로 묻혀 버렸다. 이제 나는 이념 속의 모택동에서 나와 현실 속의 중국을 보게 되었다.

상해의 시장은 개발을 선도하는 상업도시답게 활발한 모습이었고, 북경의 국영 백화점과 개인 상점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영 백화점에서는 손님이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 살려면 사라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개인 상점은 하나라도

팔아 보려는 자본주의 시장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연결시에 있는 길상시장도 우리의 지방도시에서 벌어지는 난장과 같이 시끄럽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연변대 방민호 교수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 중국 사회주의의 과제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려면 우선 소유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종래의 공유(公有), 국유(國有)의 소유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유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개인기업, 외국기업, 합작기업을 인정하고 농산품, 공산품의 시장형성뿐만 아니라 금융, 노무, 부동산까지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토지 소유제도의 개혁이다. 토지는 국유제를 중심으로 종래에는 인민공사에서 공동 경작하였으나 개혁이후 모든 토지는 개인에게 도급형태로 분배되었다. 이제 농촌에서의 개혁은 농민들의 토지도급기한을 연장하고, 나아가서 도급받은 토지의 계승권과 양도권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토지의 계승권과 양도권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매매까지 허용한다면 사회주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시간에 사회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중국 사회를 과연 사회주의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방민호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사회주의체제는 하나의 틀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역사적 과정에서 변화 발전하는 것이라 하였다. 과거의 사회주의는 과거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고 현재의 사회주의는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 모습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사회주의의 본질은 중국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산당의 영도'와 '국가 전체의 공동치부'를 추구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는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틀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모택동의 혁명사상에서 벗어나 중국은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그 이념의 방향이 어디이고 체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중국사회주의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이 표방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중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었다. 12억 중국 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방과 개발을 통한 경제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개방된 이래 지난 10여년에 걸쳐 중국의 경제력은 놀라우리만큼 발전했다는 것이 중국인 자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정책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면모와 불투명한 장래도 지나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여행 중에 목격할 수 있었던 중국사회의 문제는 빈부격차, 관료주의, 치안불안, 사회질서의 혼란 등 심각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개방사회에서 보는 사회병리 현상이 누적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사회주의 개혁의 길이 결국 자본주의로의 수렴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 길이 어디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중국에서 본 북한

중국을 여행하면서 북한을 접할 수 있는 지

· 공주시대 교육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본원 선임연구원
· 「교육이란 무엇일까」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의

한 만 길



역은 역시 북한에 가까운 연변지역이었다. 연변대학 세미나에서 통일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북한을 다녀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북한 땅을 멀리에서나마 바라볼 수 있었다.

연변지역에서도 교포들은 김일성 사망과 남북정상회담의 무산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연변대의 최 교수는 김일성 사망 이후 남한 정부의 태도와 언론 보도에 유감섞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 교수의 견해는 북한의 김정일 권력체제는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최근의 남북관계를 볼 때 통일의 길은 매우 요원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북한의 장래가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김정일의 권력 승계는 지난 20 년에 걸쳐서 완성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도 일단은 김일성의 정치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다소간의 변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백하에서 동화까지 밤새도록 열차 여행을 하는 사이 우연하게 만난 목포 출신의 유 노인은 한반도와 중국의 정세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보여 주었다. 심양에서 고급중학(고등학교)교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한 그는 남한의 경제발전과 민주정치 실현에 대하여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북한문제에 관해서 그는 김정일 권력이 안정되어 지속될 것이며, 북한도 결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일 체제는 우선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악점을 지적하면서 남북한이 협력해서 통일만 성취한다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국가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통화에서는 남북한에 친척을 둔 가게 점원을 만났는데, 북한 친척이 3 년전에 자기 집을 방문한 바 있었고, 자신이 남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작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북한의 사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친척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돈을 모아 많은 물품을 사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친척을 둔 북한 주민은 특히 혼사 준비를 위해서 중국 친척을 방문하는데 그 때 혼수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나는 여행 중에 북한지역을 멀리에서나마 세 번 바라볼 수 있었는데 천지와 두만강 건너편의 북한지역과 압록강 넘어 만포시를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천지의 신비스런 새벽은 잊을 수 없다. 새벽공기를 마시며 장백 폭포 옆의 등산로를 따라 천지에 다다랐을 때, 천지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안개 속에 덮여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차갑다 못해 시려오는 천지 물에 손을 담근 채,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해 보았다.

짚차를 타고 천문봉에 올랐을 때는 천지 전체가 안개 속에서 묻혀 있다가는 잠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곤 하였다. 멀리 북한쪽으로 산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아스라이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백두산 자락을 오르내리며 민족의 정기를 간직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나도 잠시 감회에 젖어 보았다. 그러나 우리 땅 백두산이 아닌 중국 땅 장백산을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장백산을 내려와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을 지나 치면서 우리 땅 백두산을 등정할 통일의 그날을 기원하면서 일행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러 보았다. 그러나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감상에 휩싸여 노래를 제대

로 이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고구려 유적지를 보기 위하여, 통화에서 집안까지 165km의 비포장도로를 5시간 동안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는 호태왕비, 장수왕릉, 고분벽화에서 고구려인의 호방한 기상에 감회를 적시며, 압록강 푸른 물에서 기나긴 여독을 시원스레 풀 수 있었다. 우리가 중국지역 강변에서 수영을 하는 동안 강 건너 북한쪽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차를 하면서 목욕하고 있었다. 이 때 동행한 황 교수의 책기와 감상이 터져 나왔다. 강 건너에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야 반갑다’하니까 저쪽에서 ‘야 누구나 새끼야’라고 응답하지 않는다. 황교수는 그들이 젊은 군인들인줄만 알았다가 성인인줄 알고는 이번에는 ‘어 반갑소’ 하니까 저쪽에서 이번에는 ‘반갑소, 어디서 왔소’하는 것이었다. 남북간의 대화도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속담이 역시 우리 민족에게는 통하는가 보다.

압록강 건너 북한쪽에는 만포시가 있는데 인구 10만 정도되는 공업도시라고 한다. 뒤에 귀순인사 임정희씨가 만포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다녀왔다고 알려 주었더니 자기도 중국의 집안이라도 가서 강 건너 만포를 바라보아야겠다고 하였다. 강변에는 국경 경비대의 흰색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고 언덕너머로 3~4층짜리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데, 최근에는 10층짜리 아파트도 짓는다고 한다. 산 언덕에는 허름한 하모니카집(군인 막사처럼 길게 이어서 지은 다세대주택)이 보이고 언덕 위로는 다락밭(계단식 밭)이 산허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북한의 산악지대는 농경지가 부족하여 야산에 다락밭을 일구고 그곳에 옥수수를 재배한다. 다락밭 위의 산허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

히 관찰하자’는 구호가 멀리에서 가물거리고 있었다.

중국에서 만나본 모든이들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 북한도 개방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북한교육의 변화 전망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중국에서 보는 바와같이 김정일 체제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타당하다면 김정일 체제의 북한 교육에 전망해 보는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을 것이다. 먼저, 김정일은 북한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미 10여년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북한이 영재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 김정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의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교육이 우월성’이라는 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 분야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84년에 북한 교육의 주요 정책을 ‘전국교육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천명한다. 이 문건에서는 이미 1977년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교육의 주요 정책을 재천명한 것이어서 새로운 내

용은 거의 없지만 김정일이 교육자를 대상으로 후계자로서 부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중국에서 수집한 '사회주의 교육학', 최신판에서는 '김정일 지적'이 각 장과 절의 서두에 '김일성 교시'와 함께 빠짐없이 명시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일 지적'이 '김일성 교시'보다 더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김정일 후계구축 작업을 교육부문에서도 상당히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직접적이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교육학에서는 '교육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김정일 지칭)의 의도대로 사교하고 행동하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고 끝까지 혁명하겠다는 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는 다름이런 수령의 후계자의 지도체제'라고 하여 김정일 후계체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정일이 집필하여 발표한 '사회주의를 위하여'(1993),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1994) 자료에 의하면 김정일 체제의 교육정책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주의 교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로 복귀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 앞장서 있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할 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쟁취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사상교양 우선 정책은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른 북한 체제의 위기이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적 침체에 따른 위기이다.

'사회주의를 위하여'에서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업적으로서 문맹퇴치, 전반적 무료의 무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고등중학교 졸업정도까지 완전 취학을 들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 목표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 교육은 김정일의 정책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변화의 핵심은 교육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점과 부분적이거나 개방에 대비하는 교육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로 북한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여전히 강조할 것이며, 여기에 부가하여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대대적인 이상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에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철저히 내면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둘째로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중시를 들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개방정책을 통하여 외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무역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방정책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교육,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사상교양과 대외적인 개방에 대비하려는 교육 사이에는 상호 모순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서 세뇌와 각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이러한 모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거리라 할 수 있다. ㉞

미국의 기업교육 동향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신 익 현

최근들어 기업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교육의 발전이라는 이해선상에서 학교교육의 실용적 측면의 확대라고 승화시킬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전공이 아닌 일반 교양 또는 기초에 속하는 읽기, 쓰기, 의사소통능력 등의 '직장인을 위한 기초 능력'을 강조하고 다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이제 학교가 양성한 인력을 소극적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국면에서 벗어나 직접 기업 목적에 맞는 인력을 기초부터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훈련을 활발하게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함께 나누어 가졌던 역할 균형점이 무너지거나 역할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학교와 기업간의 관계는 인력의 공급자와 교육된 인력의 사용자의 관계였다.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교육 주체가 되고 기업은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양상이었다. 그러나 환경의 빠른 변화와 함께 보다 기업목적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기업은 학교교육과는 독립적인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및 교육훈련 목적 등을 살펴보고, 학교교육이 소홀히 해 온 교육 주체로서의 독특한 역할 회복의 참고자료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학교

조직도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인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쇄신 또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훈련개발회 (ASTD: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는 한 조직의 당면과제는 다른 조직의 당면 관심사라는 전제와 몇몇 조직이 이미 놀랄만한 방법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생애개발·교수 기술·국제관계관리·관리개발·조직개발·판매와 마케팅·기술과 기능훈련 등 일곱 가지 영역에 대한 최근의 발전상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자 국제회의를 추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앤하임에서 '발전'이라는 모토아래 열린 이 회의에서는 기업교육에서 증명된 실제·첨단 정보·접촉·네트워크·개선된 직무 기능·현업에서의 학습에 대한 국제적 이해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들을 교환하기 위한 250 가지 워크숍과 분임회의가 제공되었다. 여러 관심사가 집결된 가운데, 학습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 활성화와 재충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 훈련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지원체제로서의 교육훈련의 이해, 교육훈련 대상으로서의 개인능력의 신장,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기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목적의 달성에 필요로 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기업목적의 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기업교육은 길러낸 인력이 기업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STD 회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조직 차원에

·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졸업
 ·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원 선임연구원

신 익 현



서의 학습하는 사회'에 대한 것이다. 학습하는 조직을 생동감있게 정의하고 그 조직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그려내기 위하여 1992년 17개 조직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기업의 학습전략· 학습상의 장애· 학습평가결과· 학습하는 조직을 지배하는 원리 등을 파악하고 그 전망점과 실제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개방적 학습을 활용하는 영국의 대영철도회사, Prentential, The Burton Group의 세 회사들의 경험과 교훈을 살펴보고 그것을 직무 수행 지원에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 노력과 함께 인간자원개발팀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과 인간자원개발 활동의 수월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자원개발의 현재와 미래 전망들을 살펴보고, 교육훈련이 현장기술의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가 가치를 산출해 내는 '의의적 절하고 내용이 합당한'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행하는 교육훈련 모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도의 고객중심 교육훈련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절약을 강조하던 비용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의 질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고객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교육훈련을 조직의 활성화와 재충전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ASTD는 인간자원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직변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조직이 미래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전략들을 도모하

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직 변환을 가능케 하는 좌표점 설정 (Benchmarking)과 교육훈련 전략 탐색을 위한 혁명적인 교육훈련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변화는 조직 성원들의 상향적 출력화 (Empowerment)를 통하여 더욱 증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을 재충전하고 조직성원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조직이 인간자원을 판매, 재정, 운용, 마케팅 등의 기업활동과 연결지어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활동과 역할을 적절하게 전개하는 전략적 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조직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 변화 내용과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역할 인식훈련을 통하여 과거에 사용되었던 교육훈련 방식들이 지금에 와서는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있다. 또, 조직 문화 개발에 필요로 되는 변화 진단 모형을 통하여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체제중심교육계획을 소개하고, 고위관리자가 이 변화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방법을 제의하고 있다.

조직가치가 분명할수록 조직성원은 출력화되고 긴장 가운데에도 본능적으로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의미있는 조직가치가 존재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조직에든 조직성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조직이 가치 중심 비전화를 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조직 재활성화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재사고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Fortune지에 소개된 200개 기업들이 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기업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방법들을 소

개하고 있다.

조직성원이나 조직 모두가 사고전개 및 상황분석에 보다 더 혁신적인 필요가 있다. 이때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필요로 된다 할 것이다. 조직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도전이 지속적으로 살아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게 될 변화와 위기를 고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ASTD국제회의는 인지된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내재하는 위협요소들을 극소화하며, 실패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제 과정을 주도해 나갈 태도를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위기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창의성이 필요로 되는 이유를 확인시키기 위한 창의성 관리 및 위기관리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기구나 조직의 축소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ASTD회의는 파산이나 축소를 하게 된 조직이 이와같은 변화의 시류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변화 요구들을 수용 또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훈련이나 인간자원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구 축소로 해서 사기가 저하된 조직이 정책이나 절차, 행동규범, 가치, 윤리 등을 종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조직이나 기구의 축소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파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확인하고 교육훈련이 반응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적극적인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다. 조직성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거나 충성심이 결여될 때 조직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선에서라면 조직성원들이 해고를 당한 후에도 조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

다. ASTD는 인간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교육훈련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직무수행 지원체제로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존재가 인식되고, 그 체제를 기획·구축하며, 직무수행 기술을 훈련·개발하는 노력들이 교육훈련의 주요내용이 된다. ASTD회의는 교육훈련 지원과 직무수행 지원간의 차이를 밝히고, 학습과 직무수행에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직무수행상의 격차와 격차발생 이유를 점검하고 혁신적인 직무관리 방식을 제시하며, 조직이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로 되는 혁신적인 교육훈련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식중심 훈련에서 수행중심 훈련으로의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려고 애쓰고 있다. 뿐만아니라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 교육훈련 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관련지우는 OJT의 구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직무수행 개선전략과 학습하는 조직의 팀효과성을 높여 주는 체제 접근 방식을 탐색하며 조직 속에 존재하는 Synergy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 안에서 범기능적 패러다임을 조직하며, 팀성원들간의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새로운 직무나 과업이 생성되었을 때 그 직무나 과업의 수행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시중분석을 기획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습하는 조직이 직무수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올림픽 육상팀이 활용한 주요원리나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직무수행중심 체제에 심리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 ASTD회의는 표준화된 직무수행 평가방법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있다. 교육훈련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다영역 평가도구인 '360도 피드백도구'라는 통합적 직무수행관리도구를 사용하는 DuPont, Allied Signal, Royal Bank of Canada, TRW와 같은 회사들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성원은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재충전을 추구한다. 또 변화를 시도할 때 자기 관리를 필요로 한다. 조직성원은 조직의 구성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동시에 조직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ASTD회의에서 표출되고 있는 개인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크게 자기개발과 생애개발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기능을 습득하는 동시에 고도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팀중심모형이 제시되기도 하고, 작업현장 기본기능 모형으로 워싱턴주에서 개발한 기업·정부·교육계와의 협조체제가 소개되고 있다. 또 Buick 자동차 회사가 실시한 자기지시적인 팀중심지식의 활용결과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기술이 일상적인 생산관리와 완벽하게 통합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형태의 지식이 작용하게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팀중심지식이 필요한 순간들을 확인하고 있다. 자기지시적인 작업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Toyota자동차 회사의 경험담을 통해 문제해결·생산관리 및 방법·회의주재·갈등해결·표준운영 절차 등에 대해 듣고 있다. 또한 시티뱅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팀중심 자기관리기법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훈련개발팀이 직무수행의 질을 개선하는 자기관리적 직무팀으로 변천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변화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재빨리 적응하며, 조직성원을 지원하는 것이

90년대의 관리경영상의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장애를 타파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일과 인생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ASTD회의는 변화유형을 탐방하여 조직성원의 미래 계획에 효과적인 기반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 있다. 교육훈련영역에서 미래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직업을 선택할 때 생애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미래시제의 활용을 통한 사고력훈련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포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생애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기확인된 접근방식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기능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애 전환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업에서 변화에 직면한 조직 성원에게 생애 기회를 의미있게 증가시켜 주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ASTD 회의의 특징적인 면이다. 작업현장에서 관리자가 부닥치게 되는 과격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확인하는 노력에서부터 직장 안의 성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준높은 활동결과나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성문제에 관한 가정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활약해야 할 인간자원개발가의 역할을 요약하고 있다. 연극을 통하여 성폭행의 범주에 드는 행동을 파악하고, 성의식을 통한 양성간의 가

치체제와 일에 동업하는 자세 및 필요성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성인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문제 이외에 작업장에서 탁아관리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모관리에 대하여 그 이유를 들고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인간자원개발이나 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고 있다. 또 특이한 것으로 미국국내법인 장애자법을 준수하여, 조직 변화·질관리·다양성관리를 꾀하는 다목적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훈련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ASTD회의에서는 능력 중심 교육훈련과 현업에서의 학습성과, 현업에서의 학습의 전이, 생산성 증강방법, 경쟁적 우위확보 방안, 조직의 학습력 증강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학습된 기술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장애들을 살펴보고, 교육훈련을 조직 요구에 관련지우는 절차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다. 현업에서의 직무수행 성과와 조직 운영결과에 대하여 교육훈련이 가져다 주는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수준의 평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수준별 지침과 응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 운영 성과 및 직무수행에 교육훈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전략적인 평가과정들을 개발하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또 축소나 합병에 의해 직원 감소가 진행 중인 조직에 교육훈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국 내 성인의 학습결손율은 전체 성인 인구대비 10~15%에 이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STD회의는 학습결손이 무엇이며 학습결손 극복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

고 있다.

기업교육은 증세의 길드조직의 마스터와 도제와의 관계에까지 소급해 올라갈 때 그 역사도 길고 발전적인 영역도 있다. 기업이 지니는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는 기업교육을 학교교육과 대비시키기에는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교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업교육은 특정관심영역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교육훈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활성화나 재충전 등이 그것인데 사실상 기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경우 기업조직처럼 자체 조직만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니 크게 관련지어 생각할 부분은 아니나 기업이 의식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대를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영역별로 세분화되며 확산적인 경향을 띠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추세라고 볼 때 언젠가 지나 학교교육이 수렴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기본적인 원칙 또는 원리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기업교육은 기업전선에서 실용화 또는 실전화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만하다. 또 학교교육은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교육은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려 한다. 학교교육은 교육결과를 학교가 수용하기 보다 기업을 포함한 사회에 재투자하는 것이라면 기업교육은 교육결과를 직접 활용한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

전환기적 갈등 속의 몽골 교육

최 수 향



몽골은 1992년 사회주의 이념을 일소하는 신 헌법이 통과되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급작스럽고 적극적인 변혁을 시작하였다. 국가의 이념적 전환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 것이 몽골의 교육이다.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요구하는 교육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몽골의 전환기적 교육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몇가지의 귀중한 경험들이 있다. 국가의 이념적 전환에 따른 교육제도의 변화가 그 첫번째이고, 이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두번째 시사점이다. 특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교육체제인 몽골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또 우리의 교육제도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KEDI의 몽골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경험한 몽골 교육의 현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몽골 교육에 관한 자료의 제한됨과 본 연구진의 단편적인 현장 경험을 고려하여 몽골의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에 국한된 논의만을 하기로 한다.

몽골의 소개

몽골은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구 소련 연방 사이에 있는 내륙국이다. 국토면적은 1.6 백만 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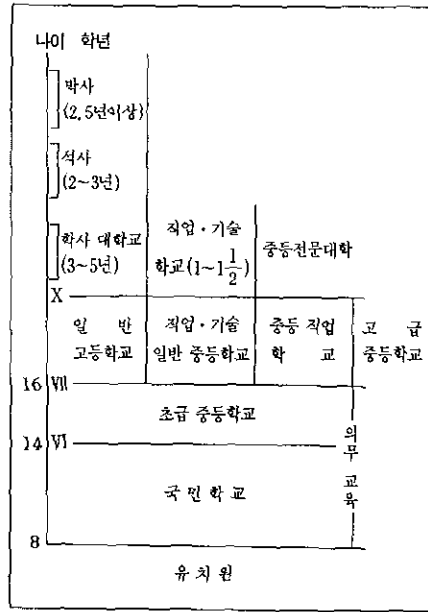
7배이지만, 인구는 약 2백만에 불과하다. 인구 밀도는 약 1.3명/1Km²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인구의 약 5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2년 GNP는 미화 1142달러이다.

몽골은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고수해 온 대 서방단절 외교정책을 철폐하고 현재 경제 무역협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방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몽골과의 적극적인 정치·경제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 부터 몽골과 외교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구 소련 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적 유대 관계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협력 측면에서 다른 어느 외국 국가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 몽골의 사회적 분위기는 기술자가 없어 가동이 중단된 기계에 비유될 수 있다. 1992년 몽골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몽골에는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온 용병 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몽골 사회의 개혁과 구소련 연방의 붕괴에 따라 이들 인력들은 모두 구소련 연방으로 철수했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몽골 자체의 인력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몽골 사회를 재가동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각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책임과 희망을 몽골인들은 교육에서 찾고 있다.

몽골 교육 제도

몽골의 초·중등 교육제도는 1991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하여 과거 소련의 모델을 답습한 4-3-3(2)제에서 6-2-2제로 재조정되었다. 새로운 전체 교육제도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세 이전의 아동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과학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에서는 3세~7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아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학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년제이며, 그 후 2년간의 「초급 중등학교」 교육을 마치면 의무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8년간의 의무교육만으로 학교교육을 마치게 되면 「불완전 중등 학교」 졸업자로 인정 받고, 8학년 이후 2년간의 「고급 중등학교」 교육을 받아 10 학년을 마친 후 졸업을 하게 되면 「완전 중등 학교」 졸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몽골 초·중등교육의 한가지 특징은 「불완전 중등 학교」와 「완전 중등 학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독립하여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8 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약 2년간 다니게 되는 「고급 중등학교」는 크게, 일반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 혹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 그

리고 직업 기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로 이분된다. 후자의 학교들은 다시 단순 작공을 양성하는 「중등 직업훈련학교」와 기술자, 준 전문가 수준의 직업기술인을 양성하는 「직업 기술 일반 중등학교」로 나뉘어진다. 이 「직업 기술 일반 중등학교」는 최근 「훈련생산센터」로 개편되어 단일제, 혹은 다단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직업기술 교육과 훈련을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몽골에는 1990 년 전까지 몽골국립대학교가 유일한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이었고 그 산하에 연구소와 분교의 형태로 4 개의 전문 고등교육 기관이 있었다. 1990 년 이후 몽골 정부는 중앙 중심적 대학교육 체제를 자율적, 전문적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예전의 대학 연구소나 분교들이 각 분야 - 농학, 교육학, 의학, 공학-의 전문 대학교로 개편되었다. 국가의 교육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하고 있어 사립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초·중등교육 단계의 사립교육기관은 전무하다.)

몽골의 유치원 교육

몽골의 유치원 교육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교육 기능이 주 목적인 우리나라의 유치원과는 달리, 몽골의 유치원은 상당한 부분 보육 기능까지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몽골의 「제16번 유치원」(몽골의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들은 독립된 학교명 대신 순번으로 붙여진 번호로 불리어지고 있다.)에서는 간식까지 포함해서

유치원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에 걸친 세 번의 급식을 제공하고 종일제로 아동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전체 교육비의 20%를 항상 유치원에 투자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보육 기능 수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여 유치원에서의 조기 외국어 교육 실시를 금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국가의 개방 정책으로 외국과의 경제·사회 교류가 폭증하자 국가의 생존적 차원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어, 유치원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제16번 유치원」에서는 6 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영어 혹은 일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어를 선호한다는 것이 유치원 원장의 이야기였다. 이 유치원에서는 체계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위하여 유치원용 영어 교재까지 새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유치원에서도 언어 교육은 주로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방문한 「제84번 학교 부속 유치원」에서는 실험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lycée 시스템(몽골에서는 전형적인 학문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체제 일반을 lycée 본연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의 일환으로 6, 7세 아동들에게 본격적인 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소 재촉된 듯한 느낌의 유치원에서의 문자 교육 실시는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내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현상으로 사려된다.

몽골의 초·중등 교육

몽골 사회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몽골의 초·중등 교육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치·경제 논리의 도입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과 종류가 크게 바뀌었고 이에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몽골 교육부 산하 「교육개발연구소」(Institute for Educational Development)에서 초·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교과 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교육수준(Educational Standard)연구」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각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와 내용과 분량, 그에 대한 학습성취도 수준과 평가 기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몽골의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포기는 몽골의 교육 행정에 큰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예전에는 각 단위 학교의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 행정 운영관리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조절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많은 권한과 책임이 각급 단위 학교로 옮겨졌다. 이에, 새로운 교육 행정 운영관리 모델의 개발과 현장 교육 행정가와 교육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실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몽골 정부의 교육 시설 관리 방법과 관련한 흥미로운 관찰 사실이 하나 있다. 몽골에서는 국가가 학교 건물의 증축을 위한 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하나는, 학교의 학생 수와 그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 수(유치원의 경우 침대 수)를 비교하여 학생 수가 의자 수보다 많으면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그 학교의 건물 증축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오전 오후의 각 시간대

에 한 교실을 사용해야 하는 학급 수를 확인하여 더 과중한 복수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의 증축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파생된 보다 현실적인 학교 운영 관리 문제는 교사들의 이직 문제다. 몽골에서는 현재 국가의 궁핍한 교육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사립학교 설립이 늘어나자 보수와 대우가 더 나은 신설 사립학교로의 교사들의 이직이 늘고 있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제 1번 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몽골의 명문 초·중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의 이직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어 교육 전문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늘어 나면서 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사들의 이직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또, 자유 경쟁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교사들이 그들의 자질 향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고등교육 학위 취득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도 있어, 몽골 초·중등학교들의 우수한 교사 인력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몽골 사회의 개혁에 따라 도시와 시골에서는 대조적인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와 달리 몽골의 시골 학교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기숙사 운영이 필수적이다. 국가의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되자 기숙사를 문 닫는 학교가 늘게 되었고, 그 결과 시골 학교에서는 중도 탈락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라 교육의 투자 가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한층 고조되어 오히려 취학률이 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밀 학급 현상까지 관찰되고 있다. 산업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게 되면 이농인구 자체가 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도시와 시골 학교간의 제반 교육 격

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초·중등 교육기관들은 국가의 절대적인 인력 부족난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침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 교과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전력하는 것이다. 각 학교급에서 실험적이거나 실제로도 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lycée 시스템이 그 좋은 예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제 84 번 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한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의 차원을 넘어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 학교 울타리 안에 유치원, 초·중등 학교 그리고 나아가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 교육기관을 부설로 설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 양질의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기능 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 기술교육도 동일한 비중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 예로, 「제 1 번 학교」의 경우 전형적인 인문계 초·중등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 사무원 양성을 위한 직업반을 새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기술 교육기관에서는 단순 기능인 양성에 치중되어 있던 예전의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국가의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맺음말

거센 개혁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몽골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이나 몽골 초·중등 학교의 10 년간의 통합 교과과정 운영은 몽골 교육의 보수적인 단면을 보여 준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 수준에서의 lycée 시스템의 도입,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중등학교 내의 전문학교 설립, 외국어 교육에 대한 과

감한 투자 등은 몽골 교육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자세를 보여 준다. 몽골 교육의 앞날은 이 보수성과 개방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달려 있다. ㉔



최 수 향

-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졸업
-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인 연구원
- 「대화적 사회화 과정」 「아동 발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관점의 비교」 외.

독일 기초학교 1학년 교사의 일기

박 덕 규



이 글은 필자와 함께 1976년에 공부했던 한 여학생이 1993년 9월 기초학교 1학년 담임으로 있으면서 썼던 일기를 지난 3월에 받아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독일 학교 교육이 너무 초보적이라 우습기도 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매일 학교에서나 집에 와서나 마음껏 뛰어 노는 독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의 청소년들보다 미련해야 하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 더 못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국민학교 1학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소개한다.

제 1 일

학교 식당의 소음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하다. 내게는 지금 30명의 어린이 명단이 들려져 있다. 이제 처음으로 학교 삶을 시작한 나의 반 학급 명부이다. 나는 아주 긴장되어 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지금 나는 새로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인생에서 하루밖에 없는 학교생활의 첫날에 어떻게 그들이 지냈을까를 생각한다. 과연 나는 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었는가? 교사로서 나

는 이들에게 페스탈로찌의 사랑을 주었으며, 이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느꼈을까? 이미 나는 오늘 그들의 일생에서 처음 맛보는 학교생활이 지루하고 재미 없으며 학교란 별게 아니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가?

나는 전에 없었던 1학년의 첫 1개월간의 수업계획을 새로 세웠었다.

오늘은 첫날로서 무엇을 했는가? 물론 계획대로 하기는 했지만...

애국가 부르고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나는 어린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꼬마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주시했고 함께 교실로 들어갔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흩어 앉아 노래를 하나 가르쳤다. 네덜란드 동요를 우리말로 고쳐 이렇게 불렀다. "너희들은 일곱을 들어 봤니 일곱을, 너희들은 일곱 단계를 들어봤니? 당신은 나에게 춤을 출 줄 모른다 했어요. 나는 양반같이 춤을 춘다네. 이게 하나(왼쪽 발을 앞으로), 이게 둘(오른쪽 발을 앞으로), 이게 셋(왼쪽 무릎에 손을), 이게 넷(오른쪽 무릎에 손을), 이게 다섯(왼쪽 팔꿈치를 짚고), 이게 여섯(오른쪽 팔꿈치를 짚고), 이게 일곱(머리를 두 팔안에 감싸기).

노래와 율동이 끝난 후 모두가 바닥에 누워 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숙여 두 팔로 감싸 안고... 잠시 후 모두다 하하하! 웃고...

나는 곧 일어나서 칠판에 여러가지 물건을 걸어놓고 1부터 7까지 쓰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아갔다.

모두가 함께 이야기가 끝난 후 생일인 프랑크를 축하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흩어 앉도록 한 후 이름을 쓴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 예쁜 꽃이 그려진 스티커 1장씩과 함께. 3명의 어린이가 소극적이고 행동이 서툴렀으며 이야기를 머뭇거리고 잘하지 못했다. 약간의 공포증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나 이를 의식하지 못하게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이끌었다.

끝나기 전에는 인쇄체로 이름이 쓰여져 있는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이 봉투는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며 1주 후 금요일 저녁 1차 학부모 회의 때 부모들이 가지고 오도록 했다.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교실에서 나와 도로까지 같이 가서 모두 안녕했다. 부모들이 데리러 온 어린이들은 즐겁게 돌아갔고 혼자 가야 하는 7명은 좀 쓸쓸해 보였다.

제 2 일

"우리의 노래"를 시작으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아직 제자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앉았다. 아침 모임이 시작된 것이다. 무릎을 맞대고 웅기종기 교실 앞쪽에 앉아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 부모와 나눈 이야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집에서 놀았던 이야기 등 차례를 정하지 않고 원하는대로 하도록 두었다. 이야기의 뜻이 잘 연결되지 않아 이를 정리시키느라 혼란스럽기도 했다.

어느 정도 만족하게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느낀 어린이들은 제각기 또다른 이야기로 시끄럽다. 시끄럽도록 떠들게 놓아 둔 후 주의를 모아 오늘 무슨 놀이를 했으면 좋을지를 의논케 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진행 과정은 처음부터 명료해야 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힘겨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견 일치후 분명하게 매일같이 우리의 학교 생활은 이렇게 아침 모임으로 시작되며, 이 모임에서 그날의 할 일을 스스로 정하게 되므로 각자는 이 때에 할 이야기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했다. 제2일째 학교 생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옆에 앉아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서로 마주보며, 묻고, 돕고, 제3자 또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묻도록 한 일.
- 교실, 학교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제 위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

다.

•나와 친구,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Wir)에 대한 알파벳을 배웠다.

제 3 일

“우리의 노래”로 시작. 아침 모임에서 오늘 할 일 제안과 합의·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여러 명의 어린이들은 방석을 가지고 왔다. 방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 아침 모임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우선 청소 상태의 불결로 내키지가 않았을 것이고 나무 바닥이 딱딱해서 감촉이 나빴을 것이며, 학교가 오래된 건물이라 공간 문제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방석을 가지고 오게 한 것 같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는 동료 교사와 교장과 상의해서 계속 가지고 와도 될 것인가 아닌가를 내일에는 이야기해 주어야 하겠다.

오늘은 처음으로 붉은 연습장을 폈다. 읽기 와 쓰기 연습책이다.

이 힘든 작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흥분과 함께 곤란함에 부딪치게 한 것 같다. 30분밖에 안되었는데 지루함을 느끼고 소란스러웠다. 곧 노래를 하나 부르고 베를린 극단의 연극을 하나 시작했다.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의도적인 학습이다.

빨강, 빨강, 빨강 불에서 나는 선다,
선다, 선다.
초록, 초록, 초록 불에서 나는 간다,
간다, 간다.
그다음 오른쪽을 보고 골짜기 건너서
이렇게 안전하게 집으로 간다.

어린이들은 왼쪽 손목에 붉은 신호등을, 오른쪽 손목에 초록 신호등을 만들어 달았고, 유희를 했으며 수업이 끝난 후 떼지 않고 그

대로 집으로 가게 했다.

우리들은 화장실에, 학교 비서실(행정실)에, 운동장에, 컴퓨터에 함께 가고 함께 돌아보았다. 자신, 가족 또는 친구의 얼굴을 각자 그리게 했다.

방석 문제는 자유의사에 맡기며 관리 책임도 각자에게 부여했다.

제 4 일

칠판 앞에 모여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울동을 했고 머리를 팔로 감싸고 바닥에서 당굴었으며 등글게 모여 앉아 아침 모임을 했고 오늘의 일과를 제안케 했다. “나는 간판입니다”, “신호등 노래”, “간단한 가정 놀이” 등이 제안되었다. 학교 전경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했고 각 개념과 글씨가 다른것을 알게 했다.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하나씩 나와서 변소가 어디에 있고 실제 위치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방향에서 어느쪽에 있으며 궁금하면 밖으로 나가서 실제 방향을 확인하게 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나의 위치와 실제의 위치간에는 커다란 혼돈이 생겨서 재미있어 하면서도 어려웠을 했다. 주의집중, 관찰, 발견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다.

30분 간의 주의 집중 교육이 끝난 뒤 정글 그림에서 동물 찾기(이 놀이를 Kim-놀이라고 함. Kipling의 정글책) 놀이를 통하여 주의집중과 기억력 훈련을 시켰다. 학교 사진을 통하여 습득된 생각하는 과정을 놀이를 통하여 대상을 발견하고 이를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대상물의 발견과 표시 및 이의 표현은 기억의 균형 기능을 기르며 표시된 설명 글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자언어 이해(즉 읽기) 과정 습득이다. 이 Kim 놀이는 두 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간판입니다”는 내가 선전 광고물이나

도로 표지판 또는 안내판으로서 각자가 자신을 “나는…이다” 또는 “그것이 나다”라고 자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8 절지 크기의 광고물이나 안내판 더 나아가 각종 과일, 채소, 동물 등 자유롭게 자신을 대립시켜 표현케 하는 이 놀이는 종결 직전에 자신의 머리와 눈 색깔,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동물, 친구 등을 발표케 했다.

이제 어린이들은 학교생활이 즐거운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제 5 일

오늘의 할 일을 의논한 후 각자에게 물었다. 집에서 Kim 놀이를 해 봤느냐고…! 이 질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물론 놀이를 하고 안한 것에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가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와, 어린이들 스스로 반복연습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다.

전체 어린이들의 답변을 모두 체크했다. 물론 지금말이다. 가정에서 Kim 놀이를 한 어린이들은 3분의 1 밖에는 되지 않았다.

어린이들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학습에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칠판을 열었다. 이미 어제 오후에 준비해 둔 알파벳으로 크게 쓰여진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은 이 알파벳을 모아 단어를 만들어야 했다. 이 알파벳은 한 어휘에 쓰여졌을 때와 다른 인지 과정을 거친다. 단어에서 알파벳 구분하기는 쉬우나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우선 A 와 M 에 대한 단어를 복합하는 연습을 했다. 어린이들은 이미 물건들의 길이가 제각기 다른 것을 안다. 이 다양한 물건의 수에 대하여 함께 세어 본다. 그중에서 A 가 자연스럽게 포함된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 단어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M 은 월요일

에 들어간다. 월요일은 달과 관계가 있다. 같은 M 이다. 이미 A 에서 Z 까지 대문자와 소문자 형태가 문에 붙어 있다. 이 중에서 한 어린이가 하나씩 떼어내고 남은 학생은 동일한 다른 대문자를 갖게 했다. 알파벳 카드를 들고 순서대로 서서 그 배열을 바꾸어 가며 어떤 한 단어의 구성을 형성해 본다. 둘 또는 세 집단으로 나누거나 30 명 중 나머지 6 명이 교대로 관찰토록 해왔다. 이제 어린이들은 알파벳의 기능을 알게 되었다. 금요일이라 주말 가정학습 과제를 부여했다. 그것도 범이 정하는 대로 15 분 내지 30 분안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것이다. 내일은 토요일, 두 시간 수업밖에 없다.

제 6 일

이제 첫주의 마지막날이다. 오늘은 “우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곧바로 한 상징과 언어를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연결에 있어서는 이미 유치원에서 오래전에 배웠다. 이미 몇몇 어린이들은 “내 모자는 세 개의 각을 가졌네!”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아침 모임에서는 한 주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오늘 목표 중의 하나인 시에 대한 공부를 서둘러야 했다. 느느느 노이만(노이만은 우리반 어린이의 성), 느느느 나스혼(교밖소), 느느느 누쓰(호도), 느느느 나메(이름)…

주말에 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장 이름으로 된 가정 통신문을 나누어 주었다. 가정 통신문은 1주일 동안에 배운 내용과 어린이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에 격려와 함께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비네가 감기 기운이 있기에 격려해 주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

었다. 물론 저희들끼리 아꼈던 이야기를 주고 받게 한후에. 의사한테 가느니 마느니, 어떤 약을 먹었느니, 마셨느니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 나는 열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되도록 따뜻하게 목욕하고 잠잘 때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라고 일렀다.

열이 나서 의사한테 가야 할 경우에는 물론 어머니께서 결정하셔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월요일에 학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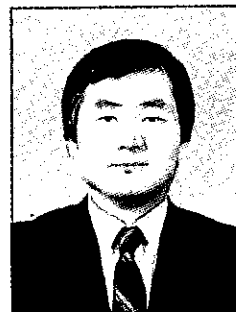
제 9 일

오늘은 교장과 교감의 수업 참관이 있는 날이다. “세 개의 각” 노래를 끝낸 후 모두 함께 오늘 우리들과 함께 생활할 두 분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은 할 일이 정해져 있는 날이라서 먼저 배운 상징에 대하여 반복 설명했다. 상징물들이 칠판에 걸려졌고 그 그림 옆에 관련 설명문이 붙여져 있다. 우리들은 2~3 개 단어로 된 문장을 함께 읽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칠판의 반쪽에 매일같이 상징과 그 문자를 걸어둘 계획이다. 어린이들은 하루의 일과 중 어느 때에라도 (수업 중에도) 이 상징과 문자를 조작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2주일째부터 시작되어야 할 과제이다.

알파벳 A와 소문자 a 의 구분은 이번 주에 완성시켜야 할 과제이며 단어 구성에 있어서 Igel(고슴도치)과 Chinese에서 I 와 ch 를 빼내어 Ich (나)를 만들었다.

발음 연습에 있어서 pe 와 fe, pfe 를 분명하게 발음토록 했다. 마가렛이 제일 잘했고 멜라니가 잘못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 모두 완성시켰다. 현 시점에서 30명 모두가 알파벳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언어적 기능을 알지는 못했다. 발음의 명암, 강약, 고저 그리고 생명력을 일깨우는 말하기 교육은 기초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단어 하나를 발음하기 위하여 입모양에서부터 호흡 그

리고 얼굴 표정까지도 교정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단어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언어 예술성을 살리는 길이다. pe, fe, pfe 의 연습은 그래서 더욱 중요했다. 교장, 교감은 오늘의 일과 중 여러가지 작업에서 어린이들을 도왔다. 일과가 끝나기 전 어린이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이들은 이제 교장·교감과 친해졌다. 서로 너 (Du)라고 부르게 되었고 어린이들은 학교에 교사를 돕는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언어예술 교육에 대하여 칭찬을 들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사례를 소개해 주겠다는 교장의 말을 들었다.



박 덕 규

-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본원 교원교육연구부 부장
- 「아니마 아니브스」, 「통일후 구동독 시민의 적응과정」의

기획처

- * 9. 11-9. 24일까지 강중훈 선임 연구원은 태국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초청으로 "남녀 균형 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지역간 워크숍" 참가를 위하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 * 9월 12일 유네스코 필리핀위원회 개발관리담당 일행 2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한국교육 및 과학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9월 23일 중국국가교육위원회 부주임의 5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한·중국간 교육분야 교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전국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장 회의 개최. 전국 15개 시·도 교육(과학) 연구원장 회의가 9.30~10.1 양일간 교육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각 시·도 교육(과학) 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업무 소개 및 업무 협조 방안 협의,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개발의 학습 자료, "학교에서 인간 교육 구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실시되었다.

- * 10월 4일 태국 교육부 대학교육 담당자 12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과학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0월 4일 태국 교육부 교육과정과 교수방법개발부 담당자 1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0월 6일 호한재단 사무총장의 2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기관간 상호교류 증진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0월 11일 World Bank 중등교육관계자가 본원을 방문하여 '95년도 World Bank Staff 연수에 대한 사전 일정'을 논의하였다.
- * 1994년도 연구 결과 발표회가 10.21~21일에 개최되었다. 본 발표회에서는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등 10개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 10월 25일 말레이시아 교육부 부소장의 3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현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0월 26일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처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0월 26일 중국 하남 사범 대학 채장석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교육의 현실과 개혁"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 10월 27일 미국 미조리 대학교 사범대학장인 배영 박사를 초청하여 "대학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 방법 및 도구"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 10.30~11.5까지 몽골 교육연구소 소장의 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몽골 교육제도 연구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0월 31일 독일 Konrad-Adenauer 재단 정치교육원장인 Gunther Ruther를 초청하여 "동독후 동독지역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 11.2~11.8일까지 유현숙 교육행정연구부장은 유네스코 중국 위원회와 중국 국립교육발전 연구소가 주최하는 "시장 경제와 교육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국

제회의에 참석하였다.

* 한중하 원장(출장기간: 11. 3-11. 12)와 김주훈 연구조정부장(출장기간: 11. 6-11. 19)은 유네스코 아태지역 교육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처 및 일본 국립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태지역 모든이를 위한 과학기술교육 발전에 관한 훈련개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95년도 연구 과제 설정을 위한 연구 심의회가 11월 22~23 일 양일간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연구본부

* 교육과정연구본부 외국어교육연구부에서는 지난 9월 9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 개선을 위한 한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의사 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걸맞는 질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16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교육기초연구본부

* 9월 28일 「특수 학교 학급 운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전국 특수학교 교장, 교감 및 장학사, 장학관의 참여하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자 및 참석자는 특수학교의 운영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되며,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 특수학교에서 교육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9월 27일 미국 Iowa대학의 고등교육 연구전문가로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제1회의실에서 “대학에 있어서의 질관리 전략: 평

가인정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교육정책연구본부

* 10월 5일, 6일, 12일 3일간에 걸쳐 본원 제1, 2회의실에서 “한국 교육의 중장기 발전 구상 연구”의 일환으로 정책 과제 검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1대 중점 정책 과제별로 본원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대학교수 등 원외 전문가가 지정 토론을 하였다.

* 10월 13일(목) 본원 제1회의실에서 “학교시설의 현황과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건국대학교 이호진 교수가 새로운 타입의 학교건축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본원 교육시설 연구부 박재운 부장이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본 교육시설의 현황과 요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으로는 권영춘(교육부 지방교육시설과 사무관), 유우연(상명국교 교장), 장성준(명지대 교수), 이용숙(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부장)씨가 토론을 담당했다.

* 10월 13일에 연구동 회의실에서 “교육자치제에 따른 학교경영체제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10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본원 제2회의실에서 “미래 학교시설 계획 연구”의 일환으로 미래 학교시설 계획에서 기본 요건

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부, 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함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컴퓨터교육연구센터

* 컴퓨터교육연구센터에서는 94년 9월에 본원 LAN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원내 개방에 앞서 사용자가 보다 원활하게 LA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94년 11월 중에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및 LAN 사용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주관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3기 컴퓨터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일반연수가 각 시·군 교육청 컴퓨터교육 담당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본원 컴퓨터 연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 컴퓨터교육연구부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비하여 시·도 교육청의 요청으로 새로운 교원 컴퓨터 연수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연수 교재 원고가 10월 11일~29일에 걸쳐 있으며,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교재를 12월에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 10월 31일, 제3일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전국 본선대회의 출품작 152편이 접수되었다. 이들 작품은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심사를 거쳐 학교 현장에 보급될 계획이다. 본 대회는 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92년에 창설된 대회로서, 제1회 및 2회 대회를 통하여 200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발굴·보급한 바 있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부에서는 CAI 프로그램의 활용 실태 조사와 학교 현장의 컴퓨터 교육 자문을 위하여 교육부 지정 컴퓨터교육 시범학교(원주 북원국민학교의 1개교)와 도교육청 지정 컴퓨터교육 연구학교(경기 시흥시 소재중학교의 2개교)의 운영 보고회를 참관하였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부에서는 '94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개발중인 교육용 소프트웨어(90편) 활용지침서를 집필 중에 있으며 프로그래밍이 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장 학교 시험 적용(3차 11. 15~28)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11월 7일부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90편)의 호환성 시험을 할 예정으로 있다.

방송통신교육센터

- * 11월 6일 1994년도 고등학교 수료자 및 가수료자를 대상으로 '94학년도 졸업학력 인정평가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국사이며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고교 학력이 부여된다.
- * 11월 20일 서울지구 동문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응변대회를 경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응변대회의 주제는 바람직한 방통인의 자세, 면학의식 고취, 역경을 이긴 체험담 등으로, 방통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 11월 25일 방송통신고등학교 발족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평생 학습 사회에 대처한 중등원격 교육의 개방과 개혁'이란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20여년간의 방통고 교육성적을 정리해보고, 현 방통고 교육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원격교육체제의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업기술특임연구본부

- * 공고 「2.1체제」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을 위해 산업체 인사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면담 출장 8회 및 협의회에 140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참석한 인원은 7월, 8월, 9월 등 3개월동안 원내인사 약 450명, 원외인사 약 1020명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는 공고 19개 학과별로 23개 직종이 선정되었고, 이 직종을 토대로 직무 능력군이 확정되었으며 각 능력군별로 직무 명세서, 작업 명세서, 교육자료 등이 최종적으로 작성되고 검토되었다.
- * 9월 17일부터 9월 25일 동안 교육부 관계자와 본원 연구원은 영국, 독일 등 선진 공업국들의 공업교육 현황을 시찰하고, 70여권의 교육자료와 4편의 영상자료 및 5편의 슬라이드 자료를 수집하였다.
- *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발연구가 공고 19개 학과별로 19명의 연구책임자 및 41명의 공동연구자에게 연구가 의뢰되었다.
- * 공고 「2.1체제」홍보용 영상자료 1편 및 응용 실습용 영상자료 4편의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공고 및 제작업체의 협조를 받아 영상자료 제작을 하고 있다.

* 공고 「2.1체제」교과용 도서 체제 및 도서 개발을 위한 3회의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듈식 교과서 체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교과서 집필자 및 연구자가 선정되었다.

* 공고 「2.1체제」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가 모형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모형 초안에는 생활기록부 양식, 학교 및 산업체에서의 기능 평가 방법, 자격증 검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 부모교육자료 발간 보급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집단이며 교육을 담당하는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가정의 각 구성원은 자기의 위치와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를 배우고 예절을 익히고 높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일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일은 자녀교육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先道徳後學術 교육 이행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자녀들의 생각과 그들의 세계를 알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녀교육을 돕는 의미에서 이 책을 펴냈다.

▣ 환경교육 훈회자료집 발간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근본 문제이다. 산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로 훈회자료집을 발간한다.

환경교육 8대 영역을 정하고 영역별로 10가지 정도의 훈회자료들을 만들어 전체 조희나 학급 조, 종회 시간에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제6집 발간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행동, 바른습관 바른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감화를 주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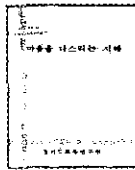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교사와 학부모께 마음의 양식이 되고 지혜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자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제6집을 발간하여 교본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교육방송 연구」 제8집 발간

전파를 매체로하는 교육방송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며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높은 교육활동으로 커다란 몫을 태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교육의 주체고개인 학생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기하고자 『교육방송연구』 제 8집을 발간 벤치마킹 리엔지니어링 운동을 펴고자 하고 있다.

▣ 「경기교육」 '94가을호 발간

경기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경기교육』 가을호(통권 124호)를 발간 보급하였다. 이번호에는 『교육과정의 운영방향』을 특집으로 하여 교육과정의 운영방향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서 활용 및 교육내용 선정방안 등을 제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효율적인



강원도교육연구원

▣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실험 적용 지역별 협의회 실시

강원도교육연구원은 '95년도에 적용될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도지정 실험학교에서 실험 적용한 결과 협의회를 5개지역에서 가졌다.

교육현장에서 실험 적용한 편성·운영지침에 대한 협의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실시된 운영보고회는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참여한 일선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실험 운영된 결과가 보고 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진로교육 세미나 개최

학생 개인의 특성과 잠재능력이 최대한 신장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활성화가 화급한 상황에서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새한국인 육성에 교육자, 학부모, 지역 인사 모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기대하고자 10월 14일 제 2회 진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미래의 다양화 사회에 대비한 올바른 진로관, 직업관, 가치관 교육의 강화문제, 조기 진로결정의 문제, 진로정보 활용 문제, 진로상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모아져서 앞으로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었으며 직접적인 실습과정을 통한 협의회는 '95년도에 적용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들을 표시하고 있었다.

▣ 교육방송 기자재확충과 편집실 녹음실 시설개선으로 일선교단 지원.

일선교단의 교수학습 방법개선의 일역으로 방송매체의 활용은 장족의 발전을 해왔으나 그동안 본원에서는 노후된 복제장비로 EBS교육방송을 녹화보급함에 따라 화질이 불량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절감된다는 일선교단의 시정요청이 있었고, 따라서 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하여 녹화장비 VTR 및 모니

터를 실험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영상자료를 공급하게 되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재미있는 서예공부』 영상자료 개발·보급

교사의 적절한 지도(창의적 과정)와 어린이의 자발적 활동(흥미중심 과정)을 조장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갖게 하므로써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도록 "재미있는 서예공부" 영상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충청남도교육연구원

『94 연구·시범 운영 보고회』 개최

본원에서는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정 연구 실험·시범학교 42개교 중 29개교(교육부 지정 2개교, 도지정 27개교)의 운영 결과 보고회를 지난 9월 27일 광동국민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7일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원

『동음이의 한자어사전(同音異義漢字語彙辭典)』 발간 보급

말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한자어를 모아 『동음이의 한자어 사전』을 교육자료로 본원에서 편집하여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4×6배판 580쪽으로 8,890종의 25,679단어를 실었으며 전체 동음이의의 98%를 차지하는 2음절로 된 동음이의의만을 발췌·정리하였다.

『제4기 「학부모 대학」 개강

학부모들이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갖

고 효율적인 자녀 지도원리와 기법을 체득하게 하여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가정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부모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94 초·중·고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실시』

자녀의 진로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초·중·고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회를, 22개 지역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연인원 5,0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 시험 평가 자료 발간 보급』

본원은 '95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능평가 자료집 4개영역(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탐구 I, 수리탐구 II) 800부를 제작하여 도내 고등학교에 보급하였다.

본 자료집은 「교육과정」에서 총론을 잡고, 출제원칙과 경향분석, 사고 과정별 배경지식, 관련단원 학습활동, 수련활동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과학습 활동에 방법적 예시 자료로 제공되어 현장교사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주제적으로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94연구·시범 학교 공개 발표회』 개최

본원에서는 '94 연구·시범학교 공개 발표회를 연구의 내실과 연구 내용의 일반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일제 보고회와 열린 전체협의회를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금번 10, 11월에 초등 15개교, 중등 13개교에서 도덕성 함양, 즐거운 교실, 방송교육, 특수재능아교육, 학교급식, 체육교육, 문화예술활동, 토의학습 영역 등 21개 영역에 걸쳐 발

표될 공개 보고회에서는 참가한 회원 모두가 자유로운 질문과 토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운영방법을 체득하는 전체협의회를 60분 이상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시범학교운영 결과 일반화 자료집을 발간 보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연구원

『교육 연구 주제 목록집』 발간 보급

본원에서는 현장교육연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교육연구 주제는행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90년도-'93년도) 교육부 및 각 시, 도교육청 지정 연구 시범, 실험 학교 주제 1,683편과 현장 개인 연구주제 5,021편을 수합하여 영역별가, 나, 다 순으로 분류 편집한 『교육연구주제목록집(제1집)』을 발간 보급하였다.

『현직연구원 논문 발표회』

전라남도 교육연구원에서는 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원 77명의 현직연구원을 선발하여 연구사들의 도움을 통해 연구 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은 그 간의 연구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입상한 우수 논문 발표 대회를 담양동국민학교에서 갖게 된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미 각급 학교에 보급된 CAI및 CMI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학교급별(국, 중, 고, 공통), 학교별, 교과별, 단원별로 자료를 입력, 검색, 정리,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국민학교 특활영어	배움책(상)	6,000	대 한 교 과 서(주) (02)563 -8161 ~70)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내(국민학교 3-4학 년 학생용)	1,600	대 한 교 과 서(주) (02)563 -8161 ~70	
	배움책(중)	6,000			우리와 내(국민학교 3-4학 년 지도서)	2,600		
	배움책(하)	6,000			우리와 내(국민학교 5-6학 년 학생용)	1,600		
	지도서(상)	2,500			우리와 내(국민학교 5-6학 년 지도서)	2,400		
	지도서(중)	2,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지도서(하)	2,800	2,8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배우며 생각하며 (국민학교용)	배움책(1-2)	3,400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용)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4,000
	배움책(3-4)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배움책(5-6)	2,1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지도서(1-2)	3,1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지도서(3-4)	3,6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지도서(5-6)	3,000	3,0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용)	배움책	2,700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용)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지도서	3,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3-4학년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1-2학년용	1,5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3-4학년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5-6학년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1-2학년) 상	1,3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중	1,1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하	1,4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3-4학년) 상	1,8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중	1,6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하	1,7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5-6학년) 상	1,7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중	1,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하	1,900	1,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생활경제 학습자료 (국민학교용)	지하마을의 전설	1,400	생활경제 학습자료 (국민학교용)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대호와 드숭	1,5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내일은 야구왕	1,5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육망과 선택	1,5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동수의 병	1,4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화해	1,3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짱구의 물기비행	1,4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한자봉 두마음	1,3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물고기의 교환	1,4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지도서(상)	500	5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지도서(하)	400	4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민주시민 교육자료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와 내(국민학교 1-2학 년 학생용)	1,3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와 내(국민학교 1-2학 년 지도서)	2,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와 내(국민학교 1-2학 년 학생용)	1,3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와 내(국민학교 1-2학 년 지도서)	2,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성교육자료	아직도 야기라고요 (국민학생용)	2,000	성교육자료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어른이 되니까요(중학생용)	2,5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우등생이 되기 위한 글읽기 (국민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우등생이 되기 위한 글읽기 (국민학생용)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정교화 학습전략(I)	1,7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정교화 학습전략(II)	1,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1,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환경교육자료 (국민학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 2학년용)	1,500	환경교육자료 (국민학교용)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 4학년용)	1,7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보람찬 환경탐구 (5, 6학년용)	1,9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영재교육자료	이야기나라 (국교 3, 4학년용)	1,400	영재교육자료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추정의 세계(")	1,2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자식에 관한 연구(")	1,1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미술감상(")	1,6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
영재교육자료	교사용지도서(")	2,500	삼화출판사 (02)776 -6687~8
	신문기사(국교5,6학년용)	1,000	
	학률의 신비(")	1,100	
	우리나라의 풍습(")	1,400	
	깨끗한 물(")	1,100	
	동요만들기(")	1,800	
	교사용 지도서(")	3,30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생용)	1,400	
	전기와 그 이용(")	1,200	
	인간과 생태계(")	1,000	
	바다의 신비(")	1,10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료 (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3,200	
	(2학년용)	2,700	
	(3학년용)	2,700	
영어능력신장자료 (중학생용)	영어 읽기	3,300	
	영어 쓰기(1)	2,700	
	영어 쓰기(2)	2,000	
	영어 쓰기(3)	2,100	
KEDI집단 지능검사	검사지(초·중·고·대학생 용 8종)	각 750	한국적성 연구소 (02)515 -5722
	추가검사지(초·중·고용 3 종)	각 750	
	검사요강(5종)	각 1,200	
진로성숙도검사	검사지(중·고교용)	각 750	
	검사요강(")	각 1,000	
KEDI-WISC 개인지능검사도구 기본학습 가능검사도구		104,000	특수교육 (02)812 -0348
		184,000	
언어교육학습자료	자료A(색막대놀이외2종)	231,000	국민서관 (02)710 -7751
	자료B(곰돌이 도미노 외 10 종)	132,000	
	자료C(그림수찾기 외 9종)	110,000	
	자료D(바둑판게임 외 7종)	187,000	
언어교육 활동자료		165,000	
한국교육 영인본		150,000	하우기획 출판 (02)268 -4417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20 종~25 종(발간 즉시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회비(1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 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정보센터 출판부(대표전화 572~5121, 교환 408)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KEDI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NO. _____

구독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		
개인 의 경우	구독자 성 명	전화번호	
	근무처	직 위	
단체 의 경우	구 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		
구독구좌수		구좌 (신규, 재가입 : 년도회원)	
회 비	○ 납 입 처 :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		
■ 가입 년회비 (1구좌당) 60,000 원	○ 송 금 액 : 원 ○ 송금 년월일 : 199 년 월 일 ○ 송 금 자 명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하의 도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 199 . . . 신 청 자 (개인, 단체) (인)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장 귀 하			

코끝에 묻어나는 가을의 냄새가 무르익는다. 가을이 점점 높아져 가고 산 허리 빛도 가을 채비를 하는 듯 녹음이 짙어져 간다. 아침마다 창너머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 지는 것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봄에 뿌린 씨앗들을 여름내 보살피 키워서 추수를 하는 것이 또한, 가을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시작한 일에 대한 맺음을 자연을 보면서 생각해 한다. 아람 벌어져 떨어지는 밤처럼 때가 되면 무르익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안달을 하며 보낸 지난 여름을 생각하며, 진홍색 연시감을 따면서 감나무에 까치밥 몇 개를 남겨두는 여유를 이 가을에 가져 본다.

어깨에 묻어나는 가을의 쌀쌀함이 상쾌하기만 하다.

가
을

강 증 훈
(본원 선임연구원)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